

방송융합정책연구 KCC-2020-36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한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Analysis on present condition and preparation of remedy  
plans for fast/accurate disaster broadcasting services

유홍식/김원제/김찬원

2020. 11

연구기관 : 한국언론학회



이 보고서는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한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 한국언론학회

총괄책임자 : 유흥식

참여연구원 : 김원제

김찬원

# 목 차

요약문	ix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표	5
제2장 재난방송에 대한 기본 이해	6
제1절 재난과 방송	6
1. 주요 개념과 법적 규정	6
2. 비판 및 논쟁	8
제2절 국내 재난방송 체계	13
1. 재난방송 실시체계	13
2. 재난방송 실시 주체	15
제3절 재난방송 관련 평가	22
1.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22
2.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에 대한 평가	23
제3장 재난방송 보도의 원칙 및 과제	27
제1절 개념 등 기본 맥락 검토	27
1. 미디어와 위험 보도	27
2. 미디어 위험 보도의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	29
제2절 재난방송 보도준칙 등 자율규제 활동	31
1. 재난방송 보도 관련 법적 기준	31
2. 국내 재난보도준칙 및 해외 사례	32
제3절 재난방송 보도 현황 및 문제점	44

1. 재난방송 보도 평가 일반 .....	44
2. 코로나19 방송보도 평가 및 과제 .....	48
<b>제4장 재난방송·보도 분석 .....</b>	<b>55</b>
제1절 분석방법 .....	55
1. 분석 기간 .....	55
2. 자료수집 .....	56
3. 분석 유목과 조작적 정의 .....	56
4. 분석방법과 코더 간 신뢰도 .....	58
제2절 양적 분석결과 .....	59
1.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발생 시기별 보도 건수 .....	59
2.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프레임 .....	60
3.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논조 .....	68
4.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기사 유형 .....	72
제3절 질적 분석결과 .....	77
1. 코로나19 재난방송 시기별 형식적 프레임 분석 .....	77
2. 코로나19 재난방송 시기별 내용적 프레임 분석 .....	85
제4절 소결 .....	124
<b>제5장 재난방송 보도 개선방안 .....</b>	<b>132</b>
제1절 개요 .....	132
제2절 재난방송 고도화 .....	135
1. 방송사의 재난방송(보도) 고도화 .....	135
2. 법·제도적 개선 및 지원 강화 .....	139
제3절 재난방송 거버넌스 및 시스템 구축 .....	142
1. 재난방송 거버넌스 구축 .....	142
2. 재난방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43
제4절 주관방송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 .....	150
1.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150

2. 권한 및 임무(역할) 재정립 .....	151
<b>제6장 결론 .....</b>	<b>154</b>
<b>참고문헌 .....</b>	<b>160</b>
<b>부 록 1. 재난방송 보도 점검 및 분석 시트 .....</b>	<b>164</b>
<b>부 록 2. 전문가 자문 의견 .....</b>	<b>186</b>

## 표 목 차

<p>&lt;표 2-1&gt;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지진 당시 재난방송 현황 ..... 9</p> <p>&lt;표 2-2&gt; CJ헬로의 강원도 대형 산불 대처과정 ..... 10</p> <p>&lt;표 2-3&gt; 재난방송 비판사례 ..... 10</p> <p>&lt;표 2-4&gt; 재난방송 유형 ..... 15</p> <p>&lt;표 2-5&gt;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 ..... 16</p> <p>&lt;표 2-6&gt; 재난방송사업자현황 ..... 16</p> <p>&lt;표 2-7&gt; 재난방송 실시 단계 ..... 19</p> <p>&lt;표 2-8&gt;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기준 ..... 19</p> <p>&lt;표 2-9&gt; 재난방송 요청 및 미실시에 따른 제재 현황 ..... 25</p> <p>&lt;표 3-1&gt; 재난보도준칙 ..... 33</p> <p>&lt;표 3-2&gt; 감염병보도준칙 ..... 35</p> <p>&lt;표 3-3&gt;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ICFJ)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 37</p> <p>&lt;표 3-4&gt; 해외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 39</p> <p>&lt;표 3-5&gt; 재난재해 보도준칙과 취재보도 실무지침 ..... 41</p> <p>&lt;표 3-6&gt; 재난특보용 매뉴얼 ..... 43</p> <p>&lt;표 3-7&gt; 국내 재난보도의 문제점 및 지향점 ..... 46</p> <p>&lt;표 4-1&gt;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방송보도 분석기간 ..... 56</p> <p>&lt;표 4-2&gt; 분석유목과 조직적 정의 ..... 57</p> <p>&lt;표 4-3&gt; 방송사별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따른 재난방송 보도건수 ..... 60</p> <p>&lt;표 4-4&gt;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형식적 프레임 ..... 61</p> <p>&lt;표 4-5&gt; 방송사별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따른 재난방송의 형식적 프레임 ..... 62</p> <p>&lt;표 4-6&gt;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 63</p> <p>&lt;표 4-7&gt; 방송사별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따른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 64</p> <p>&lt;표 4-8&gt;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의료/방역 프레임 ..... 65</p>	<p>&lt;표 4-9&gt;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 ..... 67</p> <p>&lt;표 4-10&gt;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 ..... 68</p> <p>&lt;표 4-11&gt;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논조 ..... 69</p> <p>&lt;표 4-12&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형식적 프레임에 따른 보도 논조 ..... 69</p> <p>&lt;표 4-13&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에 따른 보도 논조 ..... 70</p> <p>&lt;표 4-14&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의료/방역 프레임(다중분류) ..... 70</p> <p>&lt;표 4-15&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다중분류) ..... 71</p> <p>&lt;표 4-16&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다중분류) ..... 72</p> <p>&lt;표 4-17&gt;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 기사유형 ..... 72</p> <p>&lt;표 4-18&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형식적 프레임에 따른 기사유형 ..... 73</p> <p>&lt;표 4-19&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에 따른 기사유형 ..... 73</p> <p>&lt;표 4-20&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에 따른 기사유형 의료방역 프레임(다중분류) ..... 74</p> <p>&lt;표 4-21&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별 기사유형 갈등/불만 프레임(다중분류) ..... 75</p> <p>&lt;표 4-22&gt;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별 기사유형 도덕성 비판 프레임(다중분류) ..... 76</p> <p>&lt;표 4-23&gt; 코로나19 시기별 형식적 프레임 관련 보도내용 기본 특성 ..... 101</p> <p>&lt;표 4-24&gt; 코로나19 시기별 내용적 프레임 관련 보도내용 기본 특성 ..... 122</p> <p>&lt;표 5-1&gt; 전문가 인터뷰 내용 ..... 132</p> <p>&lt;표 5-2&gt; 재난방송 보도 개선 3대 전략방안 ..... 134</p> <p>&lt;표 5-3&gt; 재난방송 내용분석 기준 (모든 재난 공통) ..... 146</p> <p>&lt;표 5-4&gt; 재난방송 내용분석 기준 (재난 유형별) ..... 147</p>
---	---

## 그 립 목 차

<p>[그림 2-1] 재난방송 실시체계 ..... 13</p> <p>[그림 2-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체계도 ..... 14</p> <p>[그림 4-1] 코로나19 발생시기별 재난방송 전체 보도건수 ..... 59</p> <p>[그림 4-2] 코로나19 방송보도: 의료/방역 프레임(N=1476, 다중분류) ..... 65</p> <p>[그림 4-3] 코로나19 방송보도: 갈등/불만 프레임(N=235, 다중분류) ..... 66</p> <p>[그림 4-4] 코로나19 방송보도: 도덕성 비판 프레임(N=204, 다중분류) ..... 67</p> <p>[그림 4-5]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1) ..... 77</p> <p>[그림 4-6]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2) ..... 78</p> <p>[그림 4-7] 코로나19 발생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79</p> <p>[그림 4-8]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0</p> <p>[그림 4-9] 코로나19 확산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1</p> <p>[그림 4-10] 코로나19 확산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2</p> <p>[그림 4-11] 코로나19 확산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3</p> <p>[그림 4-12] 코로나19 대유행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4</p> <p>[그림 4-13]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5</p> <p>[그림 4-14] 코로나19 대유행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6</p> <p>[그림 4-15] 코로나19 재확산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7</p> <p>[그림 4-16] 코로나19 재확산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7</p> <p>[그림 4-17] 코로나19 재확산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8</p> <p>[그림 4-18] 코로나19 안정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89</p> <p>[그림 4-19] 코로나19 안정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0</p> <p>[그림 4-20] 코로나19 안정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0</p> <p>[그림 4-21]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1</p>	<p>[그림 4-22] 코로나19 발생기 MBC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2</p> <p>[그림 4-23]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3</p> <p>[그림 4-24] 코로나19 확산기 KBS1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4</p> <p>[그림 4-25] 코로나19 확산기 MBC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4</p> <p>[그림 4-26] 코로나19 확산기 SBS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5</p> <p>[그림 4-27] 코로나19 대유행기 KBS1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6</p> <p>[그림 4-28]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7</p> <p>[그림 4-29] 코로나19 대유행기 SBS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7</p> <p>[그림 4-30] 코로나19 재확산기 KBS1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8</p> <p>[그림 4-31] 코로나19 재확산기 MBC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99</p> <p>[그림 4-32] 코로나19 재확산기 SBS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0</p> <p>[그림 4-33]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3</p> <p>[그림 4-34] 코로나19 발생기 MBC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4</p> <p>[그림 4-35]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5</p> <p>[그림 4-36] 코로나19 확산기 KBS1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5</p> <p>[그림 4-37] 코로나19 확산기 MBC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6</p> <p>[그림 4-38] 코로나19 확산기 SBS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7</p> <p>[그림 4-39] 코로나19 대유행기 KBS1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8</p> <p>[그림 4-40]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09</p> <p>[그림 4-41] 코로나19 대유행기 SBS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0</p> <p>[그림 4-42] 코로나19 재확산기 KBS1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0</p> <p>[그림 4-43] 코로나19 재확산기 MBC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1</p> <p>[그림 4-44] 코로나19 재확산기 SBS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2</p> <p>[그림 4-45]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3</p> <p>[그림 4-46] 코로나19 확산기 MBC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4</p> <p>[그림 4-47] 코로나19 확산기 SBS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5</p>
--	---

[그림 4-48]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6
[그림 4-49] 코로나19 재확산기 KBS1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7
[그림 4-50]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도덕성 비판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8
[그림 4-51]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도덕성 비판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19
[그림 4-52]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도덕성 비판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20
[그림 4-53] 코로나19 재확산기 SBS의 도덕성 비판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	121
[그림 5-1] 개선방안 도출 프로세스 .....	133
[그림 5-2] 재난방송 보도 점검 및 모니터링 기본 항목 .....	145

## 요 약 문

### 1. 제 목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한 현황과악 및 개선방안 마련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재난방송은 ‘방송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면서 재난방송의 역할과 내용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2020년 코로나19 사태, 2020년 폭우 등의 재난상황에서 방송사들의 능장 대응 및 ‘중계’식 보도, 무질서한 취재경쟁에서 비롯된 선정적 보도와 오보, 그리고 재난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성 보도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재난보도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사, 그 중에서도 방송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난방송의 문제점은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가중시키며, 재난방송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고, 재난방송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방송사의 재난방송 현황과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재난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난방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재난방송을 실행하는 방송사들에게는 어떠한 요청사항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재난방송 과정에서 방송사 간 과잉취재경쟁 및 재난방송 준칙 준수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보도, 늦장 보도, 오보, 사생활 침해 등과 주관방송사의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법·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난방송의 주관·핵심인 방송사들의 사회·자연 재난에 대한 방송현황과 실태, 문제점을 내용분석 방식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대응 매뉴얼 개선과 재난방송사의 대응 매뉴얼 및 자율지침 개선, 관계 법령의 개선 방향 제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재난주관방송사, 지상파방송, 중편, 보도채널들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보도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민과 언론의 단기적 문제 제기에도 대응하는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기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재난방송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개별 방송사에게 맡겨져 있는 재난방송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 이론적, 법·제도적 배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재난방송 관련 논쟁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재난방송 보도의 원칙 및 과정을 검토하고 국내 재난방송 보도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4장에서는 코로나19 방송보도를 사례로 재난방송·보도를 내용분석해 그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국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보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4. 연구내용 및 결과

국내 재난방송의 현실 및 문제점을 진단,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기반으로 신뢰를 담보하는 재난방송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재난방송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들은 재난방송(보도)을 고도화해 신속·정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신뢰를 이끌어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방송과 보도의 일차적 목적은 일반 시청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지역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재난이 수습된 이후의 목적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하는 것에 있다. 속보 경쟁이 아닌 정확성 높은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난 이슈를 마치 일반사건 사고와 같이 일회성의 이벤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리스크로 생각하고 대비하려는 방송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신속성을 앞세우는 경쟁적 환경을 지양하고, 정확성을 우선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의 재난보도 관련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며,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계 및 시민 또는 시청자 활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방송, 지역케이블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시민기자 또는 시청자와의 연계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귀화인, 관광객 등 외국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어방송, 수어방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편성 확대도 필요하다.

방송사는 재난의 종류별로 대처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기존의 매뉴얼 보완),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편성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방송 책임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 및 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솔루션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도 준칙 및 방송매뉴얼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재난방송에 대해 심의와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항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반영해야 한다.

재난방송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제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등이 필요하고 재난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교육의 의무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교육과 훈련은 재난방송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방송사 합동으로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

다.

방송사들은 매뉴얼에 의한 지침 및 준칙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긴급한 재난방송에 대비한 방송사 자체 재난 실시 요령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난방송에 대한 제작지원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와 함께 의무를 부과하여 자율규제를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재난방송의 인적·물적·기술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특히 지역방송사)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재난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재난 시 행동요령, 대피, 예방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채널이나 프로그램, 빅데이터 활용 등 고차원 재난정보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재난방송 거버넌스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재난방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운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재난방송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이를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재난정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극적 화면 반복방송보다 대피방법·장소 등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난정보 제공 민관협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방송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산불 등 지역에 한정된 재난 발생 시, 1차적으로 해당 지역방송(SO 포함)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상파, 종편·보도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UHD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 기술이 실험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생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과 연동된 통합적인 정보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재난방송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재난방송 누락 시 재요청과 과태료를 처분한다.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인력·장비 부족

으로 일부 방송사에 대해서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최근 재난이 일상화되어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강조되면서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요구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누락하더라도 다시 재난방송을 요청하지 못해 해당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은 재난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재난방송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24시간 실시간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적 대응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즉, 재난방송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통해 재난방송 실시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재난방송 누락 시 즉시 재난방송을 재요청하여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며, 재난관련 기관 및 다른 방송사에서 생성된 재난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재조치를 중하게 내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통위 내에 ‘(가칭)재난방송 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재난방송팀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상황실 업무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

재난방송이 국가적 위기(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리 정책 및 조치에 반영되고 상시 공조 협력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 정책당국, 시청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 조직에서 상시적으로 취약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칭)재난방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학계(재난방송 및 방재 분야), 방송업계(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시청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해 평가체계 확립 및 조정, 모니터링 결과 검토, 제재(과태료 부과 등) 및 포상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와 더불어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관심 환기를 위해 시상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자, 방송사는 물론이고 현장 영상을 제공한 시청자를 선별해 시상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결과 공론화, 그리고 백서 발간 작업을 통한 공론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상시 법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여 권위를 부



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주관방송사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KBS는 최근 몇 년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법률적 의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들을 노출하고 있는바, 몇 가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의 주관방송사로서 권한 및 책임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권한으로는 재난관리기관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에 필요한 시스템(재난방송 전용스튜디오, CCTV 설비 등) 구축을 위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행안부 상황실과의 핫라인 개설 지원, 정부·지자체 CCTV 영상정보 공유, 주관기관의 실질정보 우선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주관방송사(KBS)·행안부(상황실)·재난관리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뢰성 높은 재난정보 입수를 지원하여, 상황판단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의무)과 관련해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신설할 수 있다. 재난방송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방송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재난방송에 대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재난방송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한 후 공표하는 책임을 지을 수 있겠다.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난상황 그래픽 표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난별 국민 행동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 및 외국어자막방송 실시 및 과태료 규정 신설, 他방송사에 재난정보 개방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SNS와 적극 제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지원, 관련 법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평소 관계기관 간에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진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일과 후 시간에 근무하는 당직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KBS와 전국의 지역방송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 분사와는 별도로 지역총국 중심의 재난보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KBS 스스로 재난방송과 관련된 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지만 재난방송의 주된 영역이 자연재난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재난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재난방송에 대한 투자 역시 재난정보를 수집하는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 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운영체제인 대응프로세스와 같은 부분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평상시에 재난 관련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실시간 재난상황은 물론 예방·대처·사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난관련 정보를 전용 방송채널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송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국내 재난방송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바, 효율적인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6. 기대효과

방송사들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재난방송의 문제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자사 재난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적인 재난보도 시스템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재난방송에 대한 다양한 학제 학자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SUMMARY

### 1. Title

Analysis on present condition and preparation of remedy plans for fast/accurate disaster broadcasting services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In order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level of disaster broadcasting of domestic broadcasting companies, it is time to accurately investigate and verify how domestic disaster broadcasting is being performed and what its contents ar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to review how to bring the related system, and what requests are required for broadcasters that perform disaster broadcasting.

This study investigates various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among broadcasters in the domestic disaster broadcasting process and lack of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disaster broadcasting, such as sensational and inaccurate reporting, late reporting, misinformation, infringement of privacy, etc. We intend to improve, including the institutional aspect, and build a foundation for efficient disaster broadcasting in the future.

It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and systems of domestic disaster broadcasting, and at the same time suggests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how to socially institutionalize the disaster broadcasting entrusted to individual broadcasting companies for efficient and fast/accurate disaster broadcasting.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For a basic understanding of disaster broadcasting, we analyze the theoretical, leg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and organize disputes related to disaster broadcasting. Review the principles and tasks of reporting on disaster broadcasting, and diagnose the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disaster broadcasting. Using the Corona 19 broadcast report as an example, we analyze the contents of disaster broadcasts and report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depth. It provides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for quick and accurate domestic disaster broadcast reporting.

### 4. Research Results

We propose a plan for establishing a reliable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based on fast and accurate disaster broadcasting as follows.

First, disaster broadcasting must be advanced.

Broadcasters conducting disaster broadcasts must ensure speed and accuracy by upgrading disaster broadcasts (reporting). It is necessary to avoid a competitive environment that prioritizes speed, and to set accuracy as a priority. Broadcasters should prepare manuals to cope with each type of disaster (complementing existing manuals), and regularly conduct disaster broadcast scheduling training. A person in charge of disaster broadcasting (or person in charge) should be designated, and the person in charge of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be always on standby. Disaster broadcasting manuals of central and regional broadcasters should be prepared and education conditions should be checked and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solution journalism,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porting rules and broadcast manual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oster journalists who analyze and suggest alternatives rather than simply conveying facts. Policy incentives for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precede. There may be a way to naturally reinforce self-regulation by imposing obligations with incentives in a way that guarantees production support for disaster broadcasts to a certain degree.

Second, disaster broadcasting governance and system must be establish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for disaster broadcasting. Rationaliz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is required. A disaster information collabo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vulnerable group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strengthen disaster broadcast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constantly monitors disaster broadcasting.

Third,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host broadcaster should be clarified.

The host broadcasting company's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reinforce the position as the leading broadcasting company of disaster broadcasting,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leading broadcasting company of KBS in the law, and clearly assign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the enforcement decree.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by presenting the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directions of domestic disaster broadcasting, and at the same time suggest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n how to socially institutionalize for efficient, fast and accurate disaster broadcasting.

## 6. Expectations

Broadcasters will be able to use i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ir own disaster broadcasting and improve the autonomous disaster reporting system based on the problems of disaster broadcasting presented by this study and the result of the opinions of experts. Academically, it will stimulate the interest of various interdisciplinary scholars in disaster broadcasting and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s of related research.

#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 Chapter 2. Basic understanding of disaster broadcasting

## Chapter 3. Disaster Broadcasting Principles and Tasks

## Chapter 4. Disaster broadcast/report analysis

1. Corona 19 disaster broadcast report frame
2. Corona 19 disaster broadcast reporting tone
3. Corona 19 disaster broadcast article types
4. Analysis of formal frame by period of Corona 19 disaster broadcasting
5.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Corona 19 disaster broadcast by period

## Chapter 5. Disaster Broadcasting Improvement Plan

1. Advancement of disaster broadcasting: Advancement of disaster broadcasting (reporting) of broadcasters,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and strengthening support
2. Disaster broadcasting governance and system establishment: Disaster broadcasting governance establishment, disaster broadcasting monitoring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3. Enhan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host broadcaster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재난방송은 ‘방송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면서 재난방송의 역할과 내용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9년 강원 고성 속초 산불, 2020년 코로나19 사태, 2020년 폭우 등의 재난상황에서 방송사들의 능동 대응 및 ‘중계’식 보도, 무질서한 취재경쟁에서 비롯된 선정적 보도와 오보, 그리고 재난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에 대해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 침해성 보도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재난방송의 목적은 정확한 사태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1항에서는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1항에서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난방송의 목적이 재해나 재난 등의 사태 파악을 통한 신속한 대처와 대비, 인명 및 재산피해 보호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사생활 보호)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보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재난방송은 재난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 관련 취재보도의 법적, 윤리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

며, 재난현장에서의 취재기자들 역시 속도 경쟁에 매몰되어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이 무시되기 일쑤고,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재난방송이 확대 재생산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재난의 발생 직후에 재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송해야 할 법적 주체인 지상파,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들은 초기 대응 미흡, 늦장 보도, 정보의 불충분성, 오보 등 함량 미달의 재난보도로 인해 오히려 재난수습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난에 대해 그 보도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KBS는 2003년부터 재난방송 매뉴얼을 갖추었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재난 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방송할 수 있는 재난방송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대응방식이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강진숙·김정운, 2014).

한편,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관련 언론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발병 시 격리되어 치료해야 하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은 지나친 속도 경쟁 속에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하며 종종 내용이 없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속보로 많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제공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알려진 정보가 없는 신종 감염병과 관련하여 국민은 정부의 발표와 더불어 추가적인 언론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불안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의 위험보도에 관해서, 렌과 그의 동료들(Renn, Burns, Kasperson, Kasperson, & Slovic, 1992)은 언론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거하고 제외하는지에 따라 수용자의 위험인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싱어와 엔드레니(Singer & Endreny, 1993)는 미디어에 의한 위험정보는 특정 종류의 재난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의 위험보도는 수용자의 위험에 대한 판단과 평가, 나아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내 언론에서 전달하는 위험보도는 종종 선정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보도로 변질되어 사회 불안을 부추기며, 해당 산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리가 있다는 지식을 받는다(Hornig, Walters & Templin, 1991; 김중화·유홍식, 2012). 예컨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 언론사들은 초기부터 연일 각종 기사를 보도했으나 뉴스 이용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할 만한 자극적인 표현과 오보가 줄을 이었고,<sup>1)</sup>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집단 발생 국가나 지역에 대해 혐오 표현을 남발하기도 하였다.<sup>2)</sup> 언론이 위기 상황에서 전달하는 정보나 뉴스는 뉴스 이용자의 위협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은 불확실한 정보나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일수록 신중한 자세로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과도한 해석을 하거나 뉴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거나 과장된 보도를 하게 되면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초기부터 대유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병원체에 대해 밝혀진 정보가 적고, 확산 속도가 빠른 위험 이슈일수록 언론은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협적인 질병에 관한 보도는 초기부터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정보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언론은 초기에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와 혐오 표현 등으로 혼란과 불신,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3월 4일 발표한 보고서 <감염병 보도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보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보도’, ‘불

1)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factcheck.snu.ac.kr)에 따르면, 국내 언론사 30곳이 자체 판단에 따라 사실 여부를 따져본 총 230건의 정보 가운데 136건(59%)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 중에서 111건(80%)이 거짓(진혀 사실 아님 61건, 대체로 사실 아님 50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코로나19 관련 미확인 정보들 가운데 언론이 주목했던 10건 중 9·8건은 허위내용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일보, 2020.04.25.).

2) 한국리서치 조사(1차 조사: 2020.01.31.-02.04, 2차 조사: 2020.02.25.-02.28)에 따르면, 각종 뉴스와 뉴스레터, SNS 등에 대한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에는 ‘중국인 포비아’ 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중국인과 중국동포,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 등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하였고, 2020년 2월 18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중국인’, ‘중국’, ‘우한’ 등 중국을 타겟으로 한 콘텐츠가 많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서치, 2020)

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및 혐오 확산’ 등이 지적되었다(김여라, 2020).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감염병보도준칙’에는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있어 언론인도 다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신종 감염병 보도에 있어 팩트 체크(fact check)와 교차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나 통계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추측하거나 과장하는 보도를 일삼고, 혐오 표현을 확산시키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재난보도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사, 그 중에서도 방송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재해는 사전에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난방송의 문제점은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재난방송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고, 재난방송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국내 방송사의 재난방송의 현황과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국내 재난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재난방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재난방송을 실행하는 방송사들에게는 어떠한 요청사항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 제2절 연구목표

현재 국내 재난방송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결과적으로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의 미비, 재난방송 사업자의 대응 매뉴얼 부실, 재난방송 준칙 등에 대한 재난방송 담당자의 사전 교육 부족, 재난 관계 부처들의 시기적절한 대응 미흡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와 규모도 광범위하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재난방송 체계로는 재난방송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역할과 책임의 다하기에는 상당히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재난방송 과정에서 방송사 간 과잉취재경쟁 및 재난방송 준칙 준수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보도, 늦장 보도, 오보, 사생활 침해 등과 주관방송사의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법적·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난방송의 주관 핵심인 방송사들의 사회·자연 재난에 대한 방송현황과 실태, 문제점을 내용분석 방식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대응 매뉴얼 개선과 재난방송 실시 방송사의 대응 매뉴얼 및 자유티칭 개선, 관계 법령의 개선 방향 제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재난주관방송사,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채널들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보도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민과 언론의 단기적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기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재난방송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개별 방송사에게 맡겨져 있는 재난방송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재난방송에 대한 기본 이해

### 제1절 재난과 방송

#### 1. 주요 개념과 법적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에서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자연재난(재해)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일상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1차적 목적), 재난의 예측과 통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방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은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발생하지도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도 한다(2차적 목적). 이것이 재난방송의 가장 큰 가치이자 목적인 셈이다. 즉, 재난방송의 가장 큰 가치이자 목적은 재난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통해 재난 초기에 국민의 상황 파악과 사고 대처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방송은 방송을 통해 각종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국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3) 또한, 재난방송 실시는 국민들에게 재난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예상되는 위협과 대처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에게 재난 및 사태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 위협성의 반복 보도를 통해 새로운 재난의 발생을 막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한다.
- 재난 및 사태에 대비한 예방법과 재난 시 대피요령 등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방송 의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을 최대화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제공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필수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 형태로 재난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재난방송은 그 특성상 일정한 준수조건이 부여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3항). 즉, 재난방송은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인터뷰 강요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 인터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송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수행해야 한다.

재난방송의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난 사태의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민방위 경보(훈련 제외)의 발령(「민방위기본법」 제 33조), 그 밖에

3) 재난상황 발생 전 평시 편성하는 자연재해예방캠페인이나 수재민돕기 방송은 재난방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프로그램 제작자와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비판 및 논쟁

재난방송의 법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재난방송과 관련된 논란은 2016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해 K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능력 대응이 사회적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우선 경주 지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에 따르면,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의무적으로 화면 상단에 정지 자막으로 지진 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10분마다 지진 발생을 경고음으로 알리고, 화면 하단에는 흘림 자막으로 지진 발생 사실을 내보내며,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계속 특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경주 지진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표 2-1〉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지진 당시 재난방송 현황

매뉴얼상 지침사항	KBS1		KBS2		MBC		SBS	
	전진 (05.01)	본진 (05.08)	전진 (05.01)	본진 (05.08)	전진 (05.01)	본진 (05.08)	전진 (05.01)	본진 (05.08)
정지자막 (자막유지)	○ (8분)	○ (7분)	○ (18초)	○ (10초)	X	X	X	X
화면상단 정지자막	X	X	X	X	X	X	X	X
10분당 경고음	X	X	X	X	X	X	X	X
홀림자막	X	X	X	X	X	X	X	○
뉴스특보 전환(유지)	○ (3분)	○ (3분)	X	X	X	△* (3분)	X	X
비고					8시부터 정규뉴스		8시부터 정규뉴스	

\* 정규 뉴스 클로징멘트에서 3분간 특보형식 보도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016.09.27). 기획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부실.

고성·속초 대규모 산불의 경우, JTBC를 제외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들은 재난 특보를 늦게 방송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비해 로컬 프랜차이즈 형태의 케이블 SO 사업을 운영하는 CJ헬로는 지상파방송에 비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지역채널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속보자막을 내보내고, 특보체제로 전환해 3일간 46시간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피요령과 향후 대책을 전달하기도 하였다.4) 이처럼 재난방송은 단순히 재난 발생 정보만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추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대피나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 국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CJ헬로의 재난

4) CJ헬로는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재난소식을 빠르게 전달함은 물론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24개 지역방송국(SO)에 마련된 사회공헌캠프를 기반으로 구호, 복구, 모금활동 등 후속 조치까지 진행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민간기업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방송은 케이블방송 지역채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례에 해당된다.

〈표 2-2〉 CJ 헬로의 강원도 대형 산불 대대과정

	내용
사건개요	· 2019년 4월 4일 고성·속초·강릉 지역 대규모 산불 발생 · 산림 약 1,757ha, 주택 609채,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소실 · 인명피해: 사망 2명, 부상자 10명, 주민 4천여 명 긴급대피 · 2019년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
재난방송 (과정/대응)	· CJ헬로 강원미디어국 가장 빠르게 뉴스특보 방송 · 화재발생 4일~5일 연속 30시간, 6일까지 총 46시간 재난방송 보도 ·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현장 소식 동시 전달 · 주불 진화, 피해면적 및 가구, 지원대책 등 시시각각 상황 전달
재난대비 (예방)	· CJ헬로 2014년 4월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재난, 재해 발생 직후 대응방식, 산불/지진/화재/태풍/홍수 등 상황별 특보 가이드, 전국통합뉴스시스템, 재난상황 시 주요 사회공헌활동 등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 · 지역 네트워크 활용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지역단위 현장구호/모금 활동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에 대한 한계는 2020년 7월에 다시 반복된다. 당시 부산에서 태풍에 의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재난방송, 특히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과 내용에 대한 불만이 촉발, 확산되었다. 불만의 핵심은 재난 예방방송, 특보, 자막/스크롤 속보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의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예정된 정규방송을 실시하였고, 이후 재난방송을 실시하면서 대피/구조/복구에 필요한 정보나 재난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정보보다는 재난 상황의 (신속/정확한) 중계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 부산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표 2-3> 재난방송 비판사례

	방송사	비판
경주 지진 (2016.09.12.)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특보를 끝으로 이후 정규뉴스 시간까지 정규방송 진행</li> <li>· 단순 지진발생 정보 전달</li> <li>· 구체적인 행동지침 안내 없이 기상청/소방본부 선인적 코멘트만 제공</li> <li>· 재난 취약계층(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의무 소홀</li> <li>· 3차례 뉴스특보/메인뉴스에서 기본 자막(정지자막, 홀립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미 제공</li> </ul>
강원도 일대 대형 산불 (2019.04.04.)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양미달의 재난 보도</li> <li>· 초기 대응 미흡과 늦장 대응</li> <li>· 재난상황에도 정규편성 프로그램 계속 방송</li> <li>· (자막으로 재난상황 전달) 안이한 태도</li> </ul>
	KBS MBC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늦장 특보</li> <li>· 뒤늦게 시작한 특보마저 함양미달/내용 부실</li> <li>· 이미 알려진 화재원인/피해상황 반복 전달</li> <li>·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li> </ul>
	MBC Y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초 가스충전소 폭발 오보(이후 정정)</li> <li>· 기자 “여기에 화약 창고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발언</li> </ul>
	지상파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경보음 송출 확인되지 않음</li> <li>·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 미실시</li> <li>·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하지 않음</li> </ul>
부산울산경 남 폭우 (2020.07.23~ 24)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지방재난방송에 소홀</li> <li>· 주요시설 침수소식 등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던 시기 (2020.07.24. 0시 10분)에 전국적 특보체제로 곧바로 전환하지 않고 음악프로그램 &lt;울렷뮤직&gt;을 편성·방영하여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했음(당일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방영)</li> <li>· 폭우로 부산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상세한 소식과 추이가 뉴스를 통해 뒤늦게 보도됨</li> </ul>

\* 경주지진 당시 오히려 JTBC 등 민방과 종편이 재난방송 역할을 수행함. 2차지진 발생 후 바로 특보체제로 전환하였고, 뉴스 후반부를 모두 지진관련 보도로 진행하였으며, 제보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진상황을 전파(시민/전문가 인터뷰 내용 제공)

2020년 2월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재난방송에 대한 비판은 다시 제기된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집단 발병 이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자극적인 헤드라인 속보와 과장된 내용으로 매체 및 방송사 간의 시선 끌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국

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 상황에서 재난방송은 정확한 정보로 국민이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속보나 단독보도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거나 경마식 중계 보도와 자극적 헤드라인을 구성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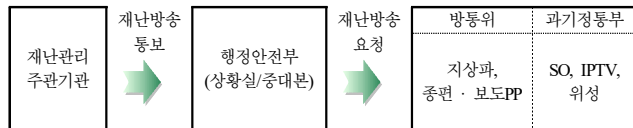
## 제2절 국내 재난방송 체계

### 1. 재난방송 실시체계

국내 재난방송은 ‘주관기관→행안부→방통위·과기정통부→방송사’로 이어지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요청된다. 2006년 방송위원회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재난방송 요청을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해 구축,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유지·운영하고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 전파된다. 주관기관(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행안부에 재난상황을 통보하면, 행안부는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한다. 행안부의 요청문은 방통위·과기정통부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EDBS)을 거쳐 161개 의무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전달된다.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이 가능하다. 지진, 해일 발생 시 10개 주요방송사(6)는 방송사의 별도 자막작업 없이 확인버튼만 눌러 바로 TV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 시스템이 연동 중이다.

[그림 2-1] 재난방송 실시체계



※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총 161개) : 지상파(TV, 라디오), 종편·보도PP 등 66개(방통위)  
SO, IPTV, 위성방송 등 95개(과기정통부)

5) 지상파, 종편·보도PP 66개, SO·위성·IPTV 95개

6) KBS, MBC, SBS, EBS, MBC, JTBC,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YTN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그리고 시·도(강원도청, 경북도청, 대구시) 및 각 지역 방송사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실제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요청된 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통위·과기정통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2-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체계도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재난발생 시 행정안전부, 기상청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면 방송사에게 실시간으로 요청문이 자동 전송되어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지진, 지진해일, 호우경보, 대설경보, 사회적 재난 등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자막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10개 주요방송사업자) KBS, MBC, SBS, EBS, MBC, JTBC,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YTN

즉, 재난방송 의무방송사는 재난방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부요청에 따라서도 실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2006년에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해 정부기관 및 방송사들이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방송사는 방통위 매뉴얼을 반영,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운영

중이다.

재난방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으로, 자막, 정보, 특보(정규방송 중단) 등 3가지 유형의 재난방송으로 구분된다.

<표 2-4> 재난방송 유형

구분	내용	근거
자막방송	재난발생시간·재난명칭·발생지역·행동요령·경보발령기관을 명시하여 방송사에 요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실시기준」 제4조제3항
정보방송	지상파, 종편·보도PP는 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할 경우 재난경보음 송출	기준 제4조제5항
특보방송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는 재난 특보 실시	방송사 매뉴얼에 따른 자체 판단

※ 라디오의 경우, 지진·해일·풍수해 등 발생 시 음성안내(의무), 뉴스보도 또는 특보(자율)의 형태로 재난방송을 실시(방통위 매뉴얼)

## 2. 재난방송 실시 주체

재난방송 실시 주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방송사업자,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총6개 방송사를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의 요청과 관계없이 재난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방송사업자는 재난 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송해야 할 법적 주체로서 그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다 하겠다. 다음 <표2-5>는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들이다.

<표 2-5>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 (방통위 소관 : 66개 방송사업자)

구분	세부 내역	소계
지상파	KBS, MBC, 16개 지역 MBC, SBS, EBS, 9개 민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울산, 강원, 제주)	29개 (TV, 라디오)
	OBS(경인TV)	1개 (TV 단독)
	경인방송(Sunny FM), 기독교, 불교, 평화, 원음, 극동방송,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tbs, tbs-eFM), 국제방송교류재단(제주영어FM,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와이티엔라디오	13개 (라디오 단독)
DMB	KBS(단일), MBC, SBS, YTNDMB, 한국DMB, 춘천MBC, G1, 대전MBC, 대전방송, 안동MBC, 대구방송, 부산MBC, KNN, 광주MBC, 광주방송, 제주MBC, 제주방송	17개
종합편성 PP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
보도 PP	YTN, 연합뉴스TV	2개
합 계		66개

한편, 상시적인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는 아니나 재난방송주관관리기관의 요청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들이 있다.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 시 재난방송 의무방송사로 전환된다. 다음 <표 2-6>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사업자들이다.

<표 2-6> 재난방송사업자 현황 (161개, '20. 12월 기준)

지상파	지상파DMB	종편·보도PP	SO	위성	IPTV
43	17	6	91	1	3

\* 라디오PP, 데이터PP는 제외

\* SO, 위성, IPTV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권한과 책임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

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주요 권한은 우선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해, 재난과 연관된 주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재난 등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도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효율적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그 운용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여타 방송사업자는 주관방송사의 공동취재단 구성 및 운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주관방송사는 먼저 재난 등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등의 수습과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재난방송 등에 반영해야하고, 공동취재단이 제작한 자료를 다른 방송사업자가 동시에 또는 녹음, 녹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방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방송에 힘써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해서는 안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

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3항).

-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 해당 재난 등의 명칭
-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또한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5항).

-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한편, 재난방송 등의 단계와 관련하여 재난방송의 실시는 자연재해의 경우 그 재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한다. 지진을 제외한 재해 내용이 급박하지 않은 1단계의 재난방송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풍수해 2단계, 지진 2단계, 지진해일 규모 6.0 이상의 해저 지진 발생 시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하나, 예외적으로 재난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의 진행 상황이 매우 급박할 경우에는 1단계에서도 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표 2-7> 재난방송 실시 단계

단계	기상 상황	기타
제1단계	기상 예비특보 및 기상주의보 발표	방송사 자율 (지진의 경우 재난방송 실시)
제2단계	홍수, 태풍, 지진해일주의보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요청
제3단계	기상경보, 지진해일경보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제4단계	4개 이상의 방송권역에 기상특보 발표, 그 중 3개 이상 방송권역에 기상경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방송권역에 홍수·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요청
	기상상황이 호전되어 기상·홍수·태풍경보 해제 및 주의보 발표 시 : 2차 재난 경계단계	
재난방송 종료	기상특보 해제	방송사 자율 실시

\* 재난방송은 기상청,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요청문에 따라 시행.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20).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

<표 2-8>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 기준(20.12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기준)

명 칭		현행		개정안		통보기관	재난방송 요청기관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태 풍	주의보		○		○	기상청	행안부
	경 보		○		○		
호 우	주의보	○		○		홍수통제소	
	경 보		○		○		
홍 수	주의보		○		○	기상청	
	경 보		○		○		
대 설	주의보	○		○		기상청	
	경 보		○		○		
폭풍해일	주의보	○		○		기상청	
	경 보		○		○		
지진해일	주의보		○		○	기상청	
	경 보		○		○		
지 진	조기경보		○		○	기상청	
	속 보		○		○		
	경 보		○		○		
화산재	경보(재통보)	○		○		기상청	
	주의보		○		○		
	경보	○		○			

기상 긴급							
한 파	주의보	○		○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 보		○		○		
강 풍	주의보	○		○			
	경 보		○		○		
풍 랑	주의보	○		○			
	경 보		○		○		
건 조	주의보	○		○			
	경 보		○		○		
폭 염	주의보	○		○			
	경 보		○		○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관심, 주의	○		○			
	경계, 심각		○		○		
통신재난	관심, 주의	○		○			
	경계, 심각		○		○		
원자력안전사고	심각(정색,적색)		○		○	원안위	
	산 불	경계~			○	산림청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경계~				○	환경부	
	대규모 수질오염	경계~			○	해수부	
대규모 해양오염	경계~			○			
댐붕괴	주의~				○	(환경부산업부)	
지하철 대형사고	경계~				○	국토부	
고속철도 대형사고	경계~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심각				○	소방청	
	해양선박사고	경계~			○	해수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주의~				○	고용부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경계~				○	국토부	
	해양유도선 수난사고	경계~			○		해양경찰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심)				○	환경부	
	감염병	경계~			○	보건복지부	
기타 재난	사회적이슈 재난		○*		○*	질병관리청	
	민방위경보		○		○	해당부처	
			○		○	공군	

\* (대형 재난) 재난관리주관기관 + 행안부(대응부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협의, (그 외 재난) 재난관리주관기관 + 행안부(대응부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방통위 등 협의 → 재난방송 요청(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20).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

재난방송 방송시간은 편성비율의 계산에 산입(算入)되지 않는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8조제6항). 각 방송사는 재난 방송 실시 후에 그 결과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24시간 이내에 입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결과를 근거로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황 종료 후 재난방송 제2단계부터 4단계까지 재난방송 실시 결과를 양적·질적으로 평

가한다. 평가 결과는 방송평가 및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재난방송 관련 각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해야 하는바, 방송통신위원회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는 재난방송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정부 측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기상청이 포함되며, 방송사 측은 KBS, MBC, SBS, EBS, MBN, JTBC,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YTN 등이다.

### 제3절 재난방송 관련 평가

#### 1.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포항 지진 및 고성 산불 등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그리고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을 겪으면서 방송사들은 재난방송의 경험을 축적했다. 그 결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보도하고, 보도 준칙이 요구되는 피해자 보호 및 정확한 방송 등을 통해 이전의 재난방송과 비교해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에 최단 시간 내 취재진을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취재하며, 재난대응 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재난 관련 정보, 통계수치 등을 다양한 그래픽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된 부분이며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정보들에 가상, 증강현실을 접목하는 등 최신 테크놀로지를 재난방송에 대한 적용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방송사는 여전히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보도를 하고 있고,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패닉, 봉쇄’ 등 공포를 유발하는 단어와 수식어를 사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기도 한다. 초기 방송보도에는 일부 개인의 이동 동선을 그대로 노출한다거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었다.

속보 경쟁에 치우치다보니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보도가 방송되기도 한다. 소위 ‘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은 방송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관찰되는 관행이다. 유튜브를 포함한 SNS 등 스크리닝 시스템이 열악한 플랫폼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 재전달하는 사례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이 대비하고 유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방송해야 하는데, 재난 발생에 대한 규모나 중계식 보도로 정작 중요한 대비책 등의 전달에는 소홀하다.

재난 발생 시 재난 속보와 관련 정보는 기계적으로 제공 가능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이나 대응 방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거나, 재

난 발생 이후의 복구 상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정보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재난 보도가 사건사고 보도와 유사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주기적이며 품질 높은 재난방송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청각장애인, 어린이, 노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방송 소외계층의 재난방송 접근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 전국방송 중심으로 재난방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재난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미흡하다. 특히,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잘 나타났다.

방송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재난방송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및 훈련 등 기본적인 소양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에 인력 부족 등이 겹쳐 능동대응을 하거나 매뉴얼 부실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

뉴스 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도입해 재난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역량을 강화한 점은 진일보한 재난방송으로 평가되나, 모든 재난에 상시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재난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취재행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화재 현장에서 취재진이 위험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장면이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재난현장에서 취재진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방송사 데스크에서 의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에 대한 평가

재난방송 시작 초기에는 방송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재난방송 요청 통보문을 수신하고 재난방송을 개시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고, 재난방송 편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기술적·인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정부는 2020년 재난방송 요청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였으며,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재난방송 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의 기본 틀이 확립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령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재난보도는 「방송통신기본법」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비해서 부처이거주나 책임 전가를 방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난방송에 대한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있는 점은 문제다.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 DMB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도 감독을 하고, SO나 위성, IPTV는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법적인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미흡한 상황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재난방송은 단순히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에 FM 라디오 활용, UHD 기술을 이용한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며,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터널 내 중계기 설치 미흡이나 불량 등으로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부족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방송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방통위는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재난방송 누락 시 재요청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인력·장비 부족으로 일부 방송사에 대해서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재난이 일상화되어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강조되면서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요구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누락하더라도 다시 재난방송을 요청하지 못해 해당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은 재난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표 2-9〉 재난방송 요청 및 미실시에 따른 제재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의무	자율	계	의무	자율	계	의무	자율	계
요청(건)	277	540	817	390	285	675	305	301	606
제재(건)	92	-	92	4	-	4	12	-	12
위반 사업자	지상파3사, JTBC 등 15개사			MBC, CBS 등 4개사			제주MBC, KNN 등 10개사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으로는 재난방송 모니터링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 규정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는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심의에 관한 조항으로, 재난에는 자연재해,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 민방위 사태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난 등에 대하여 방송을 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회재난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의 위반으로 심의받은 사례는 총 4건으로, 강원도 산불 1건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3건이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2020년 2월 19일). 재난과 관련한 방송 보도 심의의 경우, 이 조항 외에 공정성, 객관성, 권리 침해 등의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 발생했던 메르스 감염병과 관련한 방송심의회는 총 3건이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sup>7)</sup> 객관성에 대한 위반으로 각각 의견제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중 경고를 받은 방송은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의 사망을 속보로 전달한 것이 사

7)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부정확한 속보 경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한편, 현재 국내 재난방송은 KBS가 주관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과 고시에서는 KBS를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현재의 법령으로는 재난 발생 시 KBS가 주관방송사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며 재난방송 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강제력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관방송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 제3장 재난방송 보도의 원칙 및 과제

### 제1절 개념 등 기본 맥락 검토

#### 1. 미디어와 위험 보도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발달은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권(information access)을 확대, 강화시킴으로써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된 현대사회에서 일반 대중은 위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수밖에 없는데, 이때 미디어의 위험정보 제공은 일반 대중이 위험을 회피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일반 대중에게 특정 위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은 우리사회에서 위험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위험과 관련, 미디어의 위험보도 태도는 종종 많은 논란과 비판에 직면한다. 미디어는 위험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하거나 그 위험 정도에 대한 과장 또는 축소를 통해 중요한 뉴스거리(Gregory & Miller, 1998)로 포장,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는 위험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전달하지 못하고,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정확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추정 등의 문제를 내포하며, 자칫 일반 대중에게 위험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에 한국사회를 강타한 신종인플루엔자(H1N1, 이하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감염병 사례들은 미디어의 보도 대부분이 불안과 공포라는 틀 속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감염병 보도내용 대부분이 사망자나 고위험군, 위기, 비상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여 경각심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였고, 국민을 무력감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미디어가 그려낸 위험한 현실이 대중의 위험인식 형성(Gellert, Higgins, Lowery, & Maxwell, 1994)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런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경우에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과학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례는 미디어가 위험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진단이 위험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가 특정 위험을 보도할 때, 해당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고 보도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일종의 사회정보시스템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일상의 숨겨있는 위험이나 예측되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위험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위험분야에서 미디어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주체자이면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위험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위험정보에 대해 일반 대중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구성하고 정확한 내용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구성하여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위험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은 위험의 정의나 인식, 해결에 걸친 전 과정이 해당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결정되고, 구성원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nn, 1992).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는 위험정보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Otway & Wynne, 1989), 위험정보 소통은 정부(행위자이면서 관리자), 전문가, 일반시민, 미디어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미디어는 각각의 행위자들이나 행위주체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통 등의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더욱이 미디어는 대중들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험정보 매개자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위험정보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는가에 따라 일반 대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일반대중에게 위험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보도나 메시지를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 전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위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위험예방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 2. 미디어 위험 보도의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

미디어는 특정 위험과 관련된 일반 대중의 위험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디어가 특정 위험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일반 대중의 위험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nyder & Rouse, 1995). 일반 대중은 위험을 해석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위험을 인식하기보다는 주관적 경험, 즉 직접적인 경험이나 개인 또는 미디어와 같은 특정 매개를 통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는 특성을 보인다(Singer & Endreny, 2003).

이에 따라 미디어가 위험을 보도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 해설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제목이나 사건 또는 사고, 갈등 중심의 보도를 통해 일반인의 공포심을 증폭시키거나 위험발생의 원인을 불법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위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미디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즉, 미디어의 위험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illis & Okunade, 1997). 특정 위험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에 있어서 초기 사실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은 물론 일반 대중들이 상황을 파악, 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이나 그 영향에 대해 파악,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 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미디어가 특정 위험상황을 보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써, 어떤 위험이나 위기상황에서 미디어가 가져야 할 조정과 환경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조정과 환경 감시기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위험보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위험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이 해당 위험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더욱이 신종플루나 메르스, 슈퍼박테리아, 코로나19 등과 같이 새로운 감염병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때

문에 미디어 위험정보 구성요건은 미디어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미디어의 의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미디어의 메시지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위험연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공중은 위험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설사 위험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중은 특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다.

특정 위험상황과 미디어의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특정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자신이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위험이며, 잠재적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모를 경우에 미디어에 의존하는 정도가 보다 높아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공중은 위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정보소통체계, 즉 미디어를 통해 위험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미디어는 간혹 위험사건을 드라마틱한 기사거리로 인식하여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부각시켜 그 사회 내에서 위험을 증폭시키기도 한다(송해룡, 김찬원, 김원재, 2013; Kasperson, Jhaveri, & Kasperson, 2001). 미디어의 특정 위험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은 공중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증폭시켜 기술적 안전성과는 상관없이 특정 위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미디어에 의해 유발된 공포나 두려움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가 위험을 규정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Slovic, 2000).

## 제2절 재난방송 보도준칙 등 자율규제 활동

### 1. 재난방송 보도 관련 법적 기준

재난방송의 목적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국민들에게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재난방송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과 재난방송 준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상황 시 지나치게 취재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정작 정확한 보도나 피해자 중심의 보도 등 재난방송 보도의 중요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방송 매뉴얼 또한 재난방송의 중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현장취재의 윤리적,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의 재난 관련 연구들은 그동안 진행된 국내 재난방송 보도 태도가 상당히 선정적이고, 의혹 제기나 치증하거나, 불분명한 취재원에 의존해 검증되지 못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3항에는 방송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준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더불어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한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에서는 사생활 보호 이슈를 강조하고 있는데,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천명한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와 인터뷰 시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취재질서 유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국내 재난보도준칙 및 해의 사례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의 언론단체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재난발생 시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 방지 및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하고자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했다(2014. 9. 16 시행).

이 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재난보도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보도, 예방 정보 제공,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유언비어 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등의 일반 준칙과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각 언론사는 필요한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3-1〉 재난보도준칙

구분	조항	내용
일반 준칙	제3조	언론은 재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4조	현장 취재시 인명구조·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6조	언론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한 정보도 전달해야 한다.
	제7조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제8조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인문사는 가급적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10조	속보 경쟁에 치우쳐 정확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중요한 정보 관련 보도는 재난관리당국 등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제12조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재난발생시 급박한 취재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취재원의 전문성은 충분하며, 믿을 만한가? ② 취재원이 고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③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가? ④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⑤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나 자료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제13조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 및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일반 준칙	제14조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자극적인 장편의 단순 반복 보도, 지나친 근접취재는 지양한다.
	제16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추종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하며 반론 보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18조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인권 보호	제19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20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21조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취재진의 안전 확보	제22조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제23조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제24조	인문사와 취재진은 취재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5조	인문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제26조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현장취재 협의체 운영	제27조	인문사는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각 언론사는 협력이 필요할 경우 ‘취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사전에 이 준칙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취재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준칙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취재협의체는 재난관리당국에 취재 관련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취재협의체는 재난관리 당국이 취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경우 개선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취재협의체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받을 경우, 과도한 취재인원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조작업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논의를 거쳐 대표 취재를 할 수 있다.
인문사의 의무	제32조	취재협의체는 취재초기 취재진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활용품, 숙박, 이동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관계당국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33조	취재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취재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4조	자원준비와 교육(교재 비치, 사전교육)
	제35조	교육 참여 독려
	제36조	사후 모니터링
	제37조	인문사는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제38조	인문사별 준칙 제정
	제39조	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계
제40조	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제41조	자율심의	
제42조	사후 조치(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계제 조치)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기자협회는 긴급하게 「코로나19 보도준칙」을 배포하였다. 코로나19 취재 및 보도 시 기자의 안전 유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정서를 배제하기 위해 감염병의 공식 명칭 사용, 허위조작정보의 차단과 인권침해 및 혐오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적 보도 자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전문>에 따르면, 방송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3-2> 감염병 보도준칙

구분	내용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 수, 의심환자 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 중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보도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전과력 메르스 ‘1000배’ … 홍콩독감 유행 뎀 대재앙”

또한, 감염병을 보도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그 기본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 참여 등

재난방송과 재난방송 보도준칙 준수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 재난방송 준칙 준수의 미흡은 재난방송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기자·PD 등 재난방송 관계자들이 과연 재난방송 준칙을 이해하고 체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도 준칙 준수에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은 재난방송 보도 준칙의 교육 의무나 준칙을 재난방송 관계자들이 미 이행할

경우 법제도적인 이행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데 있다. 법·제도적 이행방안의 미흡은 연쇄적으로 재난방송 관계자들의 준칙 준수에 대한 자발적 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재난방송 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사업자들의 재난방송 실시여부나 재난방송 준칙 위반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 보도 내용물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사후 심사를 하고 있으나, 그 제재수준이 낮아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해외의 재난보도준칙을 살펴보면, 비영리 공익단체인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의 재난보도준칙에서도 재난방송이 재난대처방안이나 안전수칙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청자가 재난의 양과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해 정밀 보도해야 하며 대피방법과 예방법, 비상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영국 공영방송사 BBC는 제작가이드라인 제7절 4조 38항 ‘죽음,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도 준칙’에서 재난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취재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놨다.

“사건, 재난, 소요, 개인에 대한 폭력이나 전쟁을 보도할 때, 정확한 보도를 통해 공익과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부당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할 때는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생방송이나 속보 영상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것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표 3-3>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ICFJ)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취재단계	<p>① 가능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것이 밝혀졌고, 어떤 것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현장목격자의 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오보도 부정확한 정보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p> <p>② 추측성 보도를 금해야 한다. 모든 기사와 정보는 출처를 명기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여야 한다.</p>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사후단계	<p>③ 복수의 소스(source)를 사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정부라는 단일 소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나 업계관계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더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p> <p>④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지나친 단순화나 축약을 삼가야 한다.</p> <p>⑤ 주의 깊은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잘 작성된 질문은 관계자의 답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p> <p>⑥ 지도를 제공하라 시청자나 일반인이 재난의 양과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각적인 정보는 효과적이다.</p> <p>⑦ 모든 미디어를 활용하라 정보를 온라인에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 이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p>
	<p>① 관련 서류 및 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 재난이나 사고의 초기 몇 시간 동안은 업데이트된 뉴스가 중요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재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에 대한 공문서나 기록을 찾아야 한다.</p> <p>② 전문가와 협의하라 건물붕괴의 경우 건설건축 전문가와 교육문제의 경우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은 유용하다.</p> <p>③ 스토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추적해야 한다. 피해정도나 물적 손해 등 사고의 진전에 따른 변화를 업데이트해야 한다.</p> <p>④ 재난방지 대책과 예방 등에 대해 정밀보도를 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재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왔는지, 유사한 과거의 재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p> <p>⑤ 재난의 패턴을 조사하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정밀히 조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시설이나 부분은 더 많이 또는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과 제시가 가능하다</p> <p>⑥ 향후 예방과 미래의 준비사항에 대해 보도하라 유사한 재난발생 시 대피방법과 예방법, 비상전화번호 등에 대해 안내한다.</p>

자료: 유승관(2014). 외국의 재난보도 기준 및 보도사례. FOCUS ON MEDIA 131, 18-27.

영국 공영방송사 BBC는 제작가이드라인 제7절 4조 38항 ‘죽음,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도 준칙'에서 재난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취재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재난, 소요, 개인에 대한 폭력이나 전쟁을 보도할 때, 정확한 보도를 통해 공익과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부당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할 때는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생방송이나 속보 영상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것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해외 뉴스통신사의 취재보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살펴본 결과, 로이터통신의 경우 재난으로 피해 입은 생존자 우선, 정확성, 과도한 표현, 진정함 보도 방향, 취재기자의 겸손, 희생자의 입장, 사전예방이나 안전교육을 중시하는 취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P통신의 경우도 취재기자의 사전 준비, 신속한 보도 준비, 취재원의 초상권 보호, 취재 시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4> 해외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	<p>&lt;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gt;를 인용하여 기자 교육에 적용</p> <p>① 항상 희생자들을 기자 스스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질지 원하든지와 같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 생존자들에게도 다가설 때와 물러설 때를 감각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p> <p>②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정확해야 한다. 희생자와 희생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사실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p> <p>③ 피로 얼룩진 이미지와 같이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이나 기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이러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는 일반 독자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부작용을 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이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나 독자나 일반수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p> <p>④ 일반 대중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어느 정도의 취재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부단히 기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p>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p>⑤ 재난현장에서의 어떠한 심한 반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면 안 된다.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p> <p>⑥ 비탄에 잠겨 있는 사람의 감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취재나 촬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의 슬픔을 방해하거나 사적인 장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p> <p>⑦ 기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파견이나 취재현장에 나서기 전에 사전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책임자나 테스크는 특히 젊고 경험이 부족한 기자나 사진기자를 위험한 현장에 파견할 때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p>
AF통신	<p>매뉴얼화된 재난보도준칙은 없으나 일반적인 보도준칙을 인용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함</p> <p>①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국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재난지역으로 파견한다. 단, 파견되는 기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보호장비(약, 비상식량 등)를 챙겨서 출장길에 오른다. 각 지역 테스크는 각 지국의 인원 이동에 대해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p> <p>② 재난 발생 지역에 도착하면 본사나 허브지국에서 파견된 팀장과 매니저를 중심으로 재난 지역 파악에 나선다. 이때 기자들이 나가서 취재하고 본 것들은 기사화되면서 동시에 다음 취재를 위한 정보가 된다.</p> <p>③ 재난 지역 출장이 예상되는 기자들은 미리 파상풍 등 예방 조치를 한다(파상풍은 5년 유효).</p> <p>④ 단독행동을 하지 않으며 침수 지역이나 지역경찰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출입을 삼가야 한다(분쟁지역에서는 지역 안전담당자의 허락이 있어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p> <p>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임시로 고용하여 그 지역에 대해 모르는 기자들을 돕도록 한다.</p> <p>⑥ 취재기자가 보려는 모든 기사나 영상은 현장 테스크가 허브지국이나 본사와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송출장비는 가까운 지국에 있던 위성 송출장비나 인터넷 장비(재난지역에서는 힘들), 위성전화 등을 이용한다.</p> <p>⑦ 보도준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을 기사화하려면 최소 3곳 이상에서 확인하여야 한다.</p> <p>⑧ 재난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을 때는 상대의 허락을 얻도록 하며 취재원이 죄수들이라 할지라도 16세 이하는 얼굴을 찍지 못한다. 이때는 손, 발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p> <p>⑨ 만일 이미 송고한 기사나 영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실시간 수정을 할 때는 기사 중 잘못된 부분과 편집자 주에 그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수정된 것은 반드시 정정인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p> <p>⑩ 이미 잘못 보내진 기사나 영상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사용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프는 Fix 로고나 Bug를 붙여서 원래의</p>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정보가 수정되었음을 알리고 사진은 새로운 캡션을 사용한 사진으로 대체한다. 비디오는 자막이나 영상목록을 수정하여 방송사에 다시 보낸다.
⑪	인터뷰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자료는 출처를 밝힌다. 찬반이 있는 상황이라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있게 담으려고 노력한다.

자료: 유승관(2014). 외국의 재난 보도 기준 및 보도 사례. FOCUS ON MEDIA 131, 18-27.

한편, 서울에 있는 주요 각국의 뉴스통신사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난 보도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총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결과와 로이터통신 및 AP통신의 재난재해 보도준칙을 종합하여 제시된 재난재해 보도준칙과 취재보도 실무지침<sup>8)</sup>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재난재해 보도준칙과 취재보도 실무지침

재난재해 보도준칙	재난재해 취재보도 실무지침
① 뉴스통신사는 재난 보도 취재에 대한 매뉴얼을 평상시 준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재 및 보도를 해야 한다	① 재난 보도를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과 준비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평소 실시한다
② 재난 뉴스 취재 기자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②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긴급> 또는 <1보> 등의 형식으로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나 분야 담당 취재 기자는 재난재해 발생 소식이 관계기관에서 들어오면 간단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데스크 보고와 함께 긴급 또는 1보를 처리하고 현장 취재 등 후속 취재에 들어가야 한다. 긴급이나 1보는 사안의 긴급성이나 비중을 따져 처리함으로써 긴급이나 1보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취재행위나 인터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③ 담당 데스크는 현장 취재가 결정되면 편집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련 부서장과 협의해 사진기자, 영상취재 기자 동행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국장은 사안 규모에 따라 사내 방송과 함께 자막 보도, 인터넷 보도, 그래픽 등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추가 인원 투입이나 지원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④ 사상자나 생존자들, 가족들에 관한 가십성 기사는 사고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므로 억제되어야 한다	
⑤ 재난 보도 현장의 사정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는 데스크의 기사내용의 가감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⑥ 현장에서 취재된 기사를	

8) 이러한 재난재해 보도준칙과 취재보도 실무지침은 실제 재난현장에서 경험한 재난 보도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재난재해 보도준칙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난재해 보도준칙	재난재해 취재보도 실무지침
데스크에서 작성할 때 현장기자의 증언이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④ 현장 취재 기자 유의사항 · 유무선 통신망을 확보해 즉시 기사 송고를 준비해야 한다 · 재난재해를 촬영한 화면을 현장에서 입수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최초 목격자, 사고 유발자, 현장 책임자를 찾아 인터뷰를 시도해야 한다 · 현장이 수습되기 전 상황을 최대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야 한다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중계보도 해야 한다 · 사고현장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탐문, 목격자의 증언, 증거 등을 활용 보도한다 · 실종자와 피해자를 평가나 가치 개입 없이 보도한다 · 사고현장이나 구조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한다 · 사고현장의 생중계나 대책본부 등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도한다 · 도표와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의 원인을 분석, 해결하여 보도한다 ·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새롭게 구성, 그래픽이나 사진을 통해 현실감을 부여 보도한다
⑦ 사고 원인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재난대책 공식기구의 책임자나 대변인을 통해야 한다	⑤ 관련 서류 및 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재난이나 사고의 초기 몇 시간 동안은 업데이트된 뉴스가 중요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재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에 대한 공문서나 기록을 찾아야 한다
⑧ 재난 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는 재난 사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⑥ 재난방지 대책과 예방 등에 대해 정밀보도를 해야 한다 · 정부나 지자체는 재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왔는지 유사한 과거의 재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⑨ 사고 상황이나 목격담을 듣기 위한 목적이라도 부상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서 안 된다	
⑩ 재난 사고 취재 시 현장 통제관의 요구나 지시를 어기는 취재행위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	
⑪ 자극적이고 비참한 사고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금지 되어야 한다	
⑫ 대형 재난일 경우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취재된 기사를 선별할 수 있는 현장 데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⑬ 뉴스통신사 내에는 재난 보도를 전담하는 전문팀이 상설화되어 있어야 한다	
⑭ 희생자나 부상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⑮ 뉴스통신사 간의 과열 경쟁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합동 취재 풀(pool) 제도가 필요하다	

자료: 유승관, 강경수(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140-169.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아놀드 호윗(Arnold Howitt) 교수가 제안한 재난 상황에서 지켜야 할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적용한 재난 특보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표 3-6> 재난특보용 매뉴얼

원칙	내용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 본인이 말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신뢰의 한계를 꼭 이야기하라. 새로 들어오는 정보 중심으로 속보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라 (예시) “현재 뉴스 스튜디오에 전해진 정보는 이것뿐이다. 시청자들은 이런 내용을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온 정보가 없다”</li> <li>· 특보 초반부에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기자에게 더 신뢰감이 간다</li> </ul>
궁금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시청자와 교감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는 제한돼 있더라도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지속적으로 언급해줘야 한다. 현장의 피딩 포인트는 어디어디인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궁금증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들과 교감해야 한다 (예시) 첫 특보 때 나온 첫 정보 “461명 중 160명이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다”를 설명할 때, 역으로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구조가 확인된 사람은 160명이다. 나머지 300여 명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 인명피해가 없다고는 하는데 관련정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다. 현장기자들도 나머지 인명피해에 관한 정보를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li> </ul>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의미를 설명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특보는 현장 화면이 있는 보도다. 첫 현장 화면이 들어왔을 때, 그 화면이 갖는 상황적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특보를 할 때 기자 외에 전문가를 함께 출연시키는 가장 주된 이유)</li> <li>· 적절한 전문가 물색이 체계적으로 즉시 이뤄져야 한다. 물론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과 분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앵커(특보 진행자)의 질문 유도능력이 필수적이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대신 물어볼 수 있는 앵커의 순발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li> <li>· 문답을 통해 궁금증이 하나하나 해소될 때 살아 있는 특보가 된다. 짜 맞춰진 사전 진행표(Q-sheet)에 매물되면 살아 있는 특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판박이 리포트, 동일한 정보의 되풀이, 회전문마시 보도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li> </ul>

자료: 방문신(2014), 세월호 재난보도가 낡긴 과제와 교훈: 방송 특보를 중심으로. 관훈저널, 131, 13-26.

### 제3절 재난방송 보도 현황 및 문제점

#### 1. 재난방송 보도 평가 일반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종합매뉴얼을 토대로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설정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재난방송 보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방송과 재난방송 보도준칙 준수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 방송사들의 반복되는 오보와 선정적 보도, 재난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등 방송준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재난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방송사들이 재난보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 프라이버시 문제, 자극적인 보도 등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속보 경쟁 속에서 재난보도의 정확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며, 시청자의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중계식 보도나 화면의 불안정성, 그리고 재난발생 지역의 주민(시청자)과의 불안한 인터뷰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예컨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망원렌즈로 우한 교민들의 사생활 모습을 촬영하거나, 차이나타운에서 특정 민족을 비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등 재난보도준칙에 저촉되는 보도행태가 나타났다. 이는 언론사 간의 취재 경쟁과 더불어 재난보도준칙이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과 가지고 있어, 방송사 및 기자 개인의 자율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재난보도준칙 자체의 완성도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없으나, 실제 현장의 취재인력과 데스크가 이를 체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문서로서의 준칙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파데로나 손해배상 처분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방송사들은 재난방송 보도준칙에 관해 보도국과 일선 기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재난 상황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내용으로 정확하게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가치를 언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는 보다 맥락적이고 전문적인 상황판단과 해석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재난방송 보도가

단순한 사건사고 보도가 아니라는 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방송사나 보도국, 또는 일선 기자들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과거에 비해 재난방송 관련 보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속성’은 우수하지만, ‘정확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확성’은 대상에 대한 충분한 관찰과 이해를 전제로, 부정확한 표현을 제거하고, 흥미유발 등의 동기를 적절하게 통제할 가운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확립되는 속성이다. 국내 재난방송 보도에서는 이러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한편, 방송사가 재난방송에 돌입하는 시점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재난방송 보도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송사별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재난방송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도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재난방송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재난보도뿐 아니라 모든 취재 보도 현장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신속성과 정확성이 상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기존의 취재 네트워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을 요하게 된다. 재난방송 보도가 단순한 사건사고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피방법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보도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본이나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이라는 가치일 수 있다. 따라서 재난방송 보도의 평가 기준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관점보다 ‘신속성’과 ‘정확성’ 각각에 대한 합의와 상황적 판단을 근거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계적인 통신사들의 재난보도 담당기자들은 사고현장 상황과 피해상황 보도, 생존자 상황, 구조 및 의료상황, 정부나 관계기관의 대책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뉴스가치나 보도 관점에 대해서는 신속성과 실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는 사실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보도, 현장감, 재난 원인에 대한 추적보도를 중시한다. 또한, 취재를 위해서는 사실성, 탐문이나 목격자 증언과 증거활용 보도, 실종자나 피해자를 평가나 가치개입 없이 보도하고 사고 현장이나 구조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유승관, 강경수,

2011).

국내 방송사들 역시 방통위의 종합매뉴얼을 토대로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설정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재난방송 보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보도에 대한 매체 간 취재경쟁이 심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기사나 미확인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홍은희(2014)는 방송사들의 저널리즘 가치가 인터넷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을 통해 ‘더 많이’, ‘더 빨리’라는 새로운 가치로 변질되면서 재난보도영역에서 뉴스 가치에 대한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상파방송에 있어서 ‘더 많이’는 보도편성시간의 증가로, ‘더 빨리’는 생방송으로 귀결되면서 많은 뉴스를 더 빠르게 실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취재할 수 있는 현장주변의 스케치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국내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재난보도 지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국내 재난보도의 문제점 및 지향점

연구자	문제점 및 지향점
김동규(2003), 최효진(2006)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이나 대안제시보다는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당국과 공직자의 무책임성 비난</li> <li>· 피해현장 위주의 스케치보도</li> <li>· 정확한 피해상황과 복구의 진행상황 등 유용한 정보보다는 피해를 입은 지역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도하는데 집중</li> </ul>
유승관, 강경수(2011)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극적인 제작기법을 사용, 지나친 선정주의 경향</li> <li>· 재난 현실에 대한 심층성 부족</li> <li>· 재난의 근본적 원인보다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요구 보도에 중점</li> <li>· 사태가 수습되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사후대책 실시 여부도 미확인</li> </ul> <p>&lt;지향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li> <li>·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주의 환기</li> <li>· 사실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li> <li>· 전문성, 정확성, 계몽성, 예방성 견제</li> </ul>
김춘식(2011)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주의적이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치중</li> <li>· 불분명한 취재원에 의존해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li> </ul>

이연, 송중현(2011)	<p>&lt;지향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이나 재산피해,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li> <li>· 신속정확, 피해자중심, 인권보호의 원칙 준수</li> </ul>
백선기, 이육기(2013)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li> <li>·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li> </ul> <p>&lt;지향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의 초점은 시청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li> <li>· 정보와 복구, 부흥이라는 3개의 기능 영역이 균형을 가져야 함</li> </ul>
홍은희(2014)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핵심보다는 현장주변 중심의 스케치</li> <li>· 냉철한 문제해결, 재방방지를 위한 보도보다는 감정적, 선정적 보도 중심</li> <li>· 미확인, 검증되지 않은 보도로 인한 오보와 신뢰성 하락</li> <li>·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li> <li>· 상투적인 원인규명에 따른 정확성과 심층성 부족</li> <li>· 언론인들의 바람직한 직업윤리의식 결여</li> </ul> <p>&lt;지향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재난상황만 알리는 것이 아닌 구조/대피 등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해 통제기구의 정보전달과 유사한 수준의 피해대비를 위한 예방역할 포함</li> <li>· 재난 초기 국민의 상황파악 이해 도모와 대처요령에 대한 정보전달</li> <li>· 재난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는 시기에 이르면 재난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규모, 상황에 대한 재정리</li> <li>· 재난에 대한 사회안전시스템(관-업계 유착관계, 재난대책기구의 문제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li> <li>· 재난 수습기에는 유사재난 발생에 대한 제도적 대책 수립에 대한 여론형성</li> </ul>
방문신(2014)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일방적 전달(정보소스): 정부발표의 무비판적 인용</li> <li>·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 부족(취재태도): 기레기 논란의 주요 원인</li> <li>· 미확인 선정적 보도(과잉경쟁)</li> </ul> <p>&lt;지향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 강화</li> <li>· 현장성, 신속성, 심층성, 정확성</li> </ul>
정민규(2016)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오보 릴레이</li> <li>· 막무가내식 취재경쟁</li> <li>· 비전문적이고 단편적인 보도</li> <li>· 대책마련만 촉구할 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li> </ul>

## 2. 코로나19 방송보도 평가 및 과제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는 대부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나,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 글로벌한 재난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중요한데, 정부의 발표를 생방송으로 매일 방송하고, 메인 뉴스를 통해 어느 정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감염자 숫자 등에 대한 해석이나 국제 비교 등에 있어 통계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소외계층 및 방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양과 질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다.

‘정확성’은 속보와는 매우 다른 개념이며, 특정 정보에 대하여 진위와 가치를 가린 다음 보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는 끓어도 죽지 않는다” “코로나는 중국이 일부터 생산했다” 등의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빠르게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방송사, 특히 지상파는 정보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는 주체이기에, 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해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언론도 우왕좌왕하면서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부분 해결은 되었다고 보이지만, 아직도 문제는 있다. 다만,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서 국민들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정보전달 시 언론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양자택일)을 조사한 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정보를 보도해야 한다” 89.0%, “불확실한 정보라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11.0%로 나타났다. 정확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이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다 보니 대다수 방송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재난방송을 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특성과 대응방법에 대한 구체성, 정확성 등 보도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KBS의 경우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3월 4일부터 KBS 1TV를 코로나19 확산에 24시간 대응하는 ‘코로나19 통합뉴스룸’으로 전환하여 전체 채널 편성을 운영하고 있다. 1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했던 3월 말까지 KBS뉴스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6,684개의 기사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달했다. 이 시기 두 차례의 KBS 내부조사에 따르면 'KBS 코로나19 뉴스특보'는 전 국민의 약 84%에 도달했다. KBS1, 2TV 채널은 확진자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4월 말까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예방수칙 등 여러 스포츠를 3,353회 방송하였고, 착한 소비 프로젝트 등 110회에 걸친 코로나 관련 특집 프로그램은 누적 4,986만 명이 시청하였다. 라디오에서는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3라디오, 해외동포를 위한 한민족방송을 포함한 6개 채널에서 840회 이상 관련 정보를 방송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1월 27일 KBS 내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국제현황, 정부 콘트롤타워, 보건당국 점검, 병원, 시민의 코로나 확산 등의 점검요인을 정립하고 정치인에 의한 의견 보도 자체 등에 대한 자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보도를 수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며, 감염자가 '많다. 적다'와 같은 단순한 수치 비교나,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등 통계 및 해석의 문제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깊게 보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의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대피, 대응, 예방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안', '공포', '우려' 등의 자극적인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언론이 뉴스 수용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발화시켜 뉴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보도관행이다. 이러한 표현은 국민에게 불확실한 공포감을 유발시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와 공간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보도도 문제다.

사실 방송사(언론사) 내에 재난방송이나 감염병 관련 전문가 풀이 너무 부족한 상태다.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 이미 알려진 전문가의 중복 겹치기 출연/인용과 비전문가를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인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식브리핑이나 정부 대응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재난현장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브리핑에 이견이나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반대로 공식브리핑에 충실하게 보도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나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히기 어렵다는 우려 등이 상충하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감염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책 마

련을 위해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감염병보도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월21일부터 24일까지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여 문제 보도를 찾아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4월28일 감염병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쓰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돼 불안을 가중하거나 불필요한 보도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자 관련 언론보도 역시 늘고 있는데 여전히 감염병보도준칙을 지키지 않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를 대상으로 '뚝리다'는 표현이 등장한 횟수를 확인한 결과 8월21일부터 24일까지 TV조선 3건, JTBC 1건의 제목에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TV조선은 8월21일부터 사흘 연속 <경찰 심장부 뚝렸다... 예비군훈련 취소>(8월21일 노도일 기자), <대형병원 잇따라 뚝러... 전국 안전지대 없다>(8월22일 강석 기자), <외교부 청사도 뚝렸다... 출입 통제>(8월23일 고서정 기자)에서 경찰, 대형병원, 외교부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공공기관과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뚝렸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뚝리다'는 표현보다 더 자극적인 단어도 사용했다. 8월24일자 <감염집단 최소 30개... 전국 '폭발 지뢰밭'>(송민선 기자)에서는 집단감염을 '폭발 지뢰밭'이라는 선정적 표현으로 묘사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자극적 표현으로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는 제목이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는 감염병보도준칙을 제정하면서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하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방송은 방역에 해를 끼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은 정부가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확진자의 동선 분석 등 확산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언론은 정부의 대응에 빈틈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감시하며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불안감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하 메르스)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 결과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최고 유행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과정에서는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아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YTN <앵커리포트>‘콜록’ 소리에 흠칫…번지는 ‘가짜뉴스’>(1/29)은 온라인상에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해당 영상을 언급했다. YTN은 문제의 영상에 대해 “감염자 기침 한 번으로 주변 14명이 동시에 감염된다, 폐렴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들은 더 있었다. 대표적으로 ‘우한에서 500만 명이 탈출했는데 우리나라에 6000명이 넘게 왔다’는 주장이다. 이 내용을 전달한 채널 A <뉴스TOP10>(1/27) 진행자와 출연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설명을 덧붙였다. 출연자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우한 시민들 중에 6000명 이상의 항공권 도착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 “상당히 많은 수의 우한시민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중에서는 27일 TV조선 <우한 500만 명 탈출…6천명 한국행 추정>(1/27 박소영 기자)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 제목에서부터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TV조선은 신동욱 앵커가 보도를 시작하며 “우한은 사실상 유행도시로 변했다”며 불안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이미 5백만 명이 우한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한에서 이미 500만 명이 빠져나갔고 그중 한국행을 택한 사람은 6400여 명으로 추정됐다”는 내용을 반복했다.

이처럼 여러 언론에서 ‘우한에서 500만 명이 탈출했는데 우리나라에 6000명이 넘게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놨다. 감염병이 생겼을 때, 정부의 방역체계를 감시하고 빈틈을 지적하며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체계가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과대 해석하길은 언론의 책무가 아니다. 이런 언론보도는 방역체계에는 도움이 되

지 않고 시민의 불안과 혐오를 일으켜 사회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특히 TV조선이 우한을 “유행도시”로 표현하고 인구의 이동을 “탈출”이라고 표현하거나 채널A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입국자가 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한 점은 더욱 악의적이다. 이런 내용은 방역체계의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와 막연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에 대한 비판은 감염병 보도준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감염병 보도준칙은 “감염병의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은 자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TV조선과 같이 자극적인 표현들로 감염병을 설명해 불안감을 야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이 내용을 “유행도시”, “탈출”과 같은 단어들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해 믿음이 있는지 감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선 보도들에서는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등장하지 않았고, 극단적인 표현들로 불안감을 일으킬 뿐이었다.

이외에도 외신의 기사를 그대로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우한 지역에 병원군 연구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연결시킨 보도들이다. 이런 보도는 SBS <영국 매체 “2017년 우한 연구소 설립 때, 유출 가능성 경고”>(1/26 엄민재 기자) 등 검색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는 채널A가 이 내용을 언급했다. 채널A <커지는 공포심…“일단 막아달라”>(1/26 유주은 기자)는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 특성상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해 사람들의 공포심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중국 환자 모습이 공유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과 “우한에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군 연구시설이 있고 지난 2017년 과학자들이 연구소 밖 바이러스 유출을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와 중국 정부 통제에 대한 불신도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언급했다.

이런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준칙을 위반한 내용이다. 재난보도준칙 제13조(유언비어 방지)는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선 보도들처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경우 유언비어로 인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0년 12월 15일 코로나19 보도 문제를 짚어보는 <코로나19, 일

년을 돌아보다> 포럼을 개최했다. 언론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분석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을 정파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낙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비슷한 뉴스가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어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의 과잉 현상을 낳고 있으며, 허위정보 및 오정보가 만연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니는 재난에 있어서는 통계 비교나 해석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보도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신속한 보도보다는 정확한 보도가 더 중요한 재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종류별로 방송/보도하는 매뉴얼과 준칙을 새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 대상 수어방송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 방송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낙인이 찍히는 집단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재난방송 보도가 국가적 위기관리(사회적 재난 및 테러, 환경문제, 자연재해 포함) 정책 및 조치에 반영되고 상시 공조 협력할 수 있도록 언론사(방송사)와 연구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 조직에서 상시적으로 연구 결과와 취약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정보와 위협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준칙의 항목들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사, 특정 기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 등 책임/권한 있는 주체에서 요청·고지·경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제를 유도할 수 있겠다. 자살 보도의 선정성 등이 문제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살보도권고기준은 최근 매우 효과적으로 준수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미디어 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위배 사실 통보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벤치마킹해 재난방송 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전문기자의 육성, 트레이닝 그리고 전문기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새로운 감염병은 전문가들도 익숙하지 않기에 대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진 전문기자들은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학습, 취재원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해외/국내 논문의 서칭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 보도의 정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단 재난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위협이 슈 관련 보도에서 매번 지적되는 문제이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사(특히 방송사)에서도 보건 분야의 전문기자의 양성과 전문 취재시스템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장 재난방송 · 보도 분석

### 제1절 분석방법

국내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 분석을 위하여 내용분석 방법(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내용분석은 말이나 글로 표현된 인간의 의사활동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문화적 배경, 맥락, 시간, 언어 등의 요소로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애매한 내용에 대한 인상적인 판단보다는 수적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간명하게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이다(박주현, 2020). 내용분석 방법 중 양적 분석에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와 확산 등을 고려하여 발생기, 확산기, 대유행기, 재확산기, 안정기로 세분화하여 각 시기별로 지상파방송(KBS1, MBC, SBS)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기사를 추출, 설정된 분석유목에 따라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코로나19 관련 방송보도에 있어서 주로 많이 사용된 내용적 프레임이나 특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1. 분석 기간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양적분석 기간은 코로나19 발생 시기와 확산 등에 따라 발생기, 확산기, 대유행기, 재확산기, 안정기로 분류하고, 각 시기별로 분석 기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방송보도 분석기간

	기간	근거
발생기	2020.01.20.~2020.02.17.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중국인 여성) 발생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황조정됨
확산기	2020.02.18.~2020.02.27.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과 마스크 대란 심화 국내 최초로 10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대유행기	2020.03.01.~2020.03.19.	국내에서 코로나19 전락 수정(중증환자만 입원 치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유행 WHO의 팬데믹 선언
재확산기	2020.08.15.~2020.10.11.	보수단체(집회) 및 종교 단체(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19 재확산
안정기	2020.10.12.~2020.10.21.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분석대상인 지상파방송 KBS1, MBC, SBS의 코로나19 재난방송 관련 기사(스트레이트,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 중심, 기타)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사검색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와 더불어 각 방송사들의 홈페이지 뉴스검색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각 시기별로 주어진 기간 내에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뉴스 모두를 추출하였고, 연관어는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상세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코더원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분석유목과 조작적 정의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분석유목은 방송사(KBS1, MBC, SBS), 형식적 프레임(사건중심 프레임, 주제중심 프레임, 혼합 프레임, 기타), 내용적 프레임(의료/방역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 뉴스 논조(공정, 부정, 중립), 기사 유형(스트레이트,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 중심, 기타)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분석유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분석유목과 조작적 정의

구분	분석유목	조작적 정의
지상파 방송사	-	KBS1, MBC, SBS
프레임	형식적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중심 프레임: 뉴스보도의 목적을 단순 사실전달에 두고 이슈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전달하며, 이슈나 사건발생과 관련된 전체적인 맥락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즉각적인 발생에만 주목하는 프레임(스트레이트기사나 인터뷰 등)</li> <li>· 주제중심 프레임: 이슈나 사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대안과 대책의 제공이 분석적, 평가적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프레임, 일반적인 결과나 조건 또는 통계적 증언 및 증거 등을 강조(해설, 논평 등)</li> <li>· 혼합 프레임: 위의 두 가지 유형이 혼재(사건발생을 묘사하고, 해결책 모색 등이 혼잡)</li> <li>· 기타: 위의 유형들에 포함되지 않은 프레임</li> </ul>
	내용적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방역 프레임: 원인, 증상, 검진, 치료, 의학적 발견, 새 치료법 소개, 의과학적 접근에 치중하고 방역행동에 대한 설명과 행동권고</li> <li>· 갈등/불만 프레임: 사태 관련 이해주체 간 대립과 갈등적 요소 강조(고소고발, 의료사고, 법적분쟁, 부정적 사건 등)</li> <li>· 도덕성 비판 프레임: 사태 관련 이해주체들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 코로나 접촉자나 접촉 병원, 교회, 식당, 시설 등의 방문을 숙인 환자들과 관련된 기사들)</li> </ul>
뉴스 논조	긍정	긍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
	부정	부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
	중립	상기 두 논조가 지배적이지 않거나 유사하게 배치
기사 유형	스트레이트	기사의 의견이나 해석을 배제한 사실 위주의 기사나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보도
	기획/리포	심층 보도를 위해 기자가 방송사가 특별히 기획하여 보도한 기사나 현장 중심의 사실적 기사 (예) 코로나19 특집, 코로나19 기획,
	해설/논평	스트레이트 기사를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설명이나 자료분석 등의 기사, 사안의 원인이나 배경, 해결책 등을 풀이하고 필자나 방송사의 의견이나 주장이 담긴 의견 기사, 사실란에 고정적으로 보도되는 사실과 기명으로 보도되는 논평
	인터뷰중심	취재대상 인물의 사진과 발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 인터뷰 대상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기사
	기타	다른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사나 내용

#### 4. 분석방법과 코더 간 신뢰도

자료분석 코딩은 대학원생 2명이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 대학원생 2명이 임의로 기사를 추출하여 개별적으로 자료를 평가, 코딩한 후 서로 간의 교차 확인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자료 코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하였다. 이에 대학원생 2인이 분석유목에 따라 각각 자료를 입력한 후 홀스티(Holsti) 검증공식을 활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추출된 데이터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제2절 양적 분석결과

### 1.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발생 시기별 보도 건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 및 확산세에 따라 크게 ‘발생기(2020.01.20. ~ 2020.02.17.)’, ‘확산기(2020.02.18. ~ 2020.02.27.)’, ‘대유행기(2020.03.01. ~ 2020.03.19.)’, ‘재확산기(2020.08.15. ~ 2020.10.11.)’, ‘안정기(2020.10.12. ~ 2020.10.21.)’로 분류하였다. 국내 지상파방송의 코로나19 발생 시기별 보도 건수는 총 1,464건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생기 342건(23.4%), 확산기 247건(16.9%), 대유행기 381건(26.0%), 재확산기 451건(30.8%), 안정기 43건(2.9%)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4-1] 코로나19 발생시기별 재난방송 전체 보도건수



분석기간 동안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건수는 KBS1 467건(31.9%), MBC 493건(33.7%), SBS 504건(34.4%)으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따른 보도건수를 살펴보면 KBS1은 발생기 107건(22.9%), 확산기 73건(15.6%), 대유행기

120건(25.7%), 재확산기 148건(31.7%), 안정기 19건(4.1%), MBC는 발생기 111건(22.5%), 확산기 87건(17.6%), 대유행기 133건(27.0%), 재확산기 149건(30.2%), 안정기 13건(2.6%), SBS는 발생기 124건(24.6%), 확산기 87건(17.3%), 대유행기 128건(25.4%), 재확산기 154건(30.6%), 안정기 11건(2.2%)로 나타났다. 방송사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기(451건, 30.8%)에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대유행기(381건, 26.0%), 발생기(342건, 23.4%), 확산기(247건, 16.9%), 안정기(43, 2.9%) 순이었다.

<표 4-3> 방송사별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따른 재난방송 보도건수

	코로나19 발생 시기					전체
	발생기	확산기	대유행기	재확산기	안정기	
KBS1	107(22.9%)	73(15.6%)	120(25.7%)	148(31.7%)	19(4.1%)	467(100%)
MBC	111(22.5%)	87(17.6%)	133(27.0%)	149(30.2%)	13(2.6%)	493(100%)
SBS	124(24.6%)	87(17.3%)	128(25.4%)	154(30.6%)	11(2.2%)	504(100%)
전체	342(23.4%)	247(16.9%)	381(26.0%)	451(30.8%)	43(2.9%)	1464(100%)

### 2.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프레임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프레임을 형식적 보도 프레임(사건중심 프레임, 주체중심 프레임, 혼합 프레임, 기타)과 내용적 프레임(의료/방역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살펴왔다.

우선 형식적 프레임을 살펴보면, 국내 방송사 전체적으로 사건중심 프레임(스트레이트)은 1143건(78.1%), 주체중심 프레임(심층보도) 318건(21.7%), 혼합 프레임 2건(0.1%), 기타 1건(0.1%)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재난방송에 있어서 사건중심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S1은 사건중심 프레임을 364건(77.9%), 주체중심 프레임 101건(21.6%), 혼합 프레임 2건(0.4%), MBC는 사건중심 프레임 383건(77.7%), 주체중심 프레임 109건(22.1%), 기타 1건(0.2%), SBS는 사건중심 프레임 396건(78.6%), 주체중심 프레임 108건(21.4%)으로 국내 방송사 모두 재난보도에 있어서 사건중심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형식적 프레임

	사건중심	주제중심	혼합	기타	전체
KBS1	364(77.9%)	101(21.6%)	2(0.4%)	-	467(100%)
MBC	383(77.7%)	109(22.1%)	-	1(0.2%)	493(100%)
SBS	396(78.6%)	108(21.4%)	-	-	504(100%)
전체	1143(78.1%)	318(21.7%)	2(0.1%)	1(0.1%)	1464(100%)

국내 방송사별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별 재난방송 형식적 프레임을 살펴보았다. 우선 KBS1의 경우에 발생기에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74건(69.2%),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33건(30.8%), 확산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60건(82.2%),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13건(17.8%), 대유행기에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91건(75.8%),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29건(24.2%), 재확산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125건(84.5%),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21건(14.2%), 혼합 프레임 2건(1.4%), 안정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14건(73.7%),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5건(26.3%)으로 나타났다. MBC는 발생기에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84건(75.7%),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27건(24.3%), 확산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66건(75.9%),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21건(24.1%), 대유행기에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86건(64.7%),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46건(34.6%), 재확산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137건(91.9%),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12건(8.1%), 안정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10건(76.9%),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3건(23.1%)으로 나타났다. SBS는 발생기에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85건(68.5%),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39건(31.5%), 확산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67건(77.0%),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20건(23.0%), 대유행기에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91건(71.1%),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37건(28.9%), 재확산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143건(92.9%),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11건(7.1%), 안정기는 사건중심 보도프레임 10건(90.9%), 주제중심 보도프레임 1건(9.1%)으로 나타났다.

<표 4-5> 방송사별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따른 재난방송의 형식적 프레임

	사건중심	주제중심	혼합	기타	전체	
K	발생기	74(69.2%)	33(30.8%)	-	-	107(100%)
	확산기	60(82.2%)	13(17.8%)	-	-	73(100%)
B	대유행기	91(75.8%)	29(24.2%)	-	-	120(100%)
	재확산기	125(84.5%)	21(14.2%)	2(1.4%)	-	148(100%)
S	안정기	14(73.7%)	5(26.3%)	-	-	19(100%)
	전체	364(77.9%)	101(21.6%)	2(0.4%)	-	467(100%)
M	발생기	84(75.7%)	27(24.3%)	-	-	111(100%)
	확산기	66(75.9%)	21(24.1%)	-	-	87(100%)
B	대유행기	86(64.7%)	46(34.6%)	-	1(0.8%)	133(100%)
	재확산기	137(91.9%)	12(8.1%)	-	-	149(100%)
C	안정기	10(76.9%)	3(23.1%)	-	-	13(100%)
	전체	383(77.7%)	109(22.1%)	-	1(0.2%)	493(100%)
S	발생기	85(68.5%)	39(31.5%)	-	-	124(100%)
	확산기	67(77.0%)	20(23.0%)	-	-	87(100%)
B	대유행기	91(71.1%)	37(28.9%)	-	-	128(100%)
	재확산기	143(92.9%)	11(7.1%)	-	-	154(100%)
S	안정기	10(90.9%)	1(9.1%)	-	-	11(100%)
	전체	396(78.6%)	108(21.4%)	-	-	504(100%)

내용적 프레임을 살펴보면, 국내 방송사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의료/방역 프레임 1030건(70.5%), 갈등/불만 프레임 234건(16.0%), 도덕성 비판 프레임 197건(13.5%)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의료/방역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S1은 의료/방역 프레임은 344건(73.8%), 갈등/불만 프레임(심층보도) 74건(15.9%), 도덕성 비판 프레임 48건(10.3%), MBC는 의료/방역 프레임 325건(66.2%), 갈등/불만 프레임 83건(16.9%), 도덕성 비판 83건(16.9%), SBS는 의료/방역 프레임 361건(71.6%), 갈등/불만 프레임 77건(15.3%), 도덕성 비판 프레임 66건(13.1%)으로 국내 방송사 모두 코로나19 재난방송에 있어서 의료/방역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의료/방역	갈등/불만	도덕성 비판	전체
KBS1	344(73.8%)	74(15.9%)	48(10.3%)	466(100%)
MBC	325(66.2%)	83(16.9%)	83(16.9%)	491(100%)
SBS	361(71.6%)	77(15.3%)	66(13.1%)	504(100%)
전체	1030(70.5%)	234(16.0%)	197(13.5%)	146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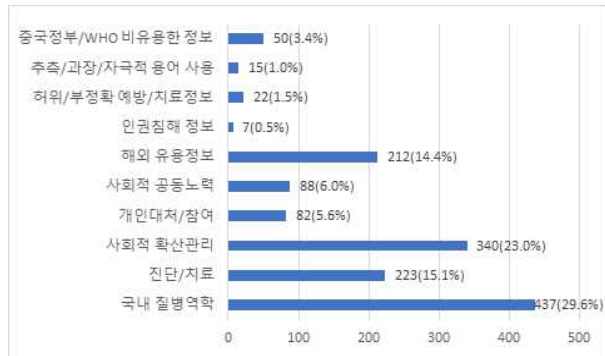
국내 방송사별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별 재난방송 내용적 프레임을 살펴보았다. 우선 KBS1의 경우에 발생기에 의료/방역 프레임 89건(83.2%), 갈등/불만 프레임 4건(3.7%), 도덕성 비판 프레임 14건(13.1%), 확산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56건(77.8%), 갈등/불만 프레임 12건(16.7%), 도덕성 비판 프레임 4건(5.6%), 대유행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77건(64.2%), 갈등/불만 프레임 29건(24.2%), 도덕성 비판 프레임 14건(11.7%), 재확산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106건(71.6%), 갈등/불만 프레임 27건(18.2%), 도덕성 비판 프레임 15건(10.1%), 안정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16건(84.2%), 갈등/불만 프레임 2건(10.5%), 도덕성 비판 프레임 1건(5.3%)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에 발생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87건(78.4%), 갈등/불만 프레임 7건(6.3%), 도덕성 비판 프레임 17건(15.3%), 확산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52건(59.8%), 갈등/불만 프레임 20건(23.0%), 도덕성 비판 프레임 15건(17.2%), 대유행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90건(68.2%), 갈등/불만 프레임 28건(21.2%), 도덕성 비판 프레임 14건(10.6%), 재확산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88건(59.1%), 갈등/불만 프레임 27건(18.1%), 도덕성 비판 프레임 34건(22.8%), 안정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8건(66.7%), 갈등/불만 프레임 1건(6.3%), 도덕성 비판 프레임 3건(25.0%)으로 나타났다. SBS의 경우에 발생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100건(80.6%), 갈등/불만 프레임 11건(8.9%), 도덕성 비판 프레임 13건(10.5%), 확산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67건(77.0%), 갈등/불만 프레임 14건(16.1%), 도덕성 비판 프레임 6건(6.9%), 대유행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81건(63.3%), 갈등/불만 프레임 26건(20.3%), 도덕성 비판 프레임 21건(16.4%), 재확산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103건(66.9%), 갈등/불만 프레임 26건(16.9%), 도덕성 비판 프레임 25건(16.2%), 안정기는 의료/방역 프레임 10건(90.9%), 도덕성 비판 프레임 1건(9.1%)으로 나타났다.

<표 4-7> 방송사별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따른 재난방송 내용적 프레임

	의료/방역	갈등/불만	도덕성 비판	전체	
KBS1	발생기	89(83.2%)	4(3.7%)	14(13.1%)	107(100%)
	확산기	56(77.8%)	12(16.7%)	4(5.6%)	72(100%)
	대유행기	77(64.2%)	29(24.2%)	14(11.7%)	120(100%)
	재확산기	106(71.6%)	27(18.2%)	15(10.1%)	148(100%)
	안정기	16(84.2%)	2(10.5%)	1(5.3%)	19(100%)
전체	344(73.8%)	74(15.9%)	48(10.3%)	466(100%)	
MBC	발생기	87(78.4%)	7(6.3%)	17(15.3%)	111(100%)
	확산기	52(59.8%)	20(23.0%)	15(17.2%)	87(100%)
	대유행기	90(68.2%)	28(21.2%)	14(10.6%)	132(100%)
	재확산기	88(59.1%)	27(18.1%)	34(22.8%)	149(100%)
	안정기	8(66.7%)	1(6.3%)	3(25.0%)	12(100%)
전체	325(66.2%)	83(16.9%)	83(16.9%)	491(100%)	
SBS	발생기	100(80.6%)	11(8.9%)	13(10.5%)	124(100%)
	확산기	67(77.0%)	14(16.1%)	6(6.9%)	87(100%)
	대유행기	81(63.3%)	26(20.3%)	21(16.4%)	128(100%)
	재확산기	103(66.9%)	26(16.9%)	25(16.2%)	154(100%)
	안정기	10(90.9%)	-	1(9.1%)	11(100%)
전체	361(71.6%)	77(15.3%)	66(13.1%)	504(100%)	

한편, 내용적 프레임을 구성하는 의료/방역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의료/방역 프레임의 경우에 국내 질병역학(감염자/치료자/사망자 현황, 위험크기, 감염원인/전파경로, 유행전망 등)이 437건(29.6%)으로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보였고, 사회적 확산 관리(사회적 거리단계, 학교/기업 대응 동향, 사회적 예방수칙, 여행/집회/집합 제한) 340건(23.0%), 진단/치료(증상, 질병특성, 취약/고위험군, 진단/의료서비스 및 병상 확보, 선별진료소, 국내 진단키트 및 치료법/치료제 개발 현황, 후유증 등) 223건(15.1%), 해외 유용한 정보(해외 발병/진행/치료 현황, 백신 개발 등) 212건(14.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사회적 공동노력(의료진/방역당국/정부 등의 헌신, 이에 대한 감사) 88건(6.0%), 개인 대처/참여(성숙 시민의식/역량, 개인 예방생활 수칙 등) 82건(5.6%), 중국정부/WHO 비유용한 정보 50건(3.4%), 허위/부정확 예방/치료 정보(드라이기 열, 마늘 효능, 미인가 의약품 소개, 방역당국 조작설 등) 22건(1.5%), 추측/과장/자극적 용어 사용(대혼란, 공포, 패닉, 유행도시 등) 15건(1.0%), 인권침해 정보(발병자 개인식별 가능 정보 노출, 특정 종교/감염자 혐오 차별 용어 등) 7건(0.5%)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 코로나19 방송보도: 의료/방역 프레임(N=1476, 다중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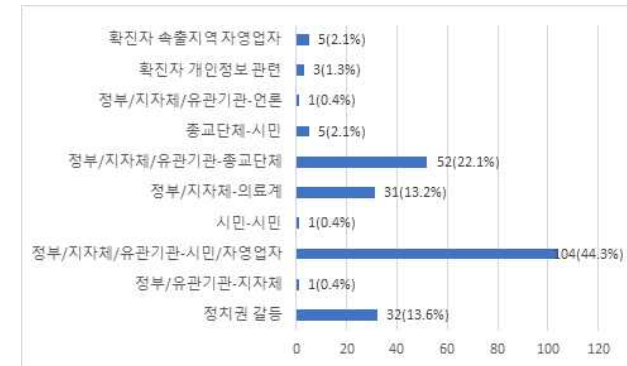
방송사별 의료/방역 프레임의 경우에 KBS1은 국내 질병역학 135건(27.3%), 사회적 확산 관리 117건(23.6%), MBC 국내 질병역학 151건(32.5%), 사회적 확산 관리 108건(23.2%), SBS 국내 질병역학 151건(29.3%), 사회적 확산 관리 115건(22.3%)으로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냈다.

<표 4-8>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의료/방역 프레임

	KBS1	MBC	SBS	전체
국내 질병역학	135(27.3%)	151(32.5%)	151(29.3%)	437(29.6%)
진단/치료	81(16.4%)	60(12.9%)	82(15.9%)	223(15.1%)
사회적 확산 관리	117(23.6%)	108(23.2%)	115(22.3%)	340(23.0%)
개인 대처/참여	25(5.1%)	30(6.5%)	27(5.2%)	82(5.6%)
사회적 공동노력	33(6.7%)	27(5.8%)	28(5.4%)	88(6.0%)
해외 유용한 정보	68(13.7%)	65(14.0%)	79(15.3%)	212(14.4%)
인권침해 정보	2(0.4%)	-	5(1.0%)	7(0.5%)
부정확 예방/치료 정보	8(1.6%)	4(0.9%)	10(1.9%)	22(1.5%)
추측/과장/자극적 용어 사용	4(0.8%)	4(0.9%)	7(1.4%)	15(1.0%)
중국정부/WHO 비유용한 정보	22(4.4%)	16(3.4%)	12(2.3%)	50(3.4%)
전체	495(33.5%)	465(31.5%)	516(35.0%)	1476(100%)

갈등/불만 프레임은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 104건(44.3%), 정부/지자체/유관기관-종교단체 52건(22.1%), 정치권 갈등(여-야, 보수-진보) 32건(13.6%), 정부/지자체-의료계 31건(13.2%) 순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종교단체-시민 5건(2.1%),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 5건(2.1%), 확진자 개인정보 관련 3건(1.3%), 정부/유관기관-지자체 1건(0.4%), 시민-시민 1건(0.4%), 정부/지자체/유관기관-언론 1건(0.4%)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 코로나19 방송보도: 갈등/불만 프레임(N=235, 다중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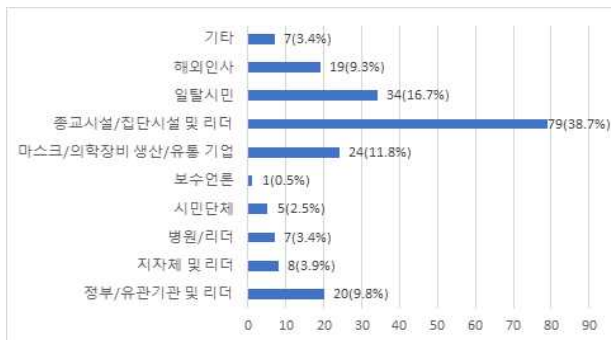
방송사별 갈등/불만 프레임의 경우에 KBS1은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가 35건(46.7%)으로 가장 높은 보도건수를 나타냈고, MBC도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 34건(41.0%), SBS 역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가 35건(45.5%)으로 가장 높은 보도건수를 보였다.

〈표 4-9〉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

	KBS1	MBC	SBS	전체
정치권 갈등	13(17.3%)	10(12.0%)	9(11.7%)	32(13.6%)
정부/유관기관-지자체	-	1(1.2%)	-	1(0.4%)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	35(46.7%)	34(41.0%)	35(45.5%)	104(44.3%)
시민-시민	-	-	1(1.3%)	1(0.4%)
정부/지자체-의료계	7(9.3%)	11(13.3%)	13(16.9%)	31(13.2%)
정부/지자체/유관기관-종교단체	16(21.3%)	22(26.5%)	14(18.2%)	52(22.1%)
종교단체-시민	1(1.3%)	2(2.4%)	2(2.6%)	5(2.1%)
정부/지자체/유관기관-언론	-	1(1.2%)	-	1(0.4%)
확진자 개인정보 관련	1(1.3%)	1(1.2%)	1(1.3%)	3(1.3%)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	2(2.7%)	1(1.2%)	2(2.6%)	5(2.1%)
전체	75(31.9%)	83(35.3%)	77(32.8%)	235(100%)

도덕성 비판 프레임은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 79건(38.7%), 일탈시민 34건(16.7%), 마스크/의학장비 생산/유통 기업 24건(11.8%), 해외 인사 19건(9.3%), 지자체 및 리더 8건(3.9%), 병원/리더 7건(3.4%), 기타 7건(3.4%), 시민단체 5건(2.5%), 보수언론 1건(0.5%)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코로나19 방송보도: 도덕성 비판 프레임(N=204, 다중분류)



방송사별 도덕성 비판 프레임의 경우에 KBS1은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가 19건(35.2%)으로 가장 높은 보도건수를 나타냈고, MBC도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 34건(40.5%), SBS 역시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 26건(39.4%)으로 가장 높은 보도건수를 보였다.

〈표 4-10〉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

	KBS1	MBC	SBS	전체
정부/유관기관 및 리더	8(14.8%)	7(8.3%)	5(7.6%)	20(9.8%)
지자체 및 리더	3(5.6%)	2(2.4%)	3(4.5%)	8(3.9%)
병원/리더	3(5.6%)	3(3.6%)	1(1.5%)	7(3.4%)
시민단체	2(3.7%)	2(2.4%)	1(1.5%)	5(2.5%)
보수언론	-	1(1.2%)	-	1(0.5%)
마스크/의학장비 생산/유통 기업	6(11.1%)	12(14.3%)	6(9.1%)	24(11.8%)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	19(35.2%)	34(40.5%)	26(39.4%)	79(38.7%)
일탈시민	8(14.8%)	15(17.9%)	11(16.7%)	34(16.7%)
해외인사	4(7.4%)	7(8.3%)	8(12.1%)	19(9.3%)
기타	1(1.9%)	1(1.2%)	5(7.6%)	7(3.4%)
전체	54(26.5%)	84(41.2%)	66(32.4%)	204(100%)

### 3.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논조

국내 방송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 논조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 24건(1.6%), 부정 541건(37.0%), 중립 898건(61.4%)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1은 긍정 12건(2.6%), 부정 152건(32.5%), 중립 303건(64.9%), MBC는 긍정 8건(1.6%), 부정 213건(43.2%), 중립 272건(55.2%), 그리고 SBS는 긍정 4건(0.8%), 부정 176건(35.0%), 중립 323건(64.2%)으로 나타나 KBS1과 MBC, SBS 모두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에 있어서 중립이 긍정이나 부정에 비해 높았다.

<표 4-11>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논조

	긍정	부정	중립	전체
KBS1	12(2.6%)	152(32.5%)	303(64.9%)	467(100%)
MBC	8(1.6%)	213(43.2%)	272(55.2%)	493(100%)
SBS	4(0.8%)	176(35.0%)	323(64.2%)	503(100%)
전체	24(1.6%)	541(37.0%)	898(61.4%)	1463(100%)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프레임별 방송 보도논조를 살펴보았다. 우선 형식적 프레임의 경우에 사건중심 프레임은 긍정 16건(1.4%), 부정 387건(33.9%), 중립 740건(64.7%), 주제중심 프레임의 경우에는 긍정 8건(2.5%), 부정 153건(48.3%), 중립 156건(49.2%)으로 나타나 사건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 모두 중립적 논조가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보였다.

<표 4-12> 코로나19 재난방송의 형식적 프레임에 따른 보도 논조

	긍정	부정	중립	전체
사건중심	16(1.4%)	387(33.9%)	740(64.7%)	1143(100%)
주제중심	8(2.5%)	153(48.3%)	156(49.2%)	317(100%)
혼합	-	1(50.0%)	1(50.0%)	2(100%)
기타	-	-	1(100%)	1(100%)
전체	24(1.6%)	541(37.0%)	898(61.4%)	1463(100%)

내용적 프레임의 경우에 의료/방역 프레임은 긍정 24건(2.3%), 부정 218건(21.2%), 중립 788건(76.5%)으로 중립적 논조가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냈고, 갈등/불만 프레임은 부정 134건(57.5%), 중립 99건(42.5%), 도덕성 비판 프레임은 부정 187건(94.9%), 중립 10건(5.1%)으로 갈등/불만 프레임과 도덕성 비판 프레임은 모두 중립적 논조보다는 부정적 논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에 따른 보도 논조

	긍정	부정	중립	전체
의료/방역	24(2.3%)	218(21.2%)	788(76.5%)	1030(100%)
갈등/불만	-	134(57.5%)	99(42.5%)	233(100%)
도덕성 비판	-	187(94.9%)	10(5.1%)	197(100%)
전체	24(1.6%)	539(36.9%)	897(61.4%)	1460(10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방역 프레임의 경우에 국내 질병역학은 긍정 2건(0.5%), 부정 52건(11.9%), 중립 384건(87.7%), 진단/치료는 긍정 3건(1.3%), 부정 23건(10.3%), 중립 197건(88.3%), 사회적 확산 관리는 긍정 2건(0.6%), 부정 35건(10.3%), 중립 304건(89.1%), 개인 대처/참여는 긍정 4건(4.9%), 부정 12건(14.6%), 중립 66건(80.5%), 사회적 공동노력은 긍정 18건(20.5%), 부정 4건(4.5%), 중립 66건(75.0%), 해외 유용한 정보는 부정 83건(39.2%), 긍정 129건(60.8%)으로 중립적 논조가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냈다. 또한, 인권침해 정보는 중립 7건(100%), 허위/부정확 예방/치료 정보는 부정 13건(59.1%), 중립 9건(40.9%), 추측/과장/자극적 용어 사용은 부정 11건(73.3%), 중립 4건(26.7%), 중국정부/WHO 비유용한 정보는 부정 38건(74.5%), 중립 13건(25.5%)으로 인권침해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 논조가 많은 보도건수를 보였다.

<표 4-14>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의료/방역 프레임(다중분류)

	긍정	부정	중립	전체
국내 질병역학	2(0.5%)	52(11.9%)	384(87.7%)	438(100%)
진단/치료	3(1.3%)	23(10.3%)	197(88.3%)	223(100%)
사회적 확산 관리	2(0.6%)	35(10.3%)	304(89.1%)	341(100%)
개인 대처/참여	4(4.9%)	12(14.6%)	66(80.5%)	82(100%)
사회적 공동노력	18(20.5%)	4(4.5%)	66(75.0%)	88(100%)
해외 유용한 정보	-	83(39.2%)	129(60.8%)	212(100%)
인권침해 정보	-	-	7(100%)	7(100%)
허위/부정확 예방/치료 정보	-	13(59.1%)	9(40.9%)	22(100%)
추측/과장/자극적 용어 사용	-	11(73.3%)	4(26.7%)	15(100%)
중국정부/WHO 비유용한 정보	-	38(74.5%)	13(25.5%)	51(100%)

갈등/불만 프레임의 경우에 정치권 갈등은 부정 7건(21.9%), 중립 25건(78.1%), 종교단체-시민은 부정 2건(40.0%), 중립 3건(60.0%),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는 부정 1건(20.0%), 중립 4건(80.0%)으로 정치권 갈등, 종교단체-시민,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는 중립적 논조가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냈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는 부정 63건(60.6%), 중립 41건(39.4%), 정부/지자체-의료계는 부정 23건(74.2%), 중립 8건(25.8%), 정부/지자체/유관기관-종교단체는 부정 35건(67.3%), 중립 17건(32.7%)으로 부정적 논조가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냈다.

<표 4-15>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다중분류)

	긍정	부정	중립	전체
정치권 갈등	-	7(21.9%)	25(78.1%)	32(100%)
정부/유관기관-지자체	-	1(100%)	-	1(100%)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	-	63(60.6%)	41(39.4%)	104(100%)
시민-시민	-	-	1(100%)	1(100%)
정부/지자체-의료계	-	23(74.2%)	8(25.8%)	31(100%)
정부/지자체/유관기관-종교단체	-	35(67.3%)	17(32.7%)	52(100%)
종교단체-시민	-	2(40.0%)	3(60.0%)	5(100%)
정부/지자체/유관기관-언론	-	1(100%)	-	1(100%)
언론-언론	-	-	-	-
언론-시민/시민단체	-	-	-	-
확진자 개인정보 관련	-	1(50.0%)	1(50.0%)	2(100%)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	-	1(20.0%)	4(80.0%)	5(100%)

도덕성 비판 프레임의 경우에 정부/유관기관 및 리더는 부정 18건(90.0%), 중립 2건(10.0%), 지자체 및 리더는 부정 7건(87.5%), 중립 1건(12.5%), 병원/리더는 부정 6건(85.7%), 중립 1건(14.3%), 시민단체는 부정 5건(100%), 보수언론 1건(100%), 마스크/의학적 장비 생산/유통 기업은 부정 24건(100%),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는 부정 76건(96.2%), 중립 3건(3.8%), 일탈시민 32건(94.1%), 중립 2건(5.9%), 해외인사는 부정 17건(89.5%), 중립 2건(10.5%), 기타 7건(100%)으로 모두 부정적 논조가 많은 보도건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다중분류)

	긍정	부정	중립	전체
정부/유관기관 및 리더	-	18(90.0%)	2(10.0%)	20(100%)
지자체 및 리더	-	7(87.5%)	1(12.5%)	8(100%)
병원/리더	-	6(85.7%)	1(14.3%)	7(100%)
시민단체	-	5(100%)	-	5(100%)
보수언론	-	1(100%)	-	1(100%)
진보언론	-	-	-	-
마스크/의학적 장비 생산/유통 기업	-	24(100%)	-	24(100%)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	-	76(96.2%)	3(3.8%)	79(100%)
일탈시민	-	32(94.1%)	2(5.9%)	34(100%)
해외인사	-	17(89.5%)	2(10.5%)	19(100%)
기타	-	7(100%)	-	7(100%)

#### 4.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기사유형

국내 방송의 코로나19 재난방송 기사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는 1174건(80.2%), 기획/르포 195건(13.3%), 해설/논평 55건(3.8%), 인터뷰중심 39건(2.7%)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1은 스트레이트 377건(80.7%), 기획/르포 45건(9.6%), 해설/논평 14건(3.0%), 인터뷰중심 31건(6.6%), MBC는 스트레이트 390건(79.1%), 기획/르포 83건(16.8%), 해설/논평 17건(3.4%), 인터뷰중심 3건(0.6%), SBS는 스트레이트 407건(80.9%), 기획/르포 67건(13.3%), 해설/논평 24건(4.8%), 인터뷰중심 5건(1.0%)으로 나타나 KBS1과 MBC, SBS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방송사별 코로나19 재난방송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중심	전체
KBS1	377(80.7%)	45(9.6%)	14(3.0%)	31(6.6%)	467(100%)
MBC	390(79.1%)	83(16.8%)	17(3.4%)	3(0.6%)	493(100%)
SBS	407(80.9%)	67(13.3%)	24(4.8%)	5(1.0%)	503(100%)
전체	1174(80.2%)	195(13.3%)	55(3.8%)	39(2.7%)	1463(100%)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프레임별 기사유형을 살펴보았다. 우선 형식적 프레임의 경우에 사건중심 프레임은 스트레이트 1133건(99.2%), 기획/르포 3건(0.3%), 해설/논평 3건(0.3%), 인터뷰중심 3건(0.3%)으로 스트레이트가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보였고, 주제중심 프레임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40건(12.6%), 기획/르포 191건(60.1%), 해설/논평 52건(16.4%), 인터뷰중심 35건(11.0%)으로 기획/르포가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냈다. 혼합 프레임은 스트레이트 1건(50.0%), 기획/르포 1건(50.0%), 기타는 인터뷰중심 1건(100%)으로 조사되었다.

<표 4-18> 코로나19 재난방송의 형식적 프레임에 따른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중심	전체
사건중심	1133(99.2%)	3(0.3%)	3(0.3%)	3(0.3%)	1142(100%)
주제중심	40(12.6%)	191(60.1%)	52(16.4%)	35(11.0%)	318(100%)
혼합	1(50.0%)	1(50.0%)	-	-	2(100%)
기타	-	-	-	1(100%)	1(100%)
전체	1174(80.2%)	195(13.3%)	55(3.8%)	39(2.7%)	1463(100%)

내용적 프레임의 경우에 의료/방역 프레임은 스트레이트 853건(82.8%), 기획/르포 101(9.8%), 해설/논평 42건(4.1%), 인터뷰중심 34건(3.3%), 갈등/불만 프레임은 스트레이트 166건(71.2%), 기획/르포 58건(24.9%), 해설/논평 7건(3.0%), 인터뷰중심 2건(0.9%), 도덕성 비판 프레임은 스트레이트 155건(78.7%), 기획/르포 35건(17.8%), 해설/논평 4건(2.0%), 인터뷰중심 3건(1.5%)으로 갈등/불만 프레임과 도덕성 비판 프레임 모두 스트레이트가 높은 보도건수를 나타냈다.

<표 4-19>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에 따른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중심	전체
의료/방역	853(82.8%)	101(9.8%)	42(4.1%)	34(3.3%)	1030(100%)
갈등/불만	166(71.2%)	58(24.9%)	7(3.0%)	2(0.9%)	233(100%)
도덕성 비판	155(78.7%)	35(17.8%)	4(2.0%)	3(1.5%)	197(100%)
전체	1174(80.4%)	194(13.3%)	53(3.6%)	39(2.7%)	1460(10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방역 프레임의 경우에 국내 질병역학은 스트레이트 378건(86.3%), 기획/르포 32건(7.3%), 해설/논평 11건(2.5%), 인터뷰중심 17건(3.9%), 진단/치료는 스트레이트 172건(77.1%), 기획/르포 17건(7.6%), 해설/논평 20건(9.0%), 인터뷰중심 14건(6.3%), 사회적 확산 관리는 스트레이트 289건(84.8%), 기획/르포 33건(9.7%), 해설/논평 11건(3.2%), 인터뷰중심 8건(2.3%), 개인 대처/참여는 스트레이트 63건(76.8%), 기획/르포 10건(12.2%), 해설/논평 3건(3.7%), 인터뷰중심 6건(7.3%), 사회적 공동노력은 스트레이트 69건(78.4%), 기획/르포 12건(13.6%), 해설/논평 2건(2.3%), 인터뷰중심 5건(5.7%), 해외 유용한 정보는 스트레이트 180건(84.9%), 기획/르포 19건(9.0%), 해설/논평 5건(2.4%), 인터뷰중심 8건(3.8%)으로 나타나 의료/방역 프레임 모두 스트레이트가 많은 보도건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별 기사유형: 의료/방역 프레임(다중분류)

	스트레이트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중심	전체
국내 질병역학	378(86.3%)	32(7.3%)	11(2.5%)	17(3.9%)	438(100%)
진단/치료	172(77.1%)	17(7.6%)	20(9.0%)	14(6.3%)	223(100%)
사회적 확산 관리	289(84.8%)	33(9.7%)	11(3.2%)	8(2.3%)	341(100%)
개인 대처/참여	63(76.8%)	10(12.2%)	3(3.7%)	6(7.3%)	82(100%)
사회적 공동노력	69(78.4%)	12(13.6%)	2(2.3%)	5(5.7%)	88(100%)
해외 유용한 정보	180(84.9%)	19(9.0%)	5(2.4%)	8(3.8%)	212(100%)
인권침해 정보	6(85.7%)	-	1(14.3%)	-	7(100%)
부허위/부정확 예방/치료 정보	8(36.4%)	7(31.8%)	7(31.8%)	-	22(100%)
추측/과장/자극적 용어 사용	12(80.0%)	1(6.7%)	2(13.3%)	-	15(100%)
중국정부/WHO 비유용한 정보	43(84.3%)	6(11.8%)	1(2.0%)	1(2.0%)	51(100%)

갈등/불만 프레임의 경우에 정치권 갈등은 스트레이트 31건(96.9%), 해설/논평 1건(3.1%), 정부/유관기관-지자체는 스트레이트 1건(100%),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는 스트레이트 64건(61.5%), 기획/르포 34건(32.7%), 해설/논평 4건(3.8%), 인터뷰중심 2건(1.9%), 시민-시민은 기획/르포 1건(100%), 정부/지자체-의료계는 스트레이트 16건(51.6%), 기획/르포 14건(45.2%), 해설/논평 1건(3.2%), 정부/지자체/유관기관-종교단체는 스트레이트 46건(90.2%), 기획/르포 5건(9.8%), 종교단체-시민은 스트레이트 4건(80.0%), 기획/르포 1건(20.0%), 정부/지자체/유관기관-언론은 스트레이트 1건(100%), 언론-언론은 스트



레이트 166건(71.9%), 기획/르포 56건(24.2%), 해설/논평 7건(3.0%), 인터뷰중심 2건(0.9%), 확진자 개인정보 관련은 기획/르포 2건(66.7%), 해설/논평 1건(33.3%),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는 스트레이트 4건(80.0%), 기획/르포 1건(20.0%)으로 갈등/불만 프레임 대부분에서 스트레이트가 많은 보도건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별 기사유형: 갈등/불만 프레임(다중분류)

	스트레이트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중심	전체
정차권 갈등	31(96.9%)	-	1(3.1%)	-	32(100%)
정부/유관기관-지자체	1(100%)	-	-	-	1(100%)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	64(61.5%)	34(32.7%)	4(3.8%)	2(1.9%)	104(100%)
시민-시민	-	1(100%)	-	-	1(100%)
정부/지자체-의료계	16(51.6%)	14(45.2%)	1(3.2%)	-	31(100%)
정부/지자체/유관기관-종교단체	46(90.2%)	5(9.8%)	-	-	51(100%)
종교단체-시민	4(80.0%)	1(20.0%)	-	-	5(100%)
정부/지자체/유관기관-언론	1(100%)	-	-	-	1(100%)
언론-언론	166(71.9%)	56(24.2%)	7(3.0%)	2(0.9%)	231(100%)
언론-시민/시민단체	-	-	-	-	-
확진자 개인정보 관련	-	2(66.7%)	1(33.3%)	-	3(100%)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	4(80.0%)	1(20.0%)	-	-	5(100%)

도덕성 비판 프레임의 경우에 정부/유관기관 및 리더는 스트레이트 13건(65.0%), 기획/르포 4건(20.0%), 해설/논평 1건(5.0%), 인터뷰중심 2건(10.0%), 지자체 및 리더는 스트레이트 4건(50.0%), 기획/르포 4건(50.0%), 병원/리더는 스트레이트 3건(42.9%), 기획/르포 4건(57.1%), 시민단체는 스트레이트 4건(80.0%), 기획/르포 1건(20.0%), 보수언론은 스트레이트 1건(100%), 마스크/의학장비 생산/유통 기업은 스트레이트 17건(70.8%), 기획/르포 7건(29.2%),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는 스트레이트 68건(86.1%), 기획/르포 9건(11.4%), 해설/논평 1건(1.3%), 인터뷰중심 1건(1.3%), 일탈시민은 스트레이트 28건(82.4%), 기획/르포 4건(11.8%), 해설/논평 2건(5.9%), 해외인사는 스트레이트 17건(89.5%), 기획/르포 2건(10.5%), 기타는 스트레이트 4건(57.1%), 기획/르포 3건(42.9%)으로 도덕성 비판 프레임 대부분에서 스트레이트가 가장 높은 보도건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코로나19 재난방송의 내용적 프레임별 기사유형: 도덕성 비판 프레임(다중분류)

	스트레이트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중심	전체
정부/유관기관 및 리더	13(65.0%)	4(20.0%)	1(5.0%)	2(10.0%)	20(100%)
지자체 및 리더	4(50.0%)	4(50.0%)	-	-	10(100%)
병원/리더	3(42.9%)	4(57.1%)	-	-	7(100%)
시민단체	4(80.0%)	1(20.0%)	-	-	5(100%)
보수언론	1(100%)	-	-	-	1(100%)
진보언론	-	-	-	-	-
마스크/의학장비 생산/유통 기업	17(70.8%)	7(29.2%)	-	-	24(100%)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	68(86.1%)	9(11.4%)	1(1.3%)	1(1.3%)	79(100%)
일탈시민	28(82.4%)	4(11.8%)	2(5.9%)	-	34(100%)
해외인사	17(89.5%)	2(10.5%)	-	-	19(100%)
기타	4(57.1%)	3(42.9%)	-	-	7(100%)

### 제3절 질적 분석결과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에서 주로 사용된 프레임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도 시기별(발생기, 확산기, 대유행기, 재확산기, 안정기)로 코로나19 기사에서 등장한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을 적용, 주요 기사내용을 분석하였다.

#### 1. 코로나19 재난방송 시기별 형식적 프레임 분석

형식적 프레임에서는 사건 중심 프레임(스트레이트), 주제 중심 프레임(심층보도), 혼합 프레임, 기타와 관련된 방송보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건 중심 프레임은 뉴스보도의 목적을 단순 사실 전달에 두고, 이슈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전달하며, 이슈나 사건 발생과 관련된 전체적인 맥락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즉각적인 발생에만 주목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기(2020.01.20.~2020.02.17.)에 사건 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대응 단계 ‘주의’ 격상” (2020.01.20.), “밀접접촉자 추적조사 어떻게?...연휴 앞 두고 방역 비상” (2020.01.20.), “감염병 대응 확대...접역 어떻게 달라지나?” (2020.01.26.), “세 번째 확진환자 ‘안정적’...첫번째, 두 번째 환자 접촉자 ‘음성’” (2020.01.26.), “文대통령, ‘정부 믿고 과도한 불안 갖지 말아 달라’” (2020.01.26.), “방역에 만전, 항공기 탑승, 생활시설 검역 방법은?” (2020.01.29.) 등의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KBS1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에 따른 주의와 경고,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4-5]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대응 단계 ‘주의’ 격상” (2020.01.20.)  
 [앵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여객기를 타고 여행은 중국 국적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정부는 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고, 방역대책 본부를 가동 중인데요...(중략)... [기자] 네, 이

곳 인천의료원에 첫 확진 환자가 있습니다. 격리 병동에서 치료가 이뤄지는 만큼 현재 왜라나 입원 환자 등에 대한 통상적인 진료 행위는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중략)...오늘(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35살 여성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 18일인 토요일, 이미 중국 우한 현지에서 발열과 오한,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중국에서 감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기자] 네, 다행히 환자 상태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초 발열과 함께 기침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처음보다는 나아졌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설명입니다. 병원 6층 음압 병상은 현재 통제된 상태로 일부 의료진만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생략)..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일본 등의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에 따른 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中 폐렴 국내 첫 확진...中 여성 공항서 바로 격리” (2020.02.20.), “첫 무증상 확진환자 입국...전파 가능성 높아져, 대응 어떻게?” (2020.01.26.), “中 전염력 점점 강해져...우한시 병원 마비, 현재 상황은?” (2020.01.26.), “우한 체류 교민 500여 명...정부, 전세기 투입 추진” (2020.01.26.), “일본은 어떻게? 유증상자 병원, 무증상자 자택 격리” (2020.01.29.), “중국 신종 코로나, 사스 환자 수 넘었다...‘열흘이 최대 고비’” (2020.01.29.), “일본서 첫 ‘3차 감염’ 의심..차원 다른 국면 대비” (2020.02.01.), “우한시 서기 ‘양심의 가책’..中 환자, 사망자 최고치 경신” (2020.02.01.), “접촉자 1,300여 명...‘미확인’ 우한 입국자 5명 추적 중” (2020.02.07.), “통제 불능, 日 ‘크루즈 99명 또 확진..美크 승객 300명 ‘첫 탈출’” (2020.02.17.), “크루즈 밤 日 확진도 65명...택시기사 뺏놀이 ‘진원’” (2020.02.17.) 등이다.

[그림 4-6]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2)



“中 전염력 점점 강해져...우한시 병원 마비, 현재 상황은?” (2020.01.26.)

[앵커] 이번에는 이번 사태의 진원지, 중국 상황 알아봅니다. 확진 환자가 벌써 2천 명을 넘어설 만큼 대륙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라는데,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중략)... [기자] 네, 확진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중략)...중국 공식 발표

로는 확진 환자가 2천 명을 넘어섰구요. 사망자는 56명입니다. 후베이성은 물론이고, 저장성과 광둥성, 허난성, 충칭 등에서 거의 100명 가까운 확진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한시

병원이 거의 마비다시피 한 영상도 어제(25일) 보도했는데, 오늘(26일) 우한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중략)...한편 우한시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외국인들의 탈출 행렬도 시작됐는데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전세기 등을 이용해 자국민 대피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반면에 MBC와 SBS는 KBS1과 다른 보도성향을 보였는데, MBC와 SBS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초점을 맞춰 확진자 수, 확산 현황, 대처상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상’, ‘강력 대처’, ‘합정’, ‘골머리’, ‘병상 부족’, ‘사망자 000명 돌파’ 등의 용어를 쓰면서 해외의 급박한 코로나19 확산을 보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MBC는 “中 폐렴 국내 첫 확진...中 여성 공황서 바로 격리” (2020.01.20.), “中 환자 ‘폭발적’ 확산..방역망도 신뢰도 다 풀려” (2020.01.20.), “中 확진 ‘6백 명’ 넘었다..지구 반대편도 의심 환자” (2020.01.23.), “공황에선 증상 없었다..잠복기 합정 현실화?” (2020.01.26.), “감염 확산 가능성은?...‘최악 상황 대비해야’” (2020.01.26.), “美도 격리...日은 자율 대기, 한국처럼 왜 안 하나” (2020.01.29.), “폐렴 증상 있어야만 격리?...‘후베이성’ 아니면 느슨” (2020.01.29.), “독감에 놀란 미국..‘신종 코로나’에 강력 대처” (2020.02.01.), “2주간 열, 기침 없습니다...우한 입국자 격리 해제” (2020.02.10.), “모두 격리? 자율 격리?...中 유학생 대학들 골머리” (2020.02.13.)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림 4-7] 코로나19 발생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中 환자 ‘폭발적’ 확산..방역망도 신뢰도 다 풀려” (2020.01.20.)**

[앵커] 중략...이제 곧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인데 요. 중국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는 현재 201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렇게 사흘 동안만 각각 17, 59, 그리고 77명. 이렇게 무려 153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한 명 늘어서 3명입니다. 환자가

폭증한 이유에 대해 중국 당국은 좀 더 최적화된 검사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이런 설명은 우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무색해졌습니다...(중략)... 베이징 서역:...(중략)...또한 상하이 남쪽인 저장성의 여러 도시에서도 우한에 다녀온 사람 5명이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 치료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첫 환자는 작년말에 나왔는데, 우한의 공황과 기차역에 대한 통제는 보름이 넘게 지난 후에야 시작하는

등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입니다...(중략)...SNS 상에는 우한당국이 이미 사스와 유사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공유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SBS는 “우한 코로나 증상자 1명 추가 확인..공황 방역 비상” (2020.01.20.), “우한 코로나 잠복기 증상 無..병원, 지자체 대응 중요” (2020.01.20.), “우한 코로나 中 환자 벌써 200명 ↑..정보 공개엔 미적” (2020.01.20.), “中‘확진 환자 201명 중 44명 위중’..국내 차단 어떻게?” (2020.01.20.), “우한 코로나 막자, 설 앞두고 전국 방역 초비상” (2020.01.23.), “인천~우한 운항 중단..감염 격정에 中 여행 취소 급증” (2020.01.23.), “우한 코로나 위험성 숙지..의심되면 바로 1339 신고” (2020.01.26.), “우한 탈출, 日 전세기 도쿄 도착...12명 발열, 기침” (2020.01.29.), “중국 간 적 없는데 확진...2차 감염 세계 곳곳 경고 등” (2020.01.29.), “中 사망자 900명 돌파..산동성 한국 교민 3명 확진” (2020.02.10.), “늑장 대처에 우왕좌왕..‘재해각국’ 일본 왜 이러나” (2020.02.10.), “광둥성도 감염됐는데 ‘후베이만 입국 제한’, 랜찰을까” (2020.02.10.), “코로나19 국내 추가 환자 없지만..중국 상황이 관건” (2020.02.13.), “턱없이 부족한 中 의료시설...SNS로 ‘병상 구해요’” (2020.02.17.)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림 4-8]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中 사망자 900명 돌파..산동성 한국 교민 3명 확진” (2020.02.10.)**

[앵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 사망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략)... [기자] ...중략...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체온을 재고, 실명 등록도 해서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중략)...[앵커] 마냥 복귀를 늘출 수만은 없을 텐데 이번 주 확산의 중요한 고비가 되겠군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4일이라고 중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 원사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 잠복기 14일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그만큼 격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이 앞으로 4주간 혹독한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중략)...[기자] ..중략...중국서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교민은 처음인데 현재까지 전체 외국인 사례는 27명입니다. 그중 미국인, 일본인 2명이 숨졌고 3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전체 확진자는 4만 2백여 명, 사망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생략)...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산기(2020.02.18.~2020.02.27.)에 사건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의 경우에 “환자 상태 ‘안정적’, 2명 더 퇴원..마스크, 소독제 등 지원” (2020.20.18.),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늘어 총 204명...대부분 대구경북” (2020.02.21.), “확진자 급증 ‘대구경북’, 시설 폐쇄, 행사 취소 잇따라” (2020.02.21.), “확진자 70% ‘신천지 연관’..대구신도 500여 명 ‘증상 있다’” (2020.02.21.), “폐쇄, 소독조치...전국 지자체,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 (2020.02.21.), “서울 종로 집단감염 연결고리는 ‘교회, 노인복지관’” (2020.02.21.), “靑 ‘심각단계 준해 엄정 대응’..‘심각’ 격상 시 부작용은?” (2020.02.21.), “서울시 ‘광화문 등 도심 집회 금지’...일부 단체 ‘집회 강행’” (2020.02.21.), “코로나19 확진 231명 늘어 833명...사망 8명, 중증 10여 명” (2020.02.24.), “대구 확진자 절반 가량 ‘자가격리’..병상 부족 심화”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KBS1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신천지 등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시설이 폐쇄되거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전반적 상황이 엄중함을 경고하는 보도경향을 보였다.

[그림 4-9] 코로나19 확산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확진자 급증 ‘대구경북’, 시설 폐쇄, 행사 취소 잇따라” (2020.02.21.)**

[앵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오늘(21일)만 8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확진환자가 크게 늘면서 각종 시설이 폐쇄되고...(중략)...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대구 80명, 경북 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53명으로 늘었습니다...중략...과잉된 신천지 대구교인은 9천335명입니다...(중략)... [앵커] 네, 그럼 확진환자들의 상태 궁금한데, 혹시 중증 환자도 있나요? [기자] ...(중략)...중앙방역대책본부도 6~7명의 환자가 비교적 중증환자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매일 급증하면서 대구의 경우는 음압병동이 이미 동이 난 상황입니다...(중략)...[앵커] 확진자가 계속 늘어 걱정인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다음 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0주년 2.28민중운동 기념식을 취소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 미사를 중단한 것을 비롯해 대구지역 대부분 교회와 향교 등에서도 일체의 예배와 모임 등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생략)...

MBC의 경우에는 “해의 나간 적도 접촉한 적도 없는데..새로운 국면” (2020.02.18.), “확진 1백 명 추가돼 204명..메르스 확진자 넘어서” (2020.02.21.), “첫 의료인 집단 감염..고령 입원자 많아 걱정” (2020.02.21.), “의심 증상 없어도...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모두 검사” (2020.02.24.), “성지 순례단 또 무더기 확진...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2020.02.24.), “확진자 5백여 명 추가..자택서 입원 대기 중이던 70대 사망” (2020.02.27.),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검찰에 이만희 고발”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보듯이, 확진자 수나 사망사례, 코호트 격리 등을 통해 신천지 발 코로나19의 확산과 심각성을 보도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10] 코로나19 확산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성지 순례단 또 무더기 확진...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2020.02.24.)**

[앵커] ...중략..부산에서도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22명 늘었고 특히 부산 지역 최초 확진자가 다녀간 온천 교회에서 환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중략)... [기자] ...중략..부산에선 오늘(24) 하루동안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38명인데, 이 중 22명은 동래구 온천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중략)...이 수련회에는 1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중략)... [기자] ...중략..부산시는 이 50대 여성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병원 전체를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입니다...(중략)...부산시 역학 조사 결과, 확진 관정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요양병원 모든 층을 다닌 것으로 나타나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생략)...

SBS의 경우에는 “31번 환자 방문 ‘병원, 교회, 호텔’ 폐쇄..대구 ‘기장’” (2020.02.18.), “새로운 국면..보건당국, ‘지역사회 감염 시작’ 인정” (2020.02.18.), “文, 비상경제 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수단 총동원” (2020.02.18.), “대구경북서만 83명...코로나19 확진자 총 204명” (2020.02.21.), “대구 신천지 544명 증상 호소...383명은 ‘연락 두절’” (2020.02.21.), “전체 환자 70% 신천지 관련..서울, 경남, 광주까지 번졌다” (2020.02.21.), “육해공군도 뚫렸다..내일부터 휴가, 외박 금지” (2020.02.21.), “한국인 입국자, 경계하는 나라들..여행 주의령도” (2020.02.21.), “대구 못 막으면 전국 확산...감기 환자 전수조사” (2020.02.24.), “대구 신천지

다녀왔다. 횡령 조사 중 거짓말 구속” (2020.02.27.), “신천지 유증상자 속출...경찰, 소재 불명 교인들 추적”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 신천지 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과 ‘연락두절’, ‘전체 환자 70% 신천지 관련’, ‘못 막으면 전국 확산’, ‘소재불명 교인 추적’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11] 코로나19 확산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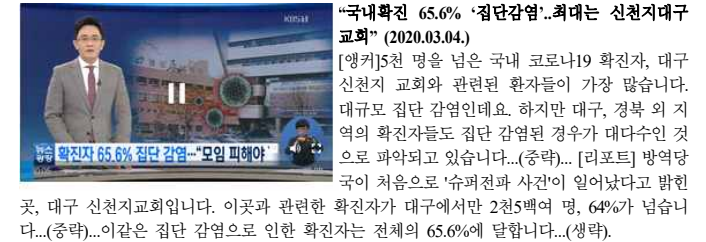


국은 오늘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4천4백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오후 6시 기준 383명과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중략...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다른 지역 교인들을 상대로 질병관리본부 등에 자진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생략)...

코로나19 대유행기(2020.03.01.~2020.03.19.)에 사건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 3,260명...3명 추가 사망” (2020.03.01.), “수도권 누적 확진자 182명...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2020.03.01.), “코로나19 차단 ‘온라인 예배’..범투분 등 일부 교회 ‘예배 강행’” (2020.03.01.), “국내 확진 65.6%는 ‘집단감염’..최대는 ‘신천지대구교회’” (2020.03.04.), “학원 감염 현실로..그래도 학생들 학원으로” (2020.03.04.), “휴일·휴식도 잊고..의료진 피로도 누적 ‘비상’” (2020.03.04.), “설 틈없이 환자 이송...병과 맞서는 소방관들” (2020.03.04.), “부족한 생활치료센터, 저희도 힘 보태요” (2020.03.04.), “경산 등 경북 요양시설 집단 감염 ‘계속 확산’..출입점점, 신고담당자 지경” (2020.03.07.), “대구, 안심 상황 아냐..당분간 ‘집중관리’” (2020.03.07.), “신천지 신도 허술한 관리..추가감염 우려 없나?” (2020.03.10.), “文 ‘국민 삶 무너지는 것 막겠다’...50조원

‘서민금융’” (2020.03.19.), “끝 모를 추가급락..또 사이트카·서킷브레이커 동시 발동” (2020.03.19.), “유럽 ‘2차대전 후 최대 위기’...긴급 예산편성” (2020.03.19.)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천지발 대유행과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뉴스들을 주로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나 소방관 등 방역 관련 인력들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과 노고 등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국내의 경제 위기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12] 코로나19 대유행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MBC의 경우에는 “강릉서 기숙사 격리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확진’” (2020.03.01.), “‘비자 신청 취소하라’..한국인 입국 거부?” (2020.03.01.), “美 ‘대구 여행 금지’ 권고..첫 사망자 발생” (2020.03.01.), “역대 4번째 ‘슈퍼’ 코로나 추정...돈 풀어 경기 회복” (2020.03.04.), “저소득층에 현금지원 주장..‘경기 활성화’ 효과는?” (2020.03.04.), “신천지와 연결고리 끊어라..지역 감염 차단” (2020.03.04.), “신천지 명단 누락 의혹..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2020.03.04.), “이 시각 대구 한마을 아파트..출입 엄격하게 ‘통제’” (2020.03.07.), “요양시설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1300여 명 미검사’” (2020.03.10.), “세계 곳곳 비상조치..WHO ‘세계적 유행 위협 현실화’” (2020.03.10.), “추가 확진 다시 세자릿수..해의 재유입 우려” (2020.03.19.), “남미에서 유럽에서..비상 걸린 귀국길” (2020.03.19.) 등의 기사를 통해 해외의 주요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와 여행 금지 등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 경제 위기, 신천지 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 해외 감염확산 및 해외의 교민 국내 유입 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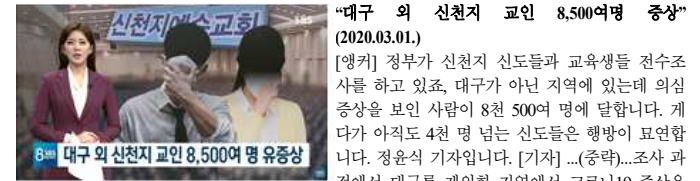
[그림 4-13]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데 한국의 경우 '대구'라고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명시했습니다. 이미 여행금지 국가인 이란에 대해선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진지해졌습니다...(생략)...

SBS는 “입원대기 1천 500여 명.. ‘이달 초 중대 고비’” (2020.03.01.), “13살, 8살, 2살, 45 일.. 커지는 소아·청소년 감염 우려” (2020.03.01.), “대구 외 신천지 교인 8,500여명 증상” (2020.03.01.), “우환발 교인 없다더니... 신천지 주장 뒤집은 조사결과” (2020.03.01.), “中, 대구·경북발 ‘무조건 격리’... 韓 방역 수준 지적도” (2020.03.01.), “마스크 구매 오늘도 긴 줄.. 다음 주엔 시스템 구축” (2020.03.04.), “다 취소야! 텅빈 예약 장부.. 30년 맞집도 코로나 피해” (2020.03.04.), “11.7조 코로나 슈퍼 추경... 정부 ‘비상시국 돌파해야’” (2020.03.04.), “대구서 아파트 첫 ‘통째 격리’... 확진 46명 모두 신천지” (2020.03.07.), “구로구 콜센터 관련 70여 명 확진.. 수도권 최대 집단 감염” (2020.03.10.), “요양시설 특별 점검... 신천지 교인 근무지 ‘주목’” (2020.03.10.), “산골 오지 마을서 11명 확진.. 감염 경로 오리무중” (2020.03.10.), “끝 모를 추락 코스피 1,460선 붕괴... 환율 40원 급등” (2020.03.19.), “신용경색 기업들 자금 조달 어려움.. 채권 펀드 조성” (2020.03.19.), “트럼프 난 전시 대통령... 민간에 의료용품 생산 명령” (2020.03.19.), “유럽도 ‘전시 태세’.. 루이비통, 향수 대신 소독제 생산” (2020.03.19.)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신천지 발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경기 하락 우려, 해외의 코로나19 관련 대처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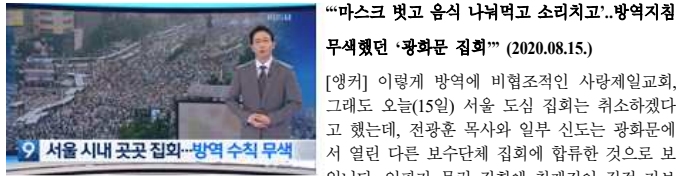
[그림 4-14] 코로나19 대유행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보인 신천지 관련자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구 외 지역의 신천지 교인 8천 563명이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신천지 교육생 393명도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중략)... 방역 당국은 신천지 교인 4천여 명은 소계가 불명확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경찰과 협조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확산기(2020.08.15~2020.10.11.)에 사건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마스크 벗고 음식 나눠먹고 소리치고’.. 방역지침 무색했던 ‘광화문 집회’” (2020.08.15.), “포항 이어 파주에서도 ‘사랑제일교회’ 확진 신도 무단이탈” (2020.08.18.), “경기 236개교 등교수업 중단.. ‘학원 휴원 강력 권고’” (2020.08.18.), “부산서 또 7명 추가 확진... ‘조용한 전파’ 비상” (2020.08.18.), “‘역할조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압수 수색... 전광환 ‘바이러스 테러’” (2020.08.21.), “대전 ‘광복절 집회 자료’ 확보.. 참가자 831명 중 200여 명 미검사” (2020.08.21.), “교회 방문 ‘쉬쉬’, 뒤늦게 GPS로 확인.. ‘방심’이 3단계 격상 초래” (2020.08.27.),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사용예.. 인적 끊긴 도심’ (2020.09.01.), “‘남은 연휴, 집회·지인 모임·종교활동이 3대 위험 요인’ (2020.10.02.), “‘한글날 집회’ 못 연다.. ‘코로나 방지 심각한 어려움 야기’” (2020.10.08.), “‘한글날 연휴 10만 명 제주 방문... 방역 고삐, 다시 쥘다’ (2020.10.08.)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제일교회 및 광복절 집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확산과 심각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15] 코로나19 재확산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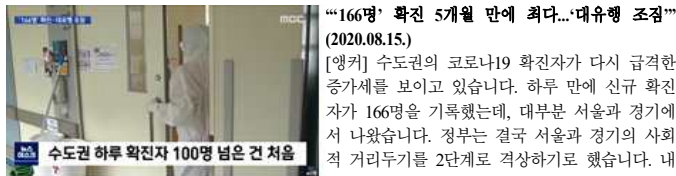
“마스크 벗고 음식 나눠먹고 소리치고..방역지침 무시했던 ‘광화문 집회’” (2020.08.15.)

[앵커] 이렇게 방역에 비협조적인 사랑제일교회, 그래도 오늘(15일) 서울 도심 집회는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전광훈 목사와 일부 신도는 광화문에서 열린 다른 보수단체 집회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파가 몰린 집회에 취재진이 직접 가보

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는 참가자들 말이 무색하게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을 나눠먹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리포트] 세종대로 4거리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람들이 빈틈없이 빠르게 채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열린 보수 성향 단체 집회...(중략)...아예 마스크를 벗고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생략)..

MBC의 경우에도 “‘166명’ 확진 5개월 만에 최다...‘대유행 조짐’” (2020.08.15.), “사랑제일교회 ‘집사 받지 말라’..‘바이러스 테러’ 주장” (2020.08.15.), “신천지보다 더 큰 위기...미·유럽처럼 비참한 상황도” (2020.08.18.), “‘2차 전파’ 들불처럼..경기도 ‘마스크 긴급명령’” (2020.08.18.), “기독교계 ‘자성’..‘전광훈 조치’ 요구도” (2020.08.018), “안전지대가 없다..3단계 격상 검토” (2020.08.21.), “‘사랑제일’ 관련 첫 사망..중환자도 급증” (2020.08.21.), “이 와중에 ‘예배 강행’...‘전광훈을 믿는다’” (2020.08.21.), “‘8·15 도심집회’서 전국으로..‘84% 미검사’” (2020.08.27.), “‘교회 또 교회’..밝혀진 것만 절반 이상 ‘교회발’” (2020.08.27.), “지역 안 가린다..이번에 대전서 교회 집단 감염” (2020.09.01.)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KBS1과 유사하게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주로 보도하였다.

[그림 4-16] 코로나19 재확산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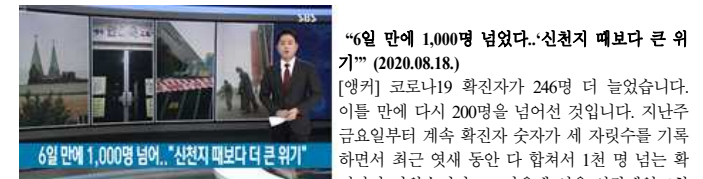
“166명’ 확진 5개월 만에 최다...‘대유행 조짐’” (2020.08.15.)

[앵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166명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결국 서울과 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제

한하고, 프로야구는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갑니다. 또,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에겐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도 “‘하루 166명 확진’ 대유행 위기..‘절체절명의 순간’” (2020.08.15.),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집결..전광훈 ‘바이러스 테러’” (2020.08.15.), “어르신·요양환자 많은데..양평 집단감염에 ‘비상’” (2020.08.15.), “6일 만에 1,000명 넘었다..‘신천지 때보다 큰 위기’” (2020.08.18.), “전광훈, 확진 전 수백 명 만났다..접촉자들 어찌나” (2020.08.18.), “코로나 재확산’ IT업계 다시 재택근무..팅 빈 판교” (2020.08.18.), “정은경..‘방역조치만으로 한계’..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사” (2020.08.21.), “상품권 나눠준다며 노인 1천 명 접촉..‘n차 감염’ 우려” (2020.08.21.), “광주, 사실상 3단계...교회·다중시설 집합 금지” (2020.08.27.), “중환자 증가 속도, 3단계 격상 여부 최대 변수” (2020.08.27.), “사적 자리에서도 연쇄 감염..‘거리두기 더 완벽하게’” (2020.09.01.), “‘바다로 산으로’ 나들이객 북적..하늘서 본 연휴 풍경” (2020.10.02.), “추석 별초 일가족 9명 확진...‘새 거리두기’ 11일 발표” (2020.10.08.) 등의 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확산에 초점을 두는 보도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17] 코로나19 재확산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6일 만에 1,000명 넘었다..‘신천지 때보다 큰 위기’” (2020.08.18.)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246명 더 늘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확진자 숫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최근 몇세 동안 다 합쳐서 1천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지금까지 457명입니다...(중략)...[기자] 신규 확진자 246명 중 절반이 넘는 138명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입니다. 지난 12일 이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만 457명에 이릅니다...(중략)...롯데홈쇼핑 미디어서울센터 7명, 농협카드 콜센터 4명, 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2명, 새마을요양병원 1명 등도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중략)...방역 당국은 교인들이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분포되었다며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안정기(2020.10.12~2020.10.21.)에 사건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서울시 집회금지 ‘10인→100인 이하’ 완화...‘방역 더 간간하게’”(2020.10.12.), “신규 확진 98명 중 국내 발생 69명...수도권·대전 산발적 감염 지속”(2020.10.12.), “고령 확진자 또 사망..대규모 모임에 확진자 참석”(2020.10.15.), “주점·장례식장서 감염 확산...‘가족·지인 모임 집단 감염 8건’”(2020.10.15.), “국내 발생 71명...영화·체육분야 등 소비 할인권 지원 재개”(2020.10.18.), “전 세계 확진자 4천만 명 ↑...미국 신규 확진 ‘7월말 이후 최고치’”(2020.10.18.), “유럽 각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최대치..방역 비상”(2020.10.18.), “대치동 학원강사 확진..강남구 학원 강사 2만 명 선제 검사”(2020.10.21.)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수와 감염 경로, 해외 확진 현황과 관련된 보도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4-18] 코로나19 안정기 KBS1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신규 확진 98명 중 국내 발생 69명...수도권·대전 산발적 감염 지속”(2020.10.12.)**

[앵커] 국내 발생은 69명입니다...(중략)..의료기관과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특히 대전에선 추석 연휴의 가족 모임이 어린이집으로까지 번져 여파가 크네요...(중략)...[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소 11명이 확진됐는데, 지난달 말에 있었던 장례식 참석을 통한 전파로 추정됩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종합체육시설도 집단감염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중략)...대전 유성구에서는 일가족 모임 관련 최소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추석 연휴 일가족 식사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뒤 가족 중 손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까지 추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생략)...

MBC는 “아슬아슬한 두 자릿수...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2020.10.12.), “대규모 확산은 아니지만...장례식장·주점서 줄줄이”(2020.10.15.), “소비할인권 다시 풀다. 공연·영화·체육부터”(2020.10.18.), “‘얼굴보고 예뻐..매일 학교로’..조심스런 ‘일상 회복’”(2020.10.18.), “또 요양병원...‘출퇴근하는 간병인이 전파 추정’”(2020.10.21.)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 확진자 발생 관련 내용과 감염 경로 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19] 코로나19 안정기 MBC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아슬아슬한 두 자릿수...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2020.10.12.)**

[앵커] 그런데 1단계 완화 첫날, 추가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걱정했던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거리 두기의 끈이 1단계로 느슨해지다 보니 그 안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차단해야 하는 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가 시작됐다는 입장입니다...(중략)...[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던 유가족 1명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장례식장 이용객 등 10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중략)...수원의 한 체육시설에서도 6명, 동두천시 친구 모임 관련 15명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걱정했던 것만큼 폭발적 증가세는 없었지만 신규 환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생략)...

SBS는 “추석 가족 모임→손자 어린이집 연쇄 감염 불렀다”(2020.10.12.), “경기 광주 19명·부산 14명..병원발 추가 감염 확산”(2020.10.18.), “대치동 강사 확진에 ‘전수검사’..수능 앞 학원가 ‘불안’”(2020.10.21.)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 경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에 초점을 두는 보도경향을 보였다.

[그림 4-20] 코로나19 안정기 SBS의 사건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대치동 강사 확진에 ‘전수검사’..수능 앞 학원가 ‘불안’”(2020.10.21.)**

[앵커] 코로나19 확진자는 91명 늘어서 엿새째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원들이 많이 있는 서울 대치동에서 강사 1명이 그제(19일)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근처의 학원 강사 2만 5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중략)...[기자] 그제 대치동의 한 임시학원에서 강사 1명이 확진되자 강남구가 관내 학원과 교습소 등 3천75곳에서 근무하는 학원강사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중략)...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와 접촉한 6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주제 중심 프레임은 이슈나 사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대안과 대책의 제 공이 분석적, 평가적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프레임으로, 일반적인 결과나 조건 또는 통계 적 증언 및 증거 등을 강조하는 특성을 띤다. 코로나19 발생기(2020.01.20.~2020.02.17.)에 주제 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우한 폐렴’ 방역 뚫렸다...진원지 ‘중우한’은 지금?” (2020.01.20.), “‘중국발 폐렴’ 국내 확산 가능성은?” (2020.01.20.), “방역당국 책임자에게 듣는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2020.1.23.), “감시 대상자 크게 늘 듯...‘자기신고, 시민의식이 중요’” (2020.01.26.), “무증상 감염자 전파? 보건 강국 ‘근거없다’..의학적 관점은?” (2020.01.29.), “무증상 감염 확인, 의미는?” (2020.02.01.), “일회용 마스크, 일주일 써도 되나?” (2020.02.04.), “국내 확진자 특징 살펴보니...‘중간 연령 42세 · 세대기 4일’” (2020.02.10.), “중국 확진자 급증 분석..새 진단법 도입 이후 국내 현황은?” (2020.02.13.), “지역사회 감염 우려...방역 어떻게?” (2020.02.17.), “감염경로 불분 명 환자 많아...‘세계적 대유행’ 확산되나?” (2020.02.17.) 등의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중 국 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가능성과 방역당국의 대응과 조치, 자기신고 등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보도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21]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중국발 폐렴’ 국내 확산 가능성은?” (2020.01.20.)  
 [앵커] 우리나라도 더는 중국발 폐렴과 관련해 안 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게 얼마나 확산될지 추측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략)... [답변] 중국에서 유행이 계속 퍼지고 지속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양산되며 이 확진자 중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환자가 반복 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사람끼리는 옮길 가능성이 없 다, 이렇게 중국당국, 또 세계보건당국도 내다봤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진건가요? [답변] 최근 상황을 보면 첫 번째 발원지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산시장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서도 확진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중략)... 중국 에서 귀국한 뒤에 2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는 절대 병원을 먼저 가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1339에 연락해서서 환자분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 (생략)...

MBC는 “오늘부터 나갈 수 없다..‘멈춘’ 도시 갇힌 사람들” (2020.01.23.), “‘우리 시민의 식 겨우 이 정도였나요’...순식간에 사라진 마스크” (2020.02.04.), “‘마스크’를 찾아서..약국 거리 · 홈쇼핑 둘러봤더니” (2020.02.07.), “어디서 걸렸는지 ‘오리무중’..정체불명 보건자 있나” (2020.02.1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마스크나 확진자의 이탈과 관련된 시민의식에 대해 보도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22] 코로나19 발생기 MBC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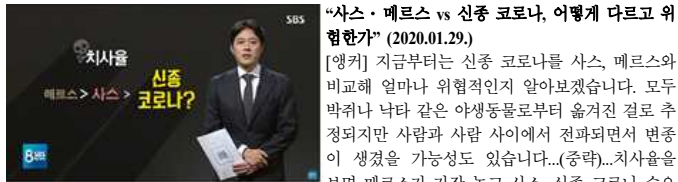


“오늘부터 나갈 수 없다..‘멈춘’ 도시 갇힌 사람들” (2020.01.23.)  
 [앵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중국 우한의 하늘길과 기차길, 도로 까지 모두 봉쇄가 됐습니다... (중략)... 리포트 도 로는 경찰차에 가로막혔습니다. 기차역. 무장경찰 이 배치된 가운데, 마스크를 쓴 역무원들이 티켓 을 검사합니다. 마지막 탈출 열차는 오전 10시 편... (중략)... "지금 여기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방송국에선 뉴스 앵커까지 마스크 를 쓰며 전염병 차단을 호소했습니다... (중략)... "저처럼 마스크를 써야만 전염을 막을 수 있어 요." 도시 전면 봉쇄는 병원균 확산 차단, 무엇보다 전염력이 강한 '슈퍼전파자'를 막기 위한 극 단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홍콩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가 다음주 확진 환자가 폭증할 수 있고, 동시 에 사스 이상의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뒤늦은 통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지 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인 춘절기간의 대규모 전통축제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의 모두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SBS는 “우한 코로나, ‘치명적 폐 손상’ 확인..中 보고서 입수” (2020.01.23.), “문 달아 결 은 만리장성 · 자금성 中 관광객 차단 움직임” (2020.01.26.), “사스 · 메르스 vs 신종 코로 나, 어떻게 다르고 위험한가” (2020.01.29.), “이종구 前 질병본부장 ‘장기전 대비해야..지혜 필요한 때’” (2020.01.29.), “무증상 환자가 감염시켰다. 커지는 우려...한국은?” (2020.02.01.), “세계 각국 ‘중국인 출입금지’..정부 입장 표명 서둘러야” (2020.02.01.), “미세 먼지 때와 다릅니다. ‘신종 코로나’ 마스크 사용법” (2020.02.01.), “태국 감염? 국내 공항 감 염?...16번 환자 감염 미스터리” (2020.02.04.), “비누 vs 손 소독제 바이러스 제거에 더 효과 적인 것은?” (2020.02.07.), “코로나19, 지역감염 현실로..방역 대책 어떻게 바뀌나”

(2020.02.17.) 등의 기사를 통해 중국 내 우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중국의 대처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그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예방과 개인의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의 대처 등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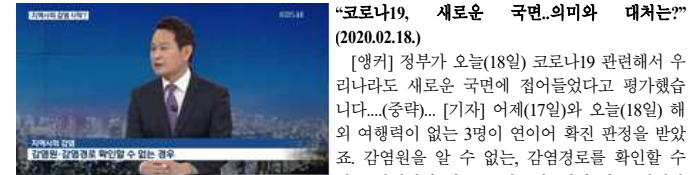
[그림 4-23]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앵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를 사스, 메르스와 비교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박쥐나 낙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옮겨진 걸로 추정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면서 변종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중략)...치사율을 보면 메르스가 가장 높고 사스, 신종 코로나 순으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메르스의 치사율이 34%, 사스의 치사율이 9.6%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추정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3% 안팎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파력 보겠습니다. 사스는 1인당 평균 4명에게 전파되고 메르스는 평균 0.9명 수준입니다...(중략)...셋 다 변종을 매우 잘 만들어서 치료제를 개발해도 곧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선뜻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생략)...

코로나19 확산기(2020.02.18.~2020.02.27.)에 주제 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코로나19, 새로운 국면..의미와 대처는?” (2020.02.18.), “이달 초 청도 대남병원서 무슨 일이?...집단 전파 가능성 주목” (2020.02.21.), “심상치 않은 확산세...지역 사회 전파, 어떻게 대응?” (2020.02.21.), “확진자 자가격리 문제 없나? 전국 병상 운영 문제는?” (2020.02.24.), “대구 의료자원 부족..한계점 도달했나?” (2020.02.27.) 등의 기사를 통해 국내에서의 코로나19 집단전파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보도행태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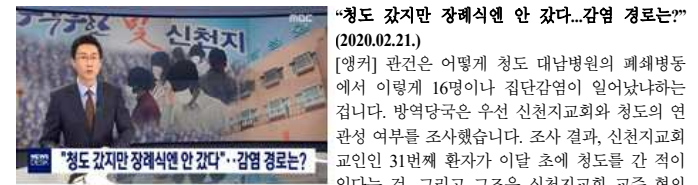
[그림 4-24] 코로나19 확산기 KBS1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앵커] 정부가 오늘(18일)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중략)... [기자] 어제(17일)와 오늘(18일) 해외 여행력이 없는 3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역사회 감염입니다...(중략)...[기자]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침투했다, 지역사회 유행의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볍게 알고 지나가고, 이 사람들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중략)...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만큼 이젠 봉쇄보다는 진단검사 확대에 더 중점을 뒀야 합니다. 일본을 오염국가로 지정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보다는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중략)...병원이 풀리면 중환자들이 위협하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아무 병원이나 가지 않고 반드시 선별진료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잊지 마시고요.

MBC는 “여행력 없는데 무작정 검사?...‘동네 병원 지침 쫓아’” (2020.02.18.), “청도 갔지만 장례식엔 안 갔다...감염 경로는?” (2020.02.21.), “집단 감염지역 4곳을 막아라..앞으로 2주가 고비” (2020.02.24.), “대형 교회 또 확진..그런데도 ‘예배 강행’ 교회들” (2020.02.27.), “폐쇄·재개원 반복하다 ‘구멍’...‘접촉자 파악도 안 돼’” (2020.02.27.), “신천지 비밀 모임 민원 잇따라..‘폐쇄명령’ 의문”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확실한 감염경로와 신천지, 대형교회의 연이은 확진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25] 코로나19 확산기 MBC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앵커] 관건은 어떻게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이렇게 16명이나 집단감염이 일어났느냐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신천지교회와 청도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천지교회 교인인 31번째 환자가 이달 초에 청도를 간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즈음 신천지교회 교주 형의

장례식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열렸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31번째 환자가 장례식을 간 것은 아니어서 아직 연결 고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중략)...하지만 신천지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병원에 먼저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이 바이러스가 대구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생략)...

SBS는 “신분 속인 ‘신천지 추수꾼’...커지는 집단 감염 우려” (2020.02.21.), “신천지 병원 탈출? 31번 사진?...확인해보니” (2020.02.21.), “이제는 확진보다 중증 여부 관건..지역별 대비는?” (2020.02.21.), “메르스 5-6배 전파력..대구·경북 병원 내 감염 주의” (2020.02.21.), “확진 늘수록 감염 경로도 ‘미궁’...추가 감염 가능성” (2020.02.24.), “일부 전문가 ‘이미 전국으로 지역 감염 시작’” (2020.02.24.), “배달 도중 10분 대화 나눴는데 감염...예방 대책 촉구”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천지 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통계적 데이터 및 수치를 통해 국내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지역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그림 4-26] 코로나19 확산기 SBS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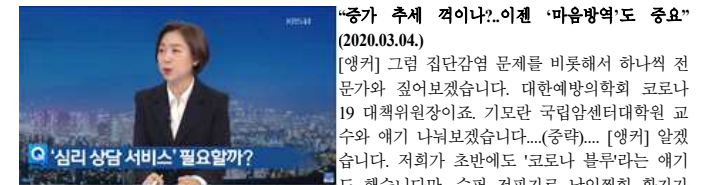


“신분 속인 ‘신천지 추수꾼’...커지는 집단 감염 우려” (2020.02.21.)  
저희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특정 종교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배와 포교 방식이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를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도 어제(21일)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모여 있던 게 감염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중략)...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락 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게 걱정입니다.....(중략)...신천지 발 집단 감염 상황의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 교회를 세웠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기(2020.03.01.~2020.03.19.)에 주제 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대구 ‘병상부족’..환자 중증도 판단은 ‘어떻게?’” (2020.03.01.), “증가 추세 꺾이나?...이젠 ‘마음방역’도 중요” (2020.03.04.), “전국 소규모 집단감염 ↑ 향후 방역은 어떻게?” (2020.03.07.), “코로나19 두 달째..‘마음 건강은 괜찮으세요?’” (2020.03.07.),

“대구의료 현황은 지금...‘마음의 거리는 좁혔으면’” (2020.03.04.), “불안한 ‘가족격리’...대구서 온 가족감염 잇따라” (2020.03.10.), “비상금융조치 중기·자영업자 어떤 지원받나?” (2020.03.19.), “더 많은 대책 필요..긴급재난소득은?” (2020.03.19.), “금융위기 우려..완원 방파제는?” (2020.03.19.) 등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문제(병상부족, 중증환자)와 코로나블루 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보도경향을 나타냈고, 그와 동시에 코로나19의 소규모 전파 지속에 따른 예방대책과 경제지원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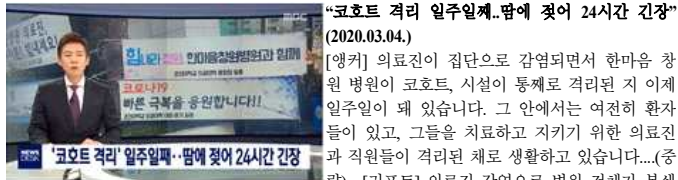
[그림 4-27] 코로나19 대유행기 KBS1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증가 추세 꺾이나?...이젠 ‘마음방역’도 중요” (2020.03.04.)  
[앵커] 그럼 집단감염 문제를 비롯해서 하나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죠. 기묘한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중략)...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도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슈퍼 전파자로 낙인찍힌 환자가 메르스 사태 때 외상후 스트레스를 엄청 겪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중략)...저희가 사실 좀 걱정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번에 한번 더 연락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한다면 많은 힘을 받을 것 같고요....(생략)...

MBC는 “신천지로 인한 검사 공백...전수조사 재검토” (2020.03.01.), “신도 수 한 자리 수까지 ‘뚝뚝’..신천지 1월 총회 영상 입수” (2020.03.01.), “면 마스크 써도 된다..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 (2020.03.04.), “코호트 격리 일주일째..땀에 젖어 24시간 긴장” (2020.03.04.), “잇따르는 집단시설 ‘코호트 격리’..관건은?” (2020.03.07.), “콜센터 상담사 30여만 명..‘혹시 내가 일하는 곳도?’” (2020.03.10.)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천지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과 대규모 감염 위협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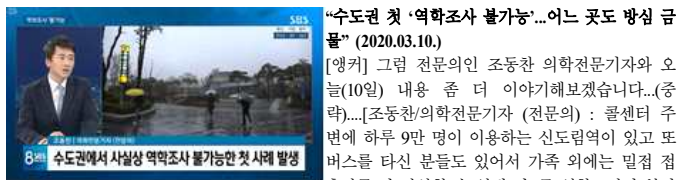
[그림 4-28]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 째. 중환자들도 있다 보니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까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20~30kg에 이르는 방역통을 메고 매일 방역에 나서고 있는 직원은 쏟아지는 땀에 옷이 젖고 숨은 턱까지 차오릅니다...(중략)...한마음창원병원의 코호트 격리 해제는 오는 8일 자정, 모두가 무사히 병원 밖으로 나오길 기원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SBS는 “발열 없고, 기침 증세 정도면 ‘경중’..달라지는 치료 체계” (2020.03.01.), “감염 경로 모를 환자 늘어나...‘역학조사관의 고민’” (2020.03.01.), “음성 뒤 ‘양성’ 사례 ↑.. ‘검체 채취 잘못됐을 가능성’” (2020.03.07.), “수도권 첫 ‘역학조사 불가능’...어느 곳도 방심 금물” (2020.03.10.), “접촉 많은 물리치료사도 확진..재활병원 확산 비상” (2020.03.10.), “학생 정보 모르는데 ‘문진표 없다’..‘긴급돌봄’ 불안” (2020.03.16.), “확진자 방문 낙인에 발길 똑..‘잇힐 권리’ 마련해야” (2020.03.16.)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명확치 않고 역학조사가 힘들 정도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에 대한 위협성을 경고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다.

[그림 4-29] 코로나19 대유행기 SBS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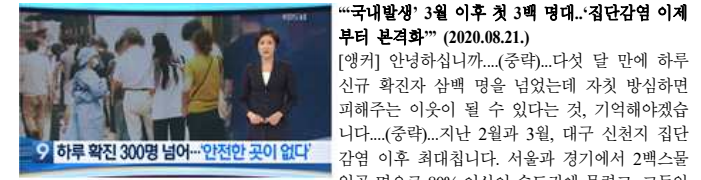


가능한 상황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다만 감염자와 거리가 멀거나 같이 있던 시간

이 짧으면 전파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 또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은 그만큼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생략)..

재확산기(2020.08.15.~2020.10.11.)에 주제 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사흘 연휴 ‘최대 고비’..서울·경기 확산 잠재우려면?” (2020.08.15.), “2단계 조치 강화, 왜 진작 못했나?..개신교계 ‘사과·협조’” (2020.08.18.), ““국내발생” 3월 이후 첫 3백 명대..‘집단감염 이제부터 본격화’” (2020.08.21.), “300명대 급증..전국으로 확산, 주말이 고비?” (2020.08.21.), “환기구로 전염?...서울 구로 아파트 감염경로 미궁” (2020.08.27.), “강력한 거리두기 했는데도 감소세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2020.09.17.), “추석 연휴 잘 보내야 가을·겨울 대유행 막는다” (2020.09.29.), “연휴 이동 인원 지난해보다 줄었지만..‘조용한 전파’ 촉각” (2020.10.05.) 등의 기사를 통해 지역 내 대규모 감염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인과 개인의 예방수칙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30] 코로나19 재확산기 KBS1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환자 발생 수가 많지 않았던 충남, 강원, 부산에서도 두 자릿수 가까이 늘었습니다...(중략)...대규모 유행으로 전개될지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이라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잠복기와 세대기를 고려하면 사망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에서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억제 효과가 이번 주말부터 나타날 거라면서도 주말이 지나고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는 “병원 탈출에 허위 명단까지..막 나가는 ‘사라제일’” (2020.08.18.), “전광훈 밀접 접촉자들..몸살·기침에도 ‘검사거부’” (2020.08.18.), “예배 드리면 병도 낫는다? 결국 ‘마



스크' 쓴 전광훈" (2020.08.18.), "검사 통보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고발' 검토" (2020.08.18.), "'KF94' 꼭 써야 할까?...전문가들 의견은" (2020.08.24.), "우울증·세계위협에도... '거리두기 지킵니다'" (2020.09.10.), "10명 중 9명 후유증 시달려.. '집중력 저하·후식 상실'" (2020.09.29.), "코로나 '무증상'의 비밀은?...치료의 길 열리나" (2020.10.08.)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 확산과 검사 거부로 인한 위협크기, 감염원인 및 전파경로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통해 사회적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31] 코로나19 재확산기 MBC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전광훈 밀접 접촉자들... 몸살·기침에도 ‘검사 거부’” (2020.08.18.)**

[앵커]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서 확진자들이 대규모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게 확인되면서 이들과 접촉했던 집회 참석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주요 참석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일부는 "정부가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이유로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중략)...[리포트]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전광훈 목사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15분간 열변을 통했습니다....(생략)...

SBS는 “5달 만에 또 닦친 ‘대유행 위기’..수도권 병원 상황은?” (2020.08.15.), “‘일상이 멈춘다’는 3단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2020.08.24.), “완치 후 찾아온 후유증.. 끝나지 않은 ‘코로나 고통’” (2020.09.04.), “더 어려워진 나라살림.. 빛 는데 저소득층 지원은 미비” (2020.09.10.)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와 대처상황, 코로나블루 및 경제적 어려움과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32] 코로나19 재확산기 SBS의 주제중심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5달 만에 또 닦친 ‘대유행 위기’..수도권 병원 상황은?” (2020.08.15.)**

[앵커] 코로나 취재 계속 해온 남주현 기자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중략)...[남주현 기자 : 박능후 장관이 브리핑에서 대규모 재유행 초기 조짐이라고 했습니다. 2차 유행이 정말 시작된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앞으로의 확진자 추이 등을 더 봐야합니다. 하루 확진자 현황을 보시면 2월 말, 3월 초 신천지발 대유행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그래프가 꺾이지 않으면 대유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생략)...

코로나19 안정기(2020.10.12~2020.10.21.)에 주제 중심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고위험시설 등 운영 재개.. 일부는 ‘인원제한·시간제’ 운영” (2020.10.12.),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첫 휴일..교회도 거리도 ‘복적 복적’” (2020.10.18.), “출근 더울 때, 코로나19 더 확산..이유는?” (2020.10.21.), MBC는 “1단계 첫날..노래방·클럽 ‘복적’ 뷔페도 ‘활기’” (2020.10.12.), “터지면 ‘대형 감염’..면회 금지가 느슨한 방역으로?” (2020.10.15.), SBS는 “1단계 첫날, 유흥가 간만에 복적..뷔페 손님맞이 분주” (2020.10.12.) 등의 기사들을 통해 코로나19의 안정기 이후 재개된 시민들의 일상의 모습을 기사화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계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혼합 프레임은 사건 중심 프레임과 주제 중심 프레임이 혼재된 프레임으로, 사건 발생을 묘사하면서 해결책 등을 동시에 모색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다만 발생기에서부터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혼합 프레임이 적용된 기사는 많지 않았고, KBS1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혼합 프레임 기사를 제시하면, KBS1은 “절체절명의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절박한 이유는?” (2020.08.15.), “생의 마지막까지 약에 취했다...환자 가족의 고통” (2020.09.10.)이라는 기사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대한 원인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침으로 강화되어 보호자의 면회가 어려워진 상당수 요양병원에서의 환자들에 대한 항정신성 약물 처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을 요구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기타는 사건중심 프레임이나 주제 중심 프레임 모두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으로, MBC의 “코로나19 최전선에서...전담병원 의

료진들은 지금” (2020.03.04.)이라는 기사 단 한 건에 불과하였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의 모습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방송사의 코로나19 시기별 형태식적 프레임 관련 보도내용의 기사표현 기본 특성을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3> 코로나19 시기별 형식적 프레임 관련 보도내용 기본 특성

	발생기 (20.01.20-02.17)	확산기 (20.02.18-02.27)	대유행기 (20.03.01~03.19)	재확산기 (20.08.15~10.11)	안정기 (20.10.12~10.21)
사건 중심 프레임	K B S 1	국내 확진 주의/경고, 정부대응, 감염확산 위기 경고 등	신천지 발 국내 확산 강조, 전반적 상황의 엄중함 경고	신천지발 대유행, 지역감염 확산, 방역인력 확산 차단 노력/노고, 경제위기 등 해외 한국인 입국 금지, 경제위기, 신천지 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 교민유입	신규확진자 발생수와 감염경로, 해외 확진자 현황
	M B C	해외 확진자 수, 확산현황, 대처 상황 등 위기상황 강조	신천지 발 감염 확산 심각성 보도	사랑제일교회/광복절 집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와 심각성	신규 확진자 발생 관련 내용과 감염 경로
	S B S	해외 감염확산에 따른 급박한 상황 강조	신천지 교인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지역사회 감염확산 초래	신천지 발 지역 감염 확산 우려, 해외 대처방안 보도	감염경로/확산에 대한 불안
주제 중심 프레임	K B S 1	국내 확산 가능성과 방역당국 대응조치, 자기 신고 등 시민의식 강조	국내 코로나19 집단전과 가능성 진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 제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문제(병상부족, 중증환자 등), 코로나블루 우려, 소규모 전파 지속에 따른 예방 대책과 경제지원 보도	지역 내 대규모 감염 확인, 감염 경로 불명확으로 인한 원인규명 어려움이나 실패, 개인 예방수칙 강조
	M B C	중국 내 확산상황과 조치, 결과 등 국내 마스크나 확진자 이탈 관련 시민의식 보도	불확실한 감염경로와 신천지, 대형교회의 연이은 확진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 보도	신천지 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대규모 감염 위험성 보도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확산과 검사거부로 인한 위협크기, 감염원인 및 전파 경로 등에 대해 보도, 추가로 사

	발생기 (20.01.20-02.17)	확산기 (20.02.18-02.27)	대유행기 (20.03.01-03.19)	재확산기 (20.08.15~10.11)	안정기 (20.10.12~10.21)
				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통한 사회적 공동노력 필요	
	중국 우한 감염 위험성과 중국 대처, 국내 감염 우려와 예방 지침 및 정부 대처 보도	신천지 발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우려, 지역감염 시작, 지역별 예방대책 필요	코로나19 감염 경로 불분명, 확산 조사의 어려움, 대규모 확산 가능성과 위험성 경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와 대처 상황, 코로나블루, 경제적 어려움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 필요성 강조	

\* 혼합 프레임은 기사 건수가 적어 제외

## 2. 코로나19 재난방송 시기별 내용적 프레임 분석

내용적 프레임에서는 의료/방역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과 관련된 방송보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의료/방역 프레임은 코로나19 원인과 증상, 검진, 치료, 의학적 발견, 새 치료법 소개, 의과학적 접근에 치중하고 방역행동에 대한 설명과 행동 권고 등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발생기(2020.01.20.~2020.02.17.)에 의료/방역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우한 폐렴’ 방역 뚫렸다..진원지 ‘우한’은 지금?” (2020.01.20.), “우한 인근 황강·어저우도 봉쇄..사망자 정보 첫 공개” (2020.01.23.), “중·전염력 점 점 강해져’...우한시 병원 마비, 현재 상황은?” (2020.01.26.), “중국 신종 코로나, 사스 환자 수 넘었다..‘열흘이 최대 고비’” (2020.01.29.), “한국당 ‘중국인 입국금지’ 민주당 ‘중국인 포비아’ 우려” (2020.01.29.),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감염 의심 교민 상태는?” (2020.02.01.), “우한시 서기 ‘양심의 가책’...中환자·사망자 최고치 경신” (2020.02.01.), “문 대통령 ‘최악 상황 대비해 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 (2020.02.04.), “접촉자 1,300여 명..‘미확인’ 우한 입국자 5명 추적 중” (2020.02.07.), “日 크루즈선에서 65명 추가 확진...‘미확인’ 우한 입국자 5명 추적 중” (2020.02.10.),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많아...‘세계적 대유행’ 확산되나?” (2020.02.17.)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우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감염 원인, 전파경로, 유행 등에 대한 전망을 통해 중국 내 대혼란과

공포, 패닉 등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국내 유입 및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행태를 나타냈다.

[그림 4-33]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우한 폐렴’ 방역 뚫렸다.진원지 ‘중우한’은 지금?” (2020.01.20.)

[앵커] 그럼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한을 벗어나 베이징과 광둥성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중략)...[리포트] 지난달, 첫 환자가 나왔던 우한 화난 수산시장입니다. 우한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으로 지난 1일 폐쇄됐습

니다....(중략)...사람 간 전염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입니다. 환자 격리 병동엔 오늘(20일) 철새없이 응급차가 드나들었습니다....(중략)...중국 정부는 통제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방역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생략)...

MBC의 경우도 “‘중환자 ‘폭발적’ 확산..방역망도 신뢰도 다 뚫려” (2020.01.20.), “‘확진 6백 명’ 넘었다...지구 반대편도 의심 환자” (2020.01.23.), “‘감염 확산 가능성은?...’최악 상황 대비해야” (2020.01.26.), “‘美도 격리..일은 자율 대기 ‘한국처럼 왜 안 하나’” (2020.01.29.), “‘국경 폐쇄에 ‘입국 금지’까지...우리는?’” (2020.02.01.), “4명 태우고 온 中 여객기...‘관광 제주 멈췄다’” (2020.02.04.), “‘의사 입 막다가 초국가적 대란...中 환자 3만 넘겨’” (2020.02.07.), “‘한국 들어오려면 앱부터’..中 입국자 원격 관리” (2020.02.10.), “‘설마 코로나 일 줄’...병원·약국 다니며 114명 접촉” (2020.02.17.) 등의 기사를 통해 ‘최악’, ‘초국가적 대란’, ‘국경 폐쇄’ 등의 용어를 쓰면서 중국 우한의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실패와 확산, 그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그림 4-34] 코로나19 발생기 MBC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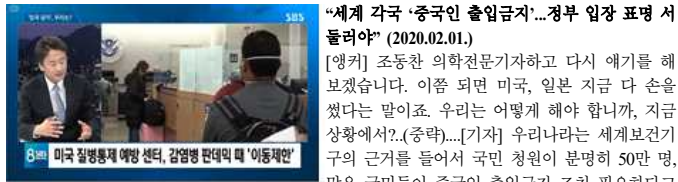
“‘한국 들어오려면 앱부터’..中 입국자 원격 관리” (2020.02.10.)

[앵커] 정부가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인데요....(중략)...[리포트] 현재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입국 게이트에서 특별 검역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중세가 있는지, 국내

연락처는 어딘지 등을 기록하는 겁니다. 모레부터는 이런 중국 입국자 특별검역신고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됩니다. 모든 중국 입국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자가진단 앱을 깔게 해, 입국 당시는 물론 국내 체류 기간에도 최대 2주까지는 매일 한 차례씩 발열, 기침, 오한 등의 증세를 입력하도록 한 겁니다. 이 앱을 설치 하지 않으면 입국도 불허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앱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진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생략)...

SBS는 “‘중 환진 환자 201명 중 44명 위중’..국내 차단 어떻게?” (2020.01.20.), “‘우한 코로나 막자’ 설 앞두고 전국 방역 초비상” (2020.01.23.), “‘우한 코로나 위험성 속지..의심되면 바로 1339 신고’” (2020.01.26.), “‘중국 간 적 없는데 확진...2차 감염’ 세계 곳곳 경고 등” (2020.01.29.), “‘신종 코로나 12번째 확진자는 ‘日서 입국한 중국인’” (2020.02.01.), “‘세계 각국 ‘중국인 출입금지’...정부 입장 표명 서둘러야’” (2020.02.01.), “‘우한 입국 내국인 30여 명 연락 두절..추적 진행 중’” (2020.02.04.), “‘사망 늘며 공포 커져’...다문화 가정 상당수 귀국 원해” (2020.02.07.), “‘병원 갔다가 ‘확진’..중국에선 병원 내 감염이 41%’” (2020.02.10.), “‘턱없이 부족한 中 의료시설...SNS로 ‘병상 구해요’” (2020.02.1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곳곳 경고’, ‘중국인 출입금지’, ‘병원 내 감염’, ‘방역 초비상’ 등의 용어를 통해 중국 내 감염 확산 및 유행과 그로 인한 세계의 중국인 출입금지를 통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비중 있게 다루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그림 4-35]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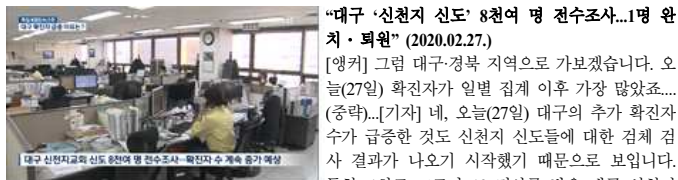
**“세계 각국 ‘중국인 출입금지’...정부 입장 표명 서둘러야” (2020.02.01.)**

[앵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일본 지금 다 손을 썼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중략)...[기자]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근거를 들어서 국민 청원이 분명히 50만 명, 많은 국민들이 중국인 출입금지 조치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세계보건기구에 근거를 들어서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세계보건기구 참 비판 많이 받고 있죠...(중략)...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대책도 조금 늦어지면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 외교적인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 보호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국인 출입 금지에 대한 것도 정부가 서둘러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생략)...

한편, 확산기(2020.02.18~2020.02.27.)에 의료/방역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31번째 확진자 추가 확인...감염경로 ‘오리무중’” (2020.02.18.), “‘확진자 급증’ 대구·경북, 시설 폐쇄·행사 취소 잇따라” (2020.02.21.), “이달 초 청도 대남병원서 무슨 일이?..집단 전파 가능성 주목” (2020.02.21.), “‘확진 폭증’ 대구, 병상 부족..확진자 절반 가까이 자가 격리” (2020.02.24.), “대구 의료자원 부족...한계점 도달했나?” (2020.02.27.), “대구 ‘신천지 신도’ 8천여 명 전수조사...1명 완치·퇴원”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경로 오리무중’, ‘한계점 도달’, ‘확진 폭증’ 등의 용어를 통해 국내에서 집단전파 가능성과 확진자 폭증 등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신천지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주목하는 보도행태를 나타냈다.

[그림 4-36] 코로나19 확산기 KBS1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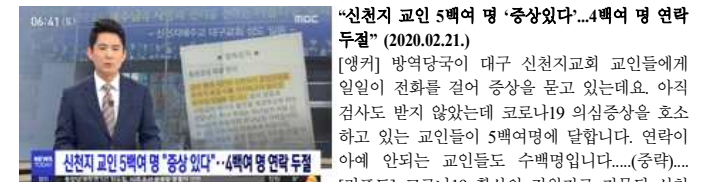
**“대구 ‘신천지 신도’ 8천여 명 전수조사...1명 완치·퇴원” (2020.02.27.)**

[앵커] 그럼 대구·경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27일) 확진자가 일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죠...(중략)...[기자] 네, 오늘(27일) 대구의 추가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1차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1,190여명 가운데 80% 가량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혔습니다...(중략)...그런데 의성,칠곡 등의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조사 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30여 명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대구시처럼 경찰과 협력해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생략)...

MBC는 “잠시 뒤틀린 ‘크루즈 하선’...日 감염자 6백 명 넘어” (2020.02.18.), “‘확진’ 1백 명 추가돼 204명...‘베르스 확진자 넘어서’” (2020.02.21.), “문 달도 텅 비고..대구 시민에 ‘외출 자제해달라’” (2020.02.21.), “신천지 교인 5백여 명 ‘증상있다’..4백여 명 연락 두절” (2020.02.21.), “성지 순례단 또 무더기 확진...‘운전기사 모두 대구 거주’” (2020.02.24.), “은평 성모병원 ‘간병인’ 추가 확진...‘병원 내 감염’” (2020.02.24.), “‘명단축소’ 논란 일자...뒤늦게 9만여 명 추가 제출” (2020.02.27.), “은평성모병원 닷새 만에 14명 확진...‘집단 감염 우려’” (2020.02.27.) 등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현황과 위험크기, 전파경로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천지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나타냈다.

[그림 4-37] 코로나19 확산기 MBC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신천지 교인 5백여 명 ‘증상있다’...4백여 명 연락 두절” (2020.02.21.)**

[앵커] 방역당국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증상을 묻고 있는데요. 아직 검사도 받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교인들이 5백여명에 달합니다. 연락이 아예 안되는 교인들도 수백명입니다...(중략)...[리포트]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 이 교회 교인인 31번째 환자가 참석한 지난 9일과 16일 예배 참석자는 1001명.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은 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명단이 확보된 4,475명의 신도들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이들 중 544명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백명은 아예 연락조차 닿질 않아 증상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로 약 5천 명의 신도명단을 확보했는데, 유증상자도, 연락두절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생략)...



SBS는 “영남권 첫 발생...31번 환자도 감염 경로 오리무중” (2020.02.18.), “새로운 국면’.. 보건당국, ‘지역사회 감염 시작’ 인정” (2020.02.18.), “전국 곳곳 신천지 교회 폐쇄...교주 ‘마귀의 짓’ 첫 입장” (2020.02.21.), “‘대구 방문’ 확진자 발길...김포·전주서도 방역 비상” (2020.02.21.), “확진 늘수록 감염 경로도 ‘미궁’..추가 감염 가능성” (2020.02.24.), “하루 새 505명 급증..대구 신천지 유증상자 82% 확진” (2020.02.27.) 등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집중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신천지에 의한 지역사회 확산을 강조하는 보도행태를 나타냈다.

[그림 4-38] 코로나19 확산기 SBS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전국 곳곳 신천지 교회 폐쇄...교주 ‘마귀의 짓’ 첫 입장” (2020.02.21.)**

[앵커] 신천지는 오늘(21일) 총회장의 특별 편지라는 글을 통해서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일은 신천지의 급성장을 막으려는 마귀의 짓이라며 당분간은 모임을 피하고 당국에 협조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천지 교회 시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중략)...[리포트] 신천지 지도자인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넷으로 전파된 '총회장님 특별편지'라는 공지글에서 이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의 급성장을 저지하려는 마귀의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분간 모임을 피하고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신천지교회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 곳곳의 신천지교회에서는 건물 전체를 폐쇄한 채 긴급 방역작업이 이뤄졌습니다....(생략)...

코로나19 대유행기(2020.03.01.~2020.03.19.)에 의료/방역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대구 ‘병상부족’..환자 중증도 판단은 ‘어떻게?’” (2020.03.01.), “대구, 안심상황 아냐..당분간 ‘집중관리’” (2020.03.07.), “‘줄바’ 세종까지 확산..복지부 공무원 확진” (2020.03.07.), “신천지 검사 거의 종료..‘아직 안심 단계 아냐’” (2020.03.10.), “집단에서 집단으로 감염 확산...‘소규모 유행’ 계속” (2020.03.13.), “8주간 50인 이상 모임 말라...각국 집단감염 대응은?” (2020.03.16.)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증 환자 관리와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등 진단과 치료, 사회적 예방수칙과 개인 예방 생활수칙 등을 강조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그림 4-39] 코로나19 대유행기 KBS1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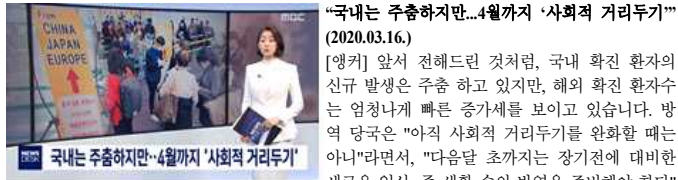


**“8주간 50인 이상 모임 말라...각국 집단감염 대응은?” (2020.03.16.)**

[앵커] 집단 감염이 퍼질까 비상이 걸린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당분간 결혼식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일부 국가들은 주요 종교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지난 7일 브라질 대표단 만찬과 파티가 잇따라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 참석 인원 중 최소 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화로운 토요일 밤 파티 이후 마러라고가 코로나19의 온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 로셸과 워싱턴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미 질병통계예방센터 CDC가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연기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회의와 축제, 콘서트, 운동 경기, 결혼식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생략)...

MBC는 “확원 다니다 ‘감염’ 부산 여고생..교사·학생 44명 격리” (2020.03.01.), “다행히 입원해도...‘중증 환자용’ 음압병상 부족” (2020.03.04.), “방역해주세요..의뢰 급증...소독약도 동났다” (2020.03.04.), “‘동선 하나하나’ 확진 환자 꼼꼼 일지...‘폐해 없도록’” (2020.03.04.),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확진’..세종청사 일부 폐쇄” (2020.03.07.), “‘잇따르는 집단 시설 ‘코호트 격리’...관건은?” (2020.03.07.), “‘수도권 곳곳 주·지하철 출퇴근...전파 우려’” (2020.03.10.), “‘거리 살포보다 실내 방역 먼저...‘밀폐공간 집중’” (2020.03.10.), “‘해수부만 벌써 25명..감염 경로 ‘오리무중’” (2020.03.13.), “‘국내는 주춤하지만...4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020.03.16.), “‘자동차 3사 가동 중단...경제도 ‘감염’” (2020.03.19.) 등의 기사를 통해 진단 및 치료, 사회적 확산 관리 등을 보도하면서 장기적인 생활 속의 방역을 강조하는 보도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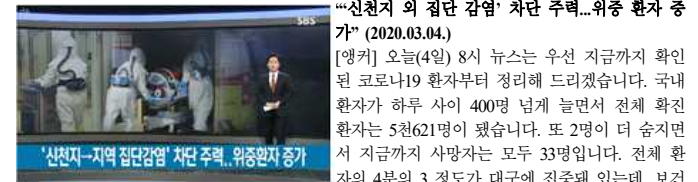
[그림 4-40]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고 강조 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입국절차가 오늘부터 유럽 모든 나라의 입국자들에게 적용됐습니다....(중략)...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이가 입국금지나 입국후 2주간 자가격리 같은 강화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내 추가 확진자는 74명 늘어 이들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30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국제적인 확산과 전국적인 산발 감염 사례들을 볼 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생략)...

SBS는 ““신천지 외 집단 감염’ 차단 주력...위중 환자 증가” (2020.03.04.), “대구 확진자 중 기저질환 355명...병실 우선 배정한다” (2020.03.04.), “대구서 아파트 첫 ‘통째 격리’..확진 46명 모두 신천지” (2020.03.07.), “아파트 주민 66%가 신천지 교민...집단시설 10곳 조사” (2020.03.07.), “수도권 첫 ‘역학조사 불가능’...어느 곳도 방심 금물” (2020.03.10.), “요양원서 8명 추가 확진...대구 신천지 99.2% 진단검사” (2020.03.10.), “한 병원에서 18명 확진...대구서 ‘신천지 연관성 조사’” (2020.03.13.), “전 세계 추가 확진 90%가 유럽...방역망 무너졌다” (2020.03.16.), “대구 종합병원 첫 집단 감염...고위험 시설선 추가 확진” (2020.03.19.) 등의 기사를 통해 신천지 및 그 외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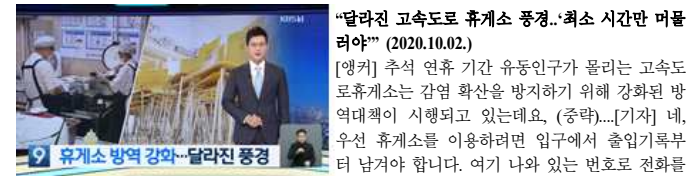
[그림 4-41] 코로나19 대유행기 SBS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당국은 대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천지 교회처럼 여러 명이 감염되는 사례가 최근 이어지는 점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그런 곳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중략)...[기자] 국내 확진자의 약 66%가 집단 발생 연관 사례로 파악되는데, 대표적인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대남병원 외에도 우려할 만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방역 대책의 중심을 신천지 신도에서 다른 지역의 감염 사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생략)...

재확산기(2020.08.15~2020.10.11.)에 의료/방역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경기도, 누적 확진자 2천 명 넘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08.18.), “정부 ‘대규모 유행 직면’...앞으로 2주간 외출 자제” (2020.08.18.), ““국내발생’ 3월 이후 첫 3백 명대..‘집단감염’ 이체부터 본격화” (2020.08.21.), “인천시, ‘3단계 거리두기’ 수준 방역..공기업 재택근무 등 강력 강화” (2020.08.24.), “인천교회 집단감염 잇따라..병상 확보 비상” (2020.08.27.),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제과점·유사확원도 집합금지” (2020.09.04.), “신촌 세브란스병원 ‘집단감염’...추석 앞두고 야외까지 ‘비상’” (2020.09.10.), “달라진 고속도로 휴게소 풍경..‘최소 시간만 머물러야’” (2020.10.02.) 등의 기사를 통해서 국내 감염자 재확산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예방수칙, 여행 및 집합, 집회 제한, 개인의 예방수칙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42] 코로나19 재확산기 KBS1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앵커] 추석 연휴 기간 유행인구가 물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중략)...[기자] 네, 우선 휴게소를 이용하려면 입구에서 출입기록부 터 남겨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질기만 하면 자동으로 출입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앵커] 네, 방역조치는 그렇게 마련을 해줬는데, 휴게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기자] 취재진이 상행-하행 고속도로 휴게소를 모두 살펴봤는데 평소 연휴보다 이용객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중략)..이번 연휴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동하시는 경우엔 꼭 방역수칙을 지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휴게소에 머무는게 감염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MBC는 “‘166명’ 확진 5개월 만에 최다..‘대유행 조짐’” (2020.08.15.), “지역병원 ‘의사 감염’...확진자 ‘장례식장 1박’ 확산 비상” (2020.08.15.), “수도권 노래방·PC방 문 닫아라..대면 예배도 금지” (2020.08.18.), “1명이 2.8명 전염...‘하루 확진 1만 5천 명 될수도’” (2020.08.18.), “안전지대가 없다...‘3단계’ 격상 검토” (2020.08.21.), “집단감염 ‘20여 개’ 폭증..긴 장마·휴가 탓?” (2020.08.21.), “첫 증상 1주일 지나 검사..세종·대전 ‘발각’” (2020.08.24.), “밤 떠다가..목욕하다...‘어디서 걸릴지 모른다’” (2020.08.27.), “시내버스 기사도 확진...‘2.5단계’ 어떻게?” (2020.09.10.)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강조하고, 감염원인과 전파경로, 유행 등에 대해 경고하는 보도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43] 코로나19 재확산기 MBC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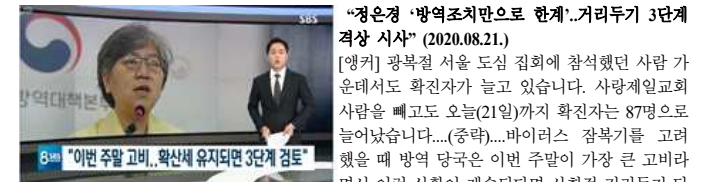


**“1명이 2.8명 전염...하루 확진 1만 5천 명 될수도” (2020.08.18.)**  
 [앵커] 방역조치가 강화가 됐지만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2단계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 중인 바이러스는 1명이 2.8명의 새로운 환자를 만들어낼 정도라고 하는데요...(중략)...[리포트] 현재의 교회발 수도권 확산세는 지난 신천지, 이태원 때와 비교해 얼마나 강력한 걸까.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어제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2.83. 확진자 1명이 자기 주변 2.83명을 또 새로 감염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천지 때 감염재생산지수 3.53보다는 작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지수 2.69는 이미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명이 3명으로, 3명이 곧 9명, 27명, 54명 순으로 불어나게 됩니다...(생략)...

SBS는 “어르신·요양환자 많은데...양평 집단감염에 ‘비상’” (2020.08.15.), “5달 만에 또 다친 ‘대유행 위기’..수도권 병원 상황은?” (2020.08.15.), “경기도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방역 강화 조치” (2020.08.18.), “정은경 ‘방역조치만으로 한계’..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사”

(2020.08.21.), “교사·학생 n차 감염 확산...학교 1,845곳 등교 중단” (2020.08.24.), “‘재확산’ 한국발 입국 문턱 높였다...일본은 절قم 완화” (2020.08.30.), “신규 확진 63명..고등학교·목욕탕 등서 추가로 감염” (2020.10.02.), “의출 막은 포천 부대 36명 감염..감염원 못 찾았다” (2020.10.05.) 등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상’, ‘대유행 위기’, ‘한계’ 등의 용어를 통해 국내에서 집단감염이 대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경향을 보였다.

[그림 4-44] 코로나19 재확산기 SBS의 의료/방역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정은경 ‘방역조치만으로 한계’..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사” (2020.08.21.)**  
 [앵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사람을 빼고도 오늘(21일)까지 확진자는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중략)...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이 가장 큰 고비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기자] 당국은 주말에도 내내 코로나 확산세가 유지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 기업 활동만 허용되는 등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엄청난 제약이 초래됩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 집에 머물기,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기 등 2가지만은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기(2020.10.12.~2020.10.21.)에 의료/방역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신규확진 98명 중 국내 발생 69명...수도권·대전 산발적 감염 지속” (2020.10.12.), “주점·장례식장서 감염 확산..가족·지인 모임 집단 감염 8건” (2020.10.15.), “유럽 각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최대치..방역 비상” (2020.10.18.), “3월도 되돌아간 유럽...제2차 대유행에 곳곳 재봉쇄” (2020.10.21.), MBC는 “아슬아슬한 두 자릿수...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 (2020.10.12.), “대규모 확산은 아니지만..장례식장·주점서 줄줄이” (2020.10.15.), “코로나 감염되실 분?...영국의 위험한 도전” (2020.10.21.), SBS는 “눈뜨고 일어나면 또 최고치..전 세계 4천만 명 확진” (2020.10.18.), “미검증 백신 맞으면 기절...中 전국에서 물러들었다” (2020.10.18.) 등의 기사를 통해 국내의 산발적 감염 전파경로와 함께 해외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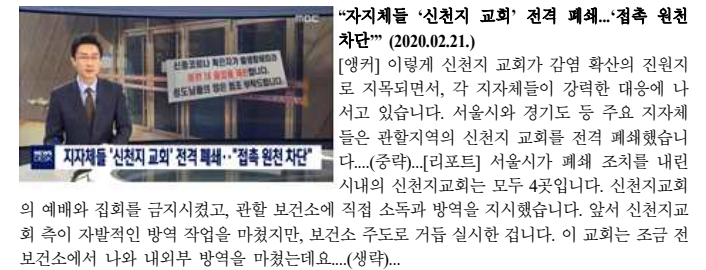
한편, 갈등/불만 프레임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이해주체 간 대립과 갈등적 요소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발생기(2020.01.20.~2020.02.17.)에 갈등/불만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입시생활시설 진천·아산 결정 반발 거세...진입로 차단 시위” (2020.01.29.), “‘우리 교민 따뜻하게 맞아달라’...확진자는 이틀째 4명” (2020.01.29.)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시민 간 갈등, 시민과 시민의 갈등이나 불만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MBC는 “中관광객 송환 주장까지... 與 ‘혐오주장말라’” (2020.01.29.), “예약취소에 손님 40% 줄어...관광업계 ‘울상’” (2020.02.01.), “동선 나올 때마다 휴원·휴업 속출...‘꼭 그래야 하나’” (2020.02.10.)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 갈등(여-야)과 시민과 시민, 시민과 자영업자,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 등의 불만이나 갈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SBS는 “농기계로 길 막은 주민들...아산·진천 격리 수용 반발” (2020.01.29.), “한국당 ‘중국인 입국 금지’...정부 ‘국제법상 큰 문제 야기’” (2020.01.29.), “밤 어디서 먹으며 눈물...감염 우려에 무료급식 중단” (2020.02.04.), “신종 코로나 검사 병원 확대...동남아 여행자 ‘우르르’” (2020.02.07.), “‘한 분도 올까 말까’ 확진자 다녀간 가게는 지금...” (2020.02.07.) 등의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와 시민 갈등, 정치권 갈등(여-야), 시민과 시민 갈등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45]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확산기(2020.02.18.~2020.02.27.)에 갈등/불만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문 대통령 ‘엄중한 상황...신천지 예배·장례 참석자 철거 조사” (2020.02.21.), “폐쇄·소독조치...진국 지자체,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 (2020.02.21.), “서울시 ‘광화문 등 도심 집회 금지’...일부 단체 ‘집회 강행’” (2020.02.21.)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 종교단체 갈등에 초점을 두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MBC는 “격리 기숙사 마련하면 뭐하나...中학생 신청 저조” (2020.02.18.), “자지체들 ‘신천지 교회’ 전격 폐쇄...‘접촉 원천 차단’” (2020.02.21.), “서울시 ‘집회금지’에도...관광객 ‘내일 그대로 강행’” (2020.02.21.), “‘한 장이라도 더’...은 가족 동원해 ‘마스크 구하기’ 전쟁” (2020.02.24.), “의료진 ‘확진’ 증가...‘병원 감염·의료 공백 우려’” (2020.02.24.),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연락 두절’ 교인 추적” (2020.02.24.), “‘매일 350만 장 쏟아더니 여전히 ‘마스크 없어요’” (2020.02.27.), “‘신천지 비밀 모임’ 민원 잇따라...‘폐쇄명령’ 의문” (2020.02.27.), “‘농성 천막’ 강제 철거...‘광화문 예배 강행’ 논란”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 종교단체, 시민과 시민, 종교단체와 시민, 정치권 갈등(보수-진보)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46] 코로나19 확산기 MBC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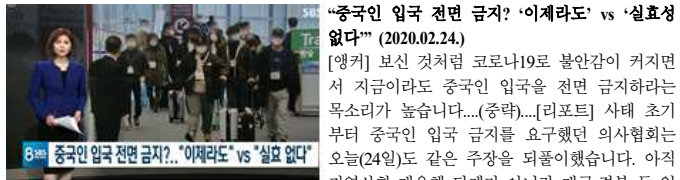


SBS는 “‘간병인 찾기도 힘들어요’...요양병원 돌봄비상” (2020.02.18.), “‘광화문 집회 금지한 서울시...주말 집회 강행’ 반발도” (2020.02.21.), “경기도, 신천지 시설 353곳 강제 폐쇄, ‘긴급행정명령’” (2020.02.24.),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이제라도’ vs ‘실효성 없다’”



(2020.02.24.), “농협도, 약국도 ‘마스크 아직’...190만 장으로 턱없다” (2020.02.27.), “‘마스크 판다’ 정부 믿었는데 헛걸음...고개 숙인 부총리” (2020.02.27.) 등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의료기관 갈등, 유관기관(의료)과 시민, 정부와 시민 등의 갈등과 불만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47] 코로나19 확산기 SBS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이제라도’ vs ‘실효성 없다’” (2020.02.24.)**

[앵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중략)...[리포터] 사태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했던 의사협회는 오늘(24일)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직 지역사회 대유행 단계가 아니라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 가능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면서도 입국 금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생략)...

대유행기(2020.03.01.~2020.03.19.)에 갈등/불만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경산 확진자 경북 최대, 왜?...45일 신생아도 확진” (2020.03.01.), “신천지 집단 생활 주목...행정명령 등 ‘강수’” (2020.03.07.) 등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종교단체, 정부와 시민의 갈등을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MBC는 “병상 없어 사망하다니..위급 환자를 최우선으로” (2020.03.01.), “신천지로 인한 검사 공백..전수조사 재검토” (2020.03.01.), “신천지 신도 일부, 1월에 중국 우한 다녀와” (2020.03.01.), “신천지 명단 누락 의혹..입수수색 영장도 반려” (2020.03.04.), “코로나가 물고 온 ‘경제적 재난’...내 이웃이 쓰러진다” (2020.03.19.)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종교단체 간 갈등, 정부와 시민/자영업자 간의 갈등을 다루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림 448]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신천지 집단생활 주목...행정명령 등 ‘강수’” (2020.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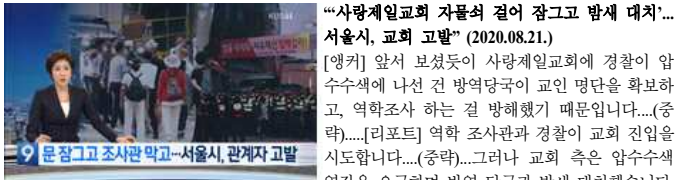
[앵커] 왜 임대아파트에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 살았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신천지 특유의 집단 생활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때문에 대구시가 모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중략)...[리포

트] 대구 한마을아파트 주변 주민들은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씩 함께 다니며 전도활동을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중략)...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10곳을 찾았다고 밝힌 대구시는,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을 확인해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신천지 신도들이 당장 집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생략)...

SBS는 “‘입원 대기’ 1천 500여 명...‘이달 초 중대 고비’” (2020.03.01.), “대구, 환자 급증에 관리 한계...시민들 ‘알아서 격리’” (2020.03.01.), “우한발 교인 없다더니..신천지 주장 뒤집은 조사 결과” (2020.03.01.), “환자복 입은 의료진..‘소독약도 음압기도 부족해요’” (2020.03.04.), “‘마스크 구매’ 오늘도 긴줄...‘다음 주엔 세스텝 구축’” (2020.03.04.), “‘못 샀어! 어디야?’ 약국마다 발걸음...5부제 앞둔 주말” (2020.03.0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와 시민, 시민과 시민 간의 갈등을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재확산기(2020.08.15.~2020.10.11.)에 갈등/불만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사랑제일교회 자물쇠 걸어 잠그고 밤새 대기’...서울시, 교회 고발” (2020.08.21.),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사랑제일교회 주장 사실 맞나?” (2020.08.21.), “여기 다 문닫게 생겼어요...사랑제일교회 이웃의 아우성” (2020.08.21.), “감염확화 등 유행 상황 대응 역부족...즉각 3단계 올려야” (2020.08.24.), “대통령-개신교, ‘방역’과 ‘예배’ 긴급 재확인...새 기준 나오나?” (2020.08.27.), “일단 멈춤에 벼랑 끝 골목상권...‘대책 절실’” (2020.09.04.), “경찰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또 ‘과잉대응’ 논란” (2020.10.08.)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와 종교단체, 종교단체와 시민,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다루는 보도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49] 코로나19 재확산기 KBS1의 갈등/불만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특히 교회 측이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역학 조사관들은 교회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시간만 낭비하다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잠겨 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나 직권남용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랑제일교회의와 관련된 각종 행사, 집회 참가자 현황과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며 교회 측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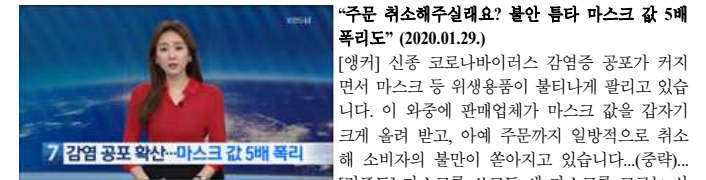
MBC는 “‘사랑제일’ 관련 첫 사망..중환자도 급증” (2020.08.21.), “공권력 보여줘라...필요하면 체포·구속” (2020.08.21.), “코로나보다 굶주림 주지않는 소상공인들” (2020.09.07.), “정은경 지참 따르라더니...또 ‘정부발표 못 믿겠다’?” (2020.09.17.), “신천지 탓에 피해 막심...‘87억원 배상하라’” (2020.09.17.), “임대료 인하 요구..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 (2020.09.23.) 등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종교단체, 지자체와 종교단체, 정치권 갈등(여권 내, 여-야) 갈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SBS는 “‘결혼식 설렘? 큰 숙제 같아요’..막막한 예비부부들” (2020.08.21.), “‘대면예배’ 교회 ‘힘으로 막기 전까지’, ‘별금도 감수’” (2020.08.30.), “‘영업시간 줄었으니 무급휴직’ 통보..일자리 방역 필요” (2020.08.30.), “‘文’ ‘민통 없이 차단’..차벽에 날 세운 양당” (2020.10.05.)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와 시민, 정부/지자체와 종교단체, 시민과 시민의 갈등, 정치권 갈등(여-야)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안정기(2020.10.12~2020.10.21.)에 갈등/불만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헤어나올 길 없어’...도심 상권 출몰이 폐업” (2020.10.21.), “‘폐업도 산 넘어 산’ 위약금 청구서 어찌나?...소송 가도 불리” (2020.10.21.)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들의 폐업 관련 불만, 임대료를 둘러싼 시민과 시민 갈등을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MBC는 “‘어제부터 마스크 씌운대요’..미리 알려주는 전수조사?” (2020.10.15.)

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지자체와 의료기관, 정부/지자체와 시민 간 갈등을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 비판 프레임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이해주체들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발생기(2020.01.20~2020.02.17.)에 도덕성 비판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주문 취소해주실래요? 불안 틈타 마스크 값 5배 폭리도” (2020.01.29.), “신종 코로나 사태 속 도심 대규모집회 논란” (2020.02.01.), “마스크 수요급증에 판매 사기까지...온라인 피해 속출” (2020.02.04.), “홍쇼핑서 마스크 판다더니 방송 전 ‘매진’...소비자 분통” (2020.02.0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마스크 장비 생산 및 유통기업과 일탈시민, 시민단체 등에 대한 비판 보도행태를 나타냈다.

[그림 4-50] 코로나19 발생기 KBS1의 도덕성 비판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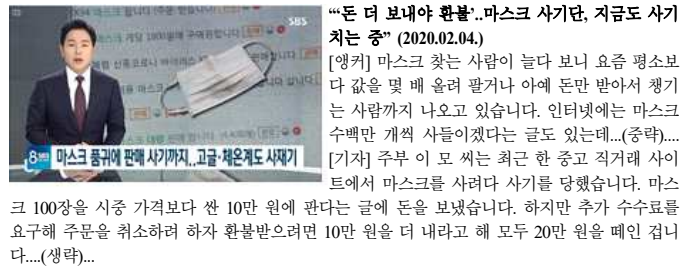


라姆들, 마스크를 박스째 사가는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이미 동난 곳도 많습니다...(중략)...이런 와중에 마스크 값을 평소보다 5배나 올려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전엔 630원이던 마스크 가격이 어제는 1800원, 오늘은 3150원으로 올려 받고 있습니다....(생략)...

MBC는 “‘더 외진 곳으로 바꿔달라’...일부 주민 ‘실력행사’” (2020.01.29.), “4만원 하던 마스크 ‘13만원’에...폭리에 사재기도” (2020.01.29.), “‘확진자 달아났다’ ‘숨졌다’...그 문자는 ‘가짜’” (2020.02.01.), “마스크를 찾아서..약국거리·홈쇼핑 둘러봤더니” (2020.02.07.) 등의 기사를 통해 KBS1과 유사하게 마스크 장비 생산 및 유통기업, 일탈시민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SBS는 “‘부르는게 값이죠’...마스크 ‘억대 현금 거래’ 현장” (2020.02.01.), “‘돈 더 보내야 환불’..마스크 사기단, 지금도 사기치는 중” (2020.02.04.), “마

스크 사러 밤 폴짝 잤는데...방송 전 매진...무슨 일?” (2020.02.07.),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2배 올려 팔려다가 ‘덜미’” (2020.02.10.)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마스크 장비 생산 및 유통기업, 일탈시민, 지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4-51] 코로나19 발생기 SBS의 도덕성 비판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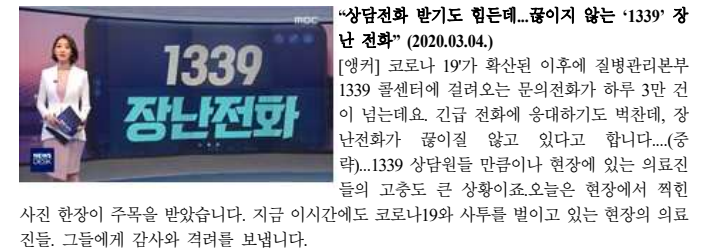


확산기(2020.02.18.~2020.02.27.)에 도덕성 비판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이만희 ‘마귀의 짓’...‘신도 23만여 명’ 신천지 종교활동 어떻게?” (2020.02.21.), “신천지, ‘우한 신도 357명...국내 입국 없었다’ 주장” (2020.02.27.), “‘대구 신천지 다녀왔다’ 거짓말로 검사받은 20대 구속”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단체와 리더, 일탈 시민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경향을 보였고, MBC는 ““마스크 3백만 개 여기 있었네..매점매석 ‘덜미’” (2020.02.18.), “와중에 ‘가짜 마스크’ 기승...유통기한 지운 소독제도” (2020.02.18.), “3배나 값 오른 손 소독제...‘약국에선 이미 품절’” (2020.02.24.) 등의 기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 및 유통기업(리더 포함), 일탈 시민을 비판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SBS는 ““대구 신천지 다녀왔다’ 허형 조사 중 거짓말 구속” (2020.02.27.), “대구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어기고 ‘대구 포항’ 이사” (2020.02.27.), “신천지도 인정한 ‘위장 교회 목사들’...명단 파악 관건” (2020.02.27.),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피소...‘코로나19 확산 책임’” (2020.02.2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단체 및 리더, 일탈 시민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행태를 나타냈다.

대유행기(2020.03.01.~2020.03.19.)에 도덕성 비판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수도권 누적 확진자 182명...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2020.03.01.), “코로나19 차단 ‘온라인 예배’...범투본 등 일부 교회 ‘예배 강행’” (2020.03.01.), “한지 마스크가 ‘기능성 황군 마스크’?...사기 일당검거” (2020.03.01.)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단체와 리더, 일탈 시민 등을 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MBC는 “적제함 열었다니 마스크 ‘빼곡’..경찰에 ‘덜미’” (2020.03.01.), “전광훈 목사 교회 예배 ‘강행’...다른 종교행사는 ‘취소’” (2020.03.01.), “코로나 때문인데..결혼식 취소 요구에 ‘위약금 내라’” (2020.03.04.), “마스크 품귀에...‘폐기처분’ 마스크를 약사가 유통” (2020.03.04.), “상담전화 받기도 힘든데... 끊이지 않는 ‘1339’ 장난 전화” (2020.03.04.), “소규모 교회일수록...‘자체 호소’에도 왜?” (2020.03.16.) 등의 기사를 통해 종교단체와 리더에 대한 비판, 일탈시민 등을 비판하는 보도행태를 나타냈다.

[그림 4-52] 코로나19 대유행기 MBC의 도덕성 비판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SBS는 “사라진 이만희, ‘건재 증거’ 위한 진단 검사 받았다” (2020.03.01.), “포대 속 ‘폐기 마스크, 한가득’...약국서 판매하다 들통” (2020.03.04.), ““신천지 예배 안갔다’ 거짓말하고 피부관리실 운영” (2020.03.04.), “은혜의 강 교회 밖 접촉 ‘2차 감염’..지역전파 우려” (2020.03.16.)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종교단체와 리더에 대한 비판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재확산기(2020.08.15.~2020.10.11.)에 도덕성 비판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KBS1은 ““복날 잔치’ 양평 주민 무더기 감염...경기도 108명 신규 확진” (2020.08.15.),

“체포된 광복절 집회 참석자 확진..경찰 감염 우려 ‘비상’” (2020.08.18.), “감염예방방법 위반 1900명..‘엄정한 사법처리’” (2020.09.0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탈 시민들과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 기사가 주를 이루었고, MBC는 “병원 탈출에 허위 명단까지..막 나가는 ‘사랑제일’” (2020.08.18.), “이 와중에 ‘예배강행’...‘전광훈을 믿는다’” (2020.08.21.), “집회 참가는 숨기고 동선은 속이고...31명 집단감염” (2020.08.27.), “후회의 눈물 흘렸던 ‘거짓말 강사’..결국 6개월 실형” (2020.10.08.) 등의 기사를 통해 종교단체와 리더, 일탈시민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SBS는 “마스크 없이 찬송가..동시에 터진 ‘교회 감염’ 비상” (2020.08.15.), “‘헌금 많이’ ‘다다다닥 예배’...이 위기에 같이 먹고 자고” (2020.08.15.), “건강하시라고 ‘보양식 잔치’ 했더니...양평 31명 확진” (2020.08.15.), “마스크 써달라’ 말에..출근길 공포의 폭행” (2020.08.27.)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단체와 일탈시민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4-53] 코로나19 재확산기 SBS의 도덕성 비판 프레임 기사표현 사례



“건강하시라고 ‘보양식 잔치’ 했더니... 양평 31명 확진” (2020.08.15.)

[앵커] 교회 외에 감염자가 또 많이 나온 곳이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입니다. 복날에 노인들 몸보신하라고 보양식 대접을 했는데 단체로 31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중략]...[기자] 불 꺼진 마을 회관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젯(14일)밤 이 마을 주민 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관도 폐쇄된 겁니다. 평균 70대인 확진자 대부분은 말복을 엿새 앞둔 지난 9일 보양식으로 마을 어르신을 대접하는 복달입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80대 A씨가 나흘 뒤인 13일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주민 60여 명을 접촉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결과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안정기(2020.10.12.~2020.10.21.)에 도덕성 비판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MBC의 “또 요양병원...‘출퇴근하는 간병인 전과 추정’” (2020.10.21.)이라는 기사 단 한건에 불과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방송사의 코로나19 시기별로 내용적 프레임 관련 보도내용의 기사표현 기본 특성을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4> 코로나19 시기별 내용적 프레임 관련 보도내용 기본 특성

	발생기 (20.01.20-02.17)	확산기 (20.02.18-02.27)	대유행기 (20.03.01-03.19)	재확산기 (20.08.15-10.11)	안정기 (20.10.12-10.21)
의료/방역 프레임	KBS1 우한 코로나19 감염확산과 감염원인, 전파경로, 유행 등에 대한 전망과 중국 내 대혼란, 국내 유입 및 세계적 대유행 우려 등	집단전파 가능성, 확진자 폭증 등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 신천지 발 지역 사회 감염 확산에 주목	중증환자 관리와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 등 집단/치료, 사회적 예방수칙과 개인 예방생활수칙 강조	국내 감염자 재확산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예방수칙, 여행 및 집합, 집회 제한, 개인 예방수칙 등	국내외 산발적 감염 전파경로, 해외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보도
	MBC 우한 코로나19 통제실패와 확산, 국내 유입가능성 차단 필요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확산과 주요 원인	진단/치료, 사회적 확산 등 장기적인 생활속 방역 강조	코로나19 재확산 강조, 감염원인과 전파경로, 유행 등 경고	
	SBS 중국 내 감염 확산 및 유행, 세계의 중국인 입국금지를 통한 유입 차단	코로나19의 신천지 발 지역사회 감염확산 강조	신천지와 그 이외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진단/치료	국내 집단감염 대유행 강조	
갈등/불만 프레임	KBS1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갈등 중심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 종교단체 갈등 중심	정부와 종교, 정부와 시민 갈등 중심	지자체와 종교단체, 종교단체와 시민, 시민과 시민 갈등 중심	소상공인 폐업 관련 불만, 임대료 기반 시민과 시민 갈등 중심
	MBC 정치권(여-야), 시민과 시민, 시민과 자영업자, 확진자 수출지역 자영업자 갈등 중심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 종교단체, 시민과 시민, 종교단체와 시민, 정치권 갈등(보수-진보) 중심	정부와 종교단체, 정부와 시민/자영업자 갈등 중심	정부와 종교단체, 지자체와 종교단체, 정치권(여권 내, 여-야) 갈등 중심	정부/지자체와 의료기관, 정부/지자체와 시민 갈등 중심
	SBS 정부와 시민, 정치권(여-야), 시민과 시민 갈등 중심	정부와 의료기관, 유관기관(의료)과 시민, 정부와 시민 갈등 중심	지자체와 시민, 시민과 시민 갈등 중심	지자체와 시민, 정부/지자체와 종교단체, 시민과 시민, 정치권(여-야) 갈등 중심	-
도덕성	K 마스크 장비 생	종교단체와 리	종교단체와 리	일탈 시민과 시	-



	발생기 (20.01.20~02.17)	확산기 (20.02.18~02.27)	대유행기 (20.03.01~03.19)	재확산기 (20.08.15~10.11)	안정기 (20.10.12~10.21)
비판 프레임	B S I 산 및 유통기업 과 일탈시민, 시 민 단체 비판	더, 일탈시민 비 판	더, 일탈 시민 등 비판	시민단체(광화 문 집회) 비판	
	M B C 마스크 생산 및 유통기업과 일 탈시민 비판	마스크 생산 및 유통기업(리더 포함), 일탈 시 민 비판	종교단체와 리 더, 일탈 시민 비판	종교단체와 리 더, 일탈 시민 비판	-
	S B S 마스크 생산 및 유통기업과 일 탈시민, 지자체 (구청)에 대한 비판	종교단체 및 리 더, 일탈 시민 비판	특정 종교단체 (신천지)와 리 더 비판	종교단체와 일 탈 시민 비판	-

## 제4절 소 결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기사 내용분석을 위해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발  
생기(2020.01.20. ~ 2020.02.17.), 확산기(2020.02.18. ~ 2020.02.27.), 대유행기(2020.03.01. ~  
2020.03.19.), 재확산기(2020.08.15. ~ 2020.10.11.), 안정기(2020.10.12. ~ 2020.10.21.)로 분류  
하여 약 9개월 동안의 국내 방송 3사(KBS1, MBC, SBS)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기사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양적 분석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 건수는 발생기 342건(23.4%), 확산기  
247건(16.9%), 대유행기 381건(26.0%), 재확산기 451건(30.8%), 안정기 43건(2.9%)으로 재  
확산기에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대유행기, 발생기, 확산기, 안정기 순  
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전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 건수는 SBS가  
504건(34.4%), MBC 493건(33.7%), KBS1 467건(31.9%)으로 SBS가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보였고, 코로나19 발생 시기별로 각 방송사의 보도 건수를 비교해보면, KBS1과 MBC, SBS  
모두 재확산기에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보였다.

둘째,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에 있어서 보도 프레임은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식적 프레임(단순 사실 전달 중심)의 경우  
에 전체적으로 사건중심 프레임(스트레이트)이 1,143건(78.1%)으로 주체중심 프레임(심층  
보도) 318건(21.7%), (사건중심과 주체중심) 혼합 프레임 2건(0.1%), 기타 1건(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보도 건수를 나타냈다. 방송사별로는 KBS1과 MBC, SBS 모두 사건중심  
프레임이 주체중심 프레임이나 혼합 프레임에 비해 높은 보도건수를 나타냈고, 코로나19  
발생 시기별로도 방송3사 모두 사건중심 프레임이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차지했다.

내용적 프레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의료/방역 프레임(원인, 증상, 검진, 치료 등 소개  
와 의과학적 접근에 치중하고, 방역행동 설명과 행동권고 등)이 1,030건(70.5%)으로 갈등/  
불만 프레임(사태 관련 이해주체 간 대립과 갈등 중심) 234건(16.0%), 도덕성 비판 프레임  
(사태 관련 이해주체들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평가 중심) 197건(13.5%)에  
비해 높은 보도 건수를 보였다. 방송사별로는 의료/방역 프레임이 갈등/불만 프레임이나 도

덕성 비판 프레임에 비해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차지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시기별로도 방송3사 모두 의료/방역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내용적 프레임 중 의료/방역 프레임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국내 질병역학이 437건(29.6%)으로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확산 관리 340건(23.0%), 진단/치료 223건(15.1%), 해외 유용한 정보 212건(14.4%) 순으로 분석되었다. 방송사별로는 방송3사 모두 국내 질병역학에 대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차지하였고, 갈등/불만 프레임의 경우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가 104건(44.3%)으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종교단체 52건(22.1%), 정치권 갈등(여-야, 보수-진보) 32건(13.6%), 정부/지자체-의료계 31건(13.2%)에 비해 높은 보도 건수를 보였으며, 방송3사 모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 간 대립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덕성 비판 프레임의 경우에는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가 79건(38.7%)으로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차지하였고, 방송3사 모두 종교시설/집단시설 및 리더 간 대립을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내 방송3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논조는 전체적으로 중립이 898건(61.4%)으로 부정 541건(37.0%), 긍정 24건(1.6%)에 비해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나타냈고, 방송사별로도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 논조에 있어서 긍정이나 부정보다는 중립적인 보도 경향을 가장 많이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국내 방송3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기사 유형은 스트레이트가 1,174건(80.2%)으로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획/르포 195건(13.3%), 해설/논평 55건(3.8%), 인터뷰중심 39건(2.7%)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도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가 기획/르포, 해설/논평, 인터뷰중심에 비해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나타냈다.

한편, 질적 분석에서는 코로나19 시기별로 방송3사의 형식적 프레임(사건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의료/방역 프레임, 갈등/불만 프레임, 도덕성 비판 프레임) 관련 보도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형식적 프레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중심 프레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발생기의 경우에 KBS1은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의, 정부대응 및 감염확산 위기 등에 대한 경고에 중점을 두었다면, MBC와 SBS는 해외의 확진자 수와 확산현황, 대처 및 위기상황 등에 중점을 두는 특성을 나타냈

다. 확산기에는 방송3사 모두 국내를 중심으로 신천지 발 국내 확산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위중함과 심각성을 보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SBS의 경우에 신천지 교인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유행기에 KBS1과 SBS는 신천지 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차단 노력, 경제위기, 대처방안 등에 대해 중점을 둔 반면에 MBC는 해외의 한국인 입국 금지와 경제위기, 신천지 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초점을 두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확산기에는 방송3사 모두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보였고, 안정기에는 방송3사 모두 감염경로와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발생에 대한 내용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주제중심 프레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발생기의 경우에 KBS1은 국내의 확산 가능성과 방역당국의 대응조치, 자진 신고 등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보도 특성을 보인 반면에 MBC와 SBS는 중국 내 확산상황과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해 보도하고, 그와 동시에 국내의 마스크 수급 및 확진자의 이탈행동, 국내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와 예방지침,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중점을 두는 보도 특성을 보였다. 확산기의 경우에는 방송3사 모두 국내의 코로나19 집단전파와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과 신천지 및 대형교회 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유행기의 경우에 KBS1은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른 의료문제(병상부족, 중증환자 등)와 코로나블투와 같은 심리적 문제, 소규모 전파에 의한 예방대책과 경제지원에 보도의 중점을 둔 반면에 MBC와 SBS는 신천지 발 지역사회 감염확산과 대규모 감염 위험성, 감염경로의 불분명과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에 중점을 두는 보도 특성을 나타냈다.

재확산기에는 KBS1의 경우 국내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과 감염경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원인규명의 어려움, 방역실패, 개인예방을 강조하는 보도 특성을 보인 반면에 MBC와 SBS는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확산과 검사거부로 인한 위험의 크기, 감염원인 및 전파 경로, 코로나블투, 경제적 어려움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필요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사회적 공동노력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는 보도 특성을 보였다. 안정기의 경우에는 방송3사 모두 안정기 이후 재개된 시민들의 일상적 모습과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계하는데 중점을 두는 보도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용적 프레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방역 프레임 중심을 살펴보면, 발생기의 경우에 KBS1과 MBC는 공통적으로 중국 우한의 코로나19 감염확산과 감염원인,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전망과 중국 내 대 혼란을 보도하는 한편 국내 유입 가능성과 차단, 그리고 세계적 대유행을 우려하는 보도에 중점을 둔 반면에 SBS는 중국 내 감염확산 및 유행에 따른 세계의 중국인 입국금지 등을 통한 유입차단을 보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확산기의 경우에 방송3사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의 집단전파 가능성과 확진자 폭증 등 국내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와 신천지 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원인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대유행기의 경우에 KBS1과 MBC는 중증환자 관리와 소규모 집단의 감염 확산, 진단/치료와 사회적 예방수칙 및 개인 예방생활 수칙과 생활 속 방역을 강조한 반면에 SBS는 신천지와 그 외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진단/치료 등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재확산기의 경우에 KBS1은 국내 감염자 확산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예방수칙, 여행 및 집합, 집회의 제한, 개인 예방수칙 등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보인 반면에 MBC와 SBS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그에 따른 재유행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였다. 안정기에는 방송3사 모두 국내의 산발적 감염과 전파경로, 해외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보도하는데 중점을 두는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갈등/불만 프레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정기의 경우에 KBS1과 SBS는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갈등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보였고, MBC는 정치권(여·야), 시민과 시민, 시민과 자영업자,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 간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확산기의 경우에 KBS1은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 종교단체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였고, MBC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 종교단체, 시민과 시민, 종교단체와 시민, 정치권 갈등(보수-진보)을 중점 보도하였으며, SBS는 정부와 의료기관, 유관기관과 시민, 정부와 시민 갈등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대유행기의 경우에 KBS1과 MBC는 정부와 종교, 정부와 시민 갈등을 중점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SBS는 지자체와 시민, 시민과 시민 갈등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재확산기의 경우에 KBS1은 지자체와 종교단체, 종교단체와 시민, 시민과 시민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한 반면에 MBC와 SBS는 정부와 종교단체, 정부/지자체와 종교단체, 정치권 갈등(여권 내, 여·야)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안정기에는 KBS1의 경우에 소상공인 폐업 관련 불만, 임대료로 인한 시민과 시민 갈등을 중점 보도한 반면에 MBC는 정부/

지자체와 의료기관, 정부/지자체와 시민 간 갈등을 중점 보도하는 특성을 나타냈다(SBS 기사건수 없음).

셋째, 도덕성 비판 프레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발생기의 경우에 방송3사 공통적으로 마스크 생산 및 유통기업과 일탈시민을 비판하는데 집중 보도하는 특성을 보였고, 확산기의 경우에 방송3사 공통적으로 리더와 일탈시민에 대해 비판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대유행기의 경우에 KBS1은 리더와 일탈시민에 비판하는 특성을 보인 반면에 MBC와 SBS는 종교단체(신천지 등)와 리더, 일탈 시민 등을 비판하는데 집중하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확산기의 경우에 KBS1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를 비판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MBC와 SBS는 종교단체와 리더, 일탈시민 등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국내 재난방송 보도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 건수는 전체적으로 SBS가 가장 많았던 반면에 주관방송사라고 할 수 있는 KBS1은 가장 적은 보도 건수를 나타냈다.

둘째,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프레임을 살펴보면, 형식적 프레임은 사건중심 프레임이 주제중심 프레임이나 혼합 프레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에 있어서 이슈나 사건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대안 및 대책을 제공하는 분석적, 평가적 보도내용보다는 코로나19 관련 단순 사실전달에 초점을 두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배경 설명 없이 이슈나 사건 위주로 전달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주관방송사라고 할 수 있는 KBS1의 경우에도 MBC나 SBS와 마찬가지로 사건중심 프레임이 압도적인 비율로 높았다는 점은 이슈의 단순 전달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 설명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코로나19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각각시키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방행위를 촉진시키며, 사회적 공동노력과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야 할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단순 사실 전달이나 묘사(사건중심 프레임)는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유발함으로써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재난방송 관련 내용적 프레임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의료/방역 프레임이 갈등/불만 프레임이나 도덕성 비판 프레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방송3사 모두 사태 관련 이해주체 간 대립이나 갈등(갈등/불만 프레임), 이해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 평가(도덕성 비판 프레임) 보다는 코로나19 관련 원인과 증상, 검진, 치료, 의과학적 측면에서 방역행동을 설명하고 특정 행위를 권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 비교적 원만하게 수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 시대에 언론, 방송의 역할이 작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사실 공유 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사회 이슈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이슈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중의 의견이 분열될 때에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담론을 유지해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감염병보도준칙’(2020년 4월 28일 제정)을 발표한 것은 이런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다.

감염병보도준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할 것을 강조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감염병 보도에는 △질병정보 △확진환자 현황과 이에 관련한 정보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이를테면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확하지 않거나 오인할 수 있는 정보는 불안을 가중하거나 불필요한 보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준칙을 지키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문제 보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비상’, ‘사망 급증’, ‘연락 두절’, ‘초국가적 대란’, ‘바이러스 섬’, ‘우왕좌왕’, ‘확진자 폭증’, ‘불안감 증폭’, ‘오리무중’, ‘방치’, ‘갈팡질팡’, ‘감염급증’, ‘방역 전쟁’, ‘국난’, ‘비상사국’, ‘악몽’, ‘예고된 참사’, ‘폐나’, ‘전시 태세’, ‘긴급명령’, ‘비참한 상황’, ‘공포’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뉴스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감염병보도준칙을 잘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기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잘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관련 보도를 할 때, 일반적 사건이나 사고를 다루는 방식보다는 신중하고 심층적이며 전문

적 보도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보도를 통해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자는 감염병보도준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그에 기반하여 심층적인 취재 및 보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방송사(KBS1, MBC, SBS)의 코로나19 재난방송 보도 분석 결과, 국내 질병역학(438건), 사회적 확산 관리(341건), 진단 및 치료(223건) 등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은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일반 개인의 예방과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일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방송사 모두 기획/리포(195건), 해설/논평(55건), 인터뷰중심(39건) 보다는 스트레이트 기사(1174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심층성이나 전문성이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다는 것은 이슈나 사건발생과 관련된 전체적인 맥락이나 배경 없이 즉각적인 발생에만 주목하여 단순 사실 전달, 이슈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전달하는 사건중심 프레임이 많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전문성이나 심층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는 전방위적이다.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의료진들의 헌신과 살신성인의 노력, 성숙한 시민의식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에 대한 반성과 기억을 교훈 삼아 ‘재난보도’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오보와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혐오와 차별과 인권침해, 과도한 공포 유발 등이 그 이유다. 2014년의 세월호 대참사,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 상황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두 재난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재난’이 발생하고, ‘보도재난’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진공 상태에서 전개되는 ‘특수한’ 재난상황을 넘어섰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이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보도를 ‘재난보도’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정치뉴스이자 경제뉴스이며, 사회뉴스이자 문화뉴스이며, 국제뉴스이자 외교뉴스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현실 공간과 사건과 뉴스가 중첩되고 얽혀 있다(정수영, 2020). 우리는 ‘재난보도’에 대한 반성과 기억에도 불구하고 ‘보도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지의 재난 역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재난'이 아니라 '보도'에 천착해야 하는 이유이다. '재난보도'의 '특수성'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기본 원칙의 '보편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재난방송 보도 개선방안

### 제1절 개요

국내 재난방송 보도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행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했다. 2020년 12월 한 달간에 걸쳐 재난방송 보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교수 4명, 연구자 5명, 그리고 방송업계 및 유관기관 6명을 포함해 총1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내용은 재난방송 보도에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니터링 활동, 주관방송사 평가, 기타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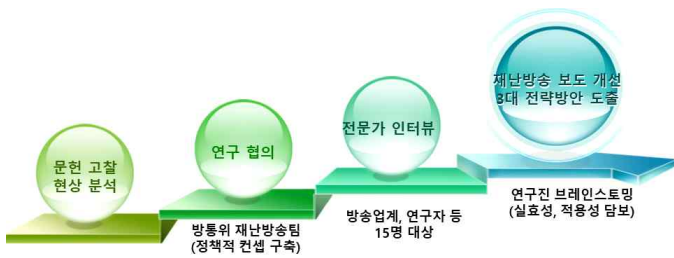
<표 5-1> 전문가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재난방송/ 보도 일반에 관한 질문	1. 귀하는 현시점까지 국내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및 재난 보도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 방송(사)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2 정책/법/제도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3 방송(사)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4 정책/법/제도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 국내 재난방송 보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국내 재난방송 보도는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시면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 또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방송/ 보도	3.1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는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3.2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요? 3.3 위에서 언급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난방송/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국내 방송의 재난방송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2 국내 방송의 재난 보도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러할지요. 4.3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법 제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까요?

재난방송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질문	5.1 재난방송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5.2 재난방송 보도 관련 방송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3 재난방송/보도 관련 방송심의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 효율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에 대한 질문	6.1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 및 권한, 성과와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2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율규제 등	7.1 방송사의 자율규제 강화(재난보도준칙 준수) 위한 현실적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 재난보도준칙의 보완/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대안 또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방송 차원 및 정책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 도출 프로세스 및 3대 전략방안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1] 개선방안 도출 프로세스



9) 상세 인터뷰 내용은 부록2. 참조.

<표 5-2> 재난방송 보도 개선 3대 전략방안

전략 방안	내용
재난방송 고도화	* 방송사의 재난방송(보도) 고도화 ; 신속·정확한 방송으로 신뢰 제고 * 법 제도적 개선 및 지원 강화
재난방송 거버넌스 및 시스템 구축	* 재난방송 거버넌스 구축 * 재난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관방송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	* KBS의 권한 및 임무(역할) 재규정

## 제2절 재난방송 고도화

### 1. 방송사의 재난방송(보도) 고도화 ; 신속·정확한 방송으로 신뢰 제고

재난방송 보도는 사건사고 보도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화재 또는 지진 발생 등의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것은 사건사고 보도와 다르지 않다. 재난방송 보도는 예방, 대응,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 등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이에 부합한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방송과 보도의 일차적 목적은 일반 시청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지역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난이 수습된 이후의 목적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하는 것에 있다. 즉, 재난방송 보도는 재난의 전개 과정에 따라 목적과 대상,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재난방송 보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기준은 상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적용할 것인지는 재난방송 보도의 정의와 범주, 재난의 전개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충하는 두 개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명확하고 촘촘하게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속도 경쟁이 아닌 정확성 높은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난 이슈를 마치 일반사건 사고와 같이 일회성의 이벤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리스크로 생각하고 대비하려는 방송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신속성을 앞세우는 경쟁적 환경을 지양하고, 정확성을 우선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장기화되면서 반복되는 보도로 인해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이 지적된다. 자세한 재난관련 현장정보 전달에 충실한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송출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에 피로감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sup>10)</sup>

10) 특히 라디오의 경우 방송내용의 상당부분이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수칙 안내(격리자와 접촉 제한, 손 소독과 환기 등 일반 내용)에 집중되고 있어 라디오 청취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증가되는 상황이다. 라디오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진행자가 구두로 재난 방송 요청 내용을 그대로 읽어 전달하므로, 방송사와 청취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범위, 재난의 속성에 대한 사전적인 구분 및 개념 정의에 대한 방송사들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뉴스가 재난의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면 그 외 방송프로그램들은 예방 정보나 발생된 재난의 복구에 대한 정기성을 토대로 한 방송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방송사의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사전에 재난에 대한 대비방안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홍보나 교육적인 프로그램 제작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도 중요하지만, 그 대처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양/예능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지상파, 종편, 보도PP의 경우 재난방송 관련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만,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재난방송 보도 관련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며,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계 및 시민 또는 시청자 활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방송, 지역케이블과의 연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시민기자 또는 시청자와의 연계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귀화인, 관광객 등 외국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어방송, 수어방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일부 의무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시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편성 확대도 필요하다.

방송사는 재난의 종류별로 대처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기존의 매뉴얼 보완),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편성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방송 책임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 및 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솔루션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도 준칙 및 방송매뉴얼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저널리스트의 육성이 요구된다.

국내 방송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보도하면서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상황을 단순 기술하는 스트레이트 중심의 뉴스들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신종플루와 메르스,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재난방송과 유사한 행태이다. 재난 발생과 피해상황, 사망자 수와 같은 사후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재난의 원인과 통제방안, 정부 대응의 적절성 검증, 시민들의 실천방안 보도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재난에 대한 단순 사건보도식 뉴스 제

작을 탈피하여, 심층적이고 맥락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뉴스 제작이 요구된다.

국내 재난방송 보도는 여전히 지나치게 뉴스 속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속보의 방송사 간 경쟁이 부정확한 재난정보, 선정적 보도, 중복·편중 보도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자 배려 부족 및 무리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과도한 취재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법, 제도라는 것은 따로 없기에 기자들의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교육이나 직업윤리 준수에 대한 자극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의 목적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방송의 목적은 신속·정확성의 원칙(quickness and accuracy), 피해자 중심의 보도(victim-centered), 인권보호 원칙(human rights protection)이라는 재난보도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이연, 2014). 이와 같은 재난방송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실제로 대다수 방송사들은 자체 재난 방송 매뉴얼과 재난방송 준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사들은 지나치게 취재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정확한 보도나 피해자 중심의 보도 등 재난보도의 중요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방송 보도준칙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반복되면서 재난방송과 재난방송 보도 준칙 준수의 간극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보도 화면 송출에서 현장 화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거나, 자극적인 장면을 지속 송출하는 등 시청자 혹은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 또는 시행준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상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거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현행 재난보도준칙 역시 신문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관한 다양한 강령이나 준칙,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내용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 우리 언론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난방송 보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재난 현장에 적합한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 역시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코로나19는 재난방송 보도로 국한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국면

이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과 직결될 만큼의 복합재난에 해당하며, 재난방송 보도 관련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이미 넘어서는 것이며, 이러한 성격의 재난은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난보도준칙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저널리즘 원칙, 관련 준칙이나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강령(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방송강령 등) 등을 현실의 보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보도, 저널리즘 교육을 충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리강령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선언적인 내용은 그 실천력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 가능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재난보도준칙을 기본준칙으로 삼아, 감염병,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별 세부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 보도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기자라도,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과 취재, 보도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유형에 따른 보도 준칙과 교육이 요구된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재난보도 준칙과 감염병 보도 준칙 등을 별개로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재난방송 보도 관련한 규정을 취재보도준칙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재난방송이나 감염병 등의 보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재난방송 보도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재난보도 준칙의 내용이 부족하다기보다 준칙을 제대로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방송사 스스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자사의 보도라도 냉정하게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시청자에게 알리고 개선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 2. 법·제도적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 및 재난방송 관련 법령으로부터 지나치게 배제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정부부처가 포괄되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8년 2월 23일 심의 의결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은 5년 동안 3조 7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각 정부부처가 진행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에 따라 생성된 재난정보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의 역할이 적지 않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부처에 포함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무엇보다 재난정보나 경보발령 주체가 너무 다원화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방송 요청 주체가 방송사에게는 행안부, 과기부, 방통위, 산림청, 지자체 등 경로가 다양하고 요청 포맷도 일치되지 않아 즉각적인 방송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적된다. 방송사에 재난관련 방송이나 보도를 요청하는 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또한, 요청내용이 프로그램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난발생 정보에 대한 통보보다는 방송프로그램용 형식으로 즉시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요청이 되면 전달시 지연이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등의 조항을 통해서 재난방송과 보도는 법·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기존의 지상파, 종편, 보도PP 방송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를 포함한 재난방송 시스템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가이dra라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법과 시행령 또는 규칙 등을 통해서 구체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케이블 지역채널이 유료방송 M&A 상황에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등에서 그 의미가 검증된 사례를 참고하여, 케이블 지역채널이 재난방송을 포함하여 그 역할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송 외에 인터넷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OTT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OTT를 통해 재난상황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튜브를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짜뉴스의 폐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층, 어린이 등)는 이중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방송과 인터넷/모바일 매체의 연동이 필요한 바, 정부 관련 부처 합동으로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와 통합적인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방송에 대해 심의와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항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반영해야 한다. 재난 관련 보도준칙들의 문제는 이러한 보도 준칙을 기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언론사들의 무리한 속도경쟁 때문에 재난보도준칙이 있어도 이를 지킬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미국 등에서는 윤리강령 등 준칙을 어기는 기자는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다. 회사 차원에서 준칙을 안 지켰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한다. 오보가 나올 경우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도 규제는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재난방송 준칙 준수의 미흡은 재난방송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보도 준칙 준수에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은 재난방송 보도 준칙의 교육 의무나 준칙을 재난방송 관계자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도적인 강제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데 있다. 법·제도적 강제방안의 미흡은 연쇄적으로 재난방송 관계자들의 준칙 준수에 대한 자발적 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재난방송 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사업자들의 재난방송 실시여부나 재난방송 준칙 위반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 보도 내용물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사후 심사를 하고 있으나, 그 제재수준이 낮아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난방송 준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5개 언론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을 토대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방송 준칙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재난방송 준칙을 실제로 이행하는 관계자들의 반복된 학습과 실례훈련을 통한 재난방송 준칙 체화(embodied)에 있다. 방송유관기관을 통해 재난방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재난방송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매뉴얼 비치 및 교육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보도의 초점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취선을 다하고,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게 느끼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난 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자일지라도 재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과 취재·보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특화된 보도 가이드라인과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등이 필요하고 재난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교육의 의무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제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방송사 합동으로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각 방송사에만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주관으로 기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재난방송 관련 법과 표준 매뉴얼, 지침을 상황별로 심층적으로 교육하고, 이에 대한 교육결과를 기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해외연수 선발시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다.

전국 대상의 네트워크 방송사와 지역 채널 간의 연결이 필요하고, 재난에 대한 상황과 피해 및 안전수칙 등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호 간의 역할 구분, 상호연계, 단계별 매뉴얼 등을 위해서는 방송사가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송사들은 매뉴얼에 의한 지침 및 준칙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긴급한 재난방송에 대비한 방송사 자체 재난 실시 요령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방송사나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 등을 연구하여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재난방송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와 함께 의무를 부과하여 자율규제를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재난방송의 인적·물적·기술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특히 지역방송사)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재난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재난 시 행동요령, 대피, 예방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채널이나 프로그램, 빅데이터 활용 등 고차원 재난정보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할 것이다.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사마다 획일적인 정보 전달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송사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재난보도 준칙을 잘 준수하는 방송사에게 추가적인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규제와 모니터링으로 감시와 견제 위주의 현재 정책방향을 벗어나 잘 이행하는 방송사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 제3절 재난방송 거버넌스 및 시스템 구축

### 1. 재난방송 거버넌스 구축

재난방송 거버넌스<sup>11)</sup>를 확립해야 하는바, 우선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운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재난방송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이를 담당하는 방통위가 주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sup>12)</sup> 또한, 재난정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극적 화면 반복방송보다 대피방법·장소 등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난정보 제공 민간협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과기정통부·행안부·주관기관(사회재난 관련 20개 부처)·주관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에 자료DB를 구축·활용하면 될 것이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직접 방송사에 재난

- 
- 11) 거버넌스(governance)란 거버먼트(government)로서의 정부뿐 아니라 위협을 통제하려는 모든 사회적 요소들(관련 행위자들, 논의 및 결정 과정, 문화와 전통, 사회적 규약과 제도 등)이 함께 작동하는 사회적 기제를 말한다. 위협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공동대처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위협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동체주의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 12) 2021년 1월 7일 감사원은 IPTV·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재난방송 점검을 소홀히 한 과학교육정보통신부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18개 유료방송사업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난방송 396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난방송이 5분 이상 지연된 경우는 4,142건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현황 점검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방통위가 재난방송과 관련해 9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주의를 결정하고 “재난방송 모니터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시간 및 채널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 보도자료, 미디어스 2021.1.8.).

예상 진행경로, 대피요령, 대피장소 등 안전정보와 CCTV(정부·지자체) 영상 등 실질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산림청이 산불 재난현장 헬기영상(주간), 드론영상(야간), 산불피해 구역지도, 시간대별 산불확산 예측정보 및 안전대피 장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안부·도로공사·서울시 보유 등 총 7,632개와 KBS 자체보유 35개가 그 대상이 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는 정부 및 자체 장비(CCTV 등)를 통해 확보한 영상자료를 2차적으로 다른 방송사에 개방해야 한다.

지역방송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산불 등 지역에 한정된 재난 발생 시, 1차적으로 해당 지역방송(SO 포함)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상파, 종편·보도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 시청각장애인 전용TV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지진(5.0이상)·민방위사태에만 의무화된 영어자막 재난방송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관방송사의 경우에는 다국어 재난방송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제작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UHD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 기술이 실험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생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과 연동된 통합적인 정보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재난은 반복적 예측을 통한 방어가 더 중요하다. 재난발생시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해 축적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방송 빅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그 기반에서 제도, 규제, 기술 등을 개선해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 2. 재난방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허위조작정보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방송 관련 가짜뉴스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각 방송사가 팩트체크를 하지만 재난방송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방송되기도 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재난방송 모니터링은 방송편성 의무 달성 여부와 재난방송 주관방송

사에 대한 점검 정도로, 언론사의 재난방송 및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방송심의 외에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재난방송 모니터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가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에 집중된 재난방송 보도 관련 심의를 주로 얼마나 빠르게 재난방송을 시작했는지, 적절한 편성시간이 부여되었는지를 주로 심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난 관련 보도 내용의 정확성 등을 심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재난방송 누락 시 제요청과 과태료를 처분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인력·장비 부족으로 일부 방송사에 대해서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최근 재난이 일상화되어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강조되면서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요구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누락하더라도 다시 재난방송을 요청하지 못해 해당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은 재난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재난방송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24시간 실시간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적 대응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즉, 재난방송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통해 재난방송 실시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재난방송 누락 시 즉시 재난방송을 제요청하여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며, 재난관련 기관 및 다른 방송사에서 생성된 재난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재조치를 중하게 내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종편·보도PP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가칭) 재난방송 충실성’ 관련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 내에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재난방송팀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상황실 업무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 상황실 운영 초기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 및 재난방송 매뉴얼 등에 근거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바, 재난방송 실시기준 및 준칙 준수 여부, 정확성 및 신속성 여부, 취약계층대상 서비스(수어, 영어 등) 제공 여부 등이 되겠다.

[그림 5-2] 재난방송 보도 점검 및 모니터링 기본 항목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속보 여부	홀립 자막방송 (피해(자) 현황, 정부 대응상황, 예방수칙)	국민행동요령 스팟영상	영어 홀립 자막방송	수어방송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들(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제약,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나아가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내용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바, ① 재해 예방 ② 재해상황/대응 현황 ③ 재해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 ⑤ 책임 소재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 등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방송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표 5-3> 재난방송 내용분석 기준 (모든 재난 공통)

주제 및 내용	상세 구분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집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 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	① 재해 임박 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진로/강수량 등) ② 예방행동요령/대비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 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
재해 상황/ 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된 상황/ 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	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현상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령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	①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이제민) 구조/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
사후 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 대안에 대한 정보/뉴스)	① 재난지역 선포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시설보완/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백서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
책임소재 (책임소재에 대한 정보/뉴스)	① 책임자 처벌 ②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⑤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⑥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⑦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 상황을 선정적/자극적으로 방송하는 정보/뉴스)	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에/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숨구치는 불길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탈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

또한, 재난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절한 방송 대응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바, <표 5-4>와 같이 재난 속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표 5-4> 재난방송 내용분석 기준 (재난 유형별)

재난 유형	내용분석 기준
감염병 사례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시간지속적 재난]	-1. 감염병에 대한 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현황 보도 -2. 감염병에 대한 의료(치료)방역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3. 감염병의 감염 경로/원인 등 예방/대비 관련 정확한 보도 -4. 감염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정보 제공
지진 사례 [예측할 수 없고 초단기적 광범위한 지역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	-1. 지진 발생에 대한 신속보도/특보 [지진 성격상 신속보도/특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 -2. 여진의 발생 대비 대피행동요령 정보 -3. 지진 상황, 대피상황, 피해 현황에 정보 ① 지진의 강도/진원지 ② 지진 피해 발생지역 ③ 통신시설/방송시설의 피해 여부 ④ 대중집합기관/시설/고층건물(학교, 빌딩 등)의 안전 또는 피해 ⑤ 국가핵심시설(원자력발전, 방사선편기물 저장소, 댐, 공항 등)의 안전 또는 피해 ⑥ 석유/화학 단지 등 산업단지의 안전 여부 ⑦ 문화재 등 역사문화 관련 피해 ⑧ 기타 -4. 지진시 대피행동요령 상세 안내
태풍(홍수, 폭우) 사례 [예측 가능하고 예보 가능한 재난]	-1. 태풍 대비/대피/관리 안내 보도 ① 태풍 대비 ② 대피 방법 ③ 국가핵심시설 관리정보(원자력발전, 댐 등) -2. 태풍 상황 및 피해 현황 신속 보도 ① 예상진로 ② 예상되는 지역별 사태(강풍, 해일, 폭우, 산사태) ③ 빌딩붕 낙하물 ④ 침수(농경지, 차량) ⑤ 강/하천 범람 ⑥ 정전 ⑦ 차량침수 ⑧ 기타 -3. 태풍 위험경보의 신속 보도 ① 태풍주의보, ② 강풍주의보, ③ 해일주의보, ④ 산사태주의보 -4. 태풍 위험지역의 신속 보도 ① 상수취수지역 ② 산사태위험지역 ③ 국가핵심시설(원자력발전, 댐, 공항 등) ④ 교통통제지역/도로
대형 산불/화재 사례 [예측할 수 없고 급속히 확산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1. 대형 산불/화재 발생에 대한 신속보도/특보 -2. (산불)국가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보도 -3. 지역/인근 주민 대피령에 대한 신속한 보도 -4. 지역/도로 통제 상황에 신속한 정보제공

재난]	-5. 대형 산불/화재 시 대피행동요령 상세 안내 -6. 대형 산불/화재 상황, 대피상황, 피해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① 대형 산불/화재의 번짐 방향 ② 피해 발생 지역/상황 ③ 통신시설/방송시설의 피해 여부 ④ 대중집합기관/시설/ 고층건물(학교, 빌딩 등)의 안전 또는 피해 ⑤ 국가핵심시설(원자력발전, 방사선편기물 저장소, 댐, 공항 등)의 안전 또는 피해 ⑥ 석유/화학 단지 등 산업단지의 안전 여부 ⑦ 문화재 등 역사문화 관련 피해 ⑧ 기타
미세먼지 사례 [예측 가능하고 예보 가능한 재난]	-1.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지역별/시간대별 예보 -2.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경보 등 신속한 보도 -3. (초)미세먼지 대비 요령에 대한 정확한 보도 -4.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보 제공
폭발사고 사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갑작스런 재난]	-1. 폭발사고 발생에 대한 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 -2. 2차 폭발 대비 인근 지역 대피 명령 등 대피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3. 인화성/유독/연기 물질 또는 굉음(청각 장애유발) 등에 대한 대비 요령 관련 정확한 보도 -4. 폭발사고 예방 또는 대응에 대한 정보제공
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사례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시간지속적 확산형 재난]	-1.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 -2. 가축감염 증상(의심증상), 차단방역 협조, 가축 이동제한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3.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지역별 대비/조치 요령에 대한 정확한 보도 -4.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정보 제공
붕괴사고(건물, 댐 등) 사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갑작스런 재난]	-1. 붕괴사고에 대한 (지역별/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 -2. (대규모 홍수/지진 시) 붕괴 징후의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3. 붕괴시/매몰시 긴급 피난/대피 요령(장소)에 대한 정확한 보도 -4.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위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환경(수질)오염 사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시간지속적인 재난]	-1.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 -2. 수질오염 영향권에 대한 대피 명령 등 대피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3. 수질오염 구별법(맛/색깔, 기름, 이상 어류 활동 또는 어류 폐사)에 대한 정보 제공
화학물질 사례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시간지속적 확산형 재난]	-1. 화학물질 재난 발생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 -2. 독성가스 확산, 이에 따른 대피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3. 화학물질에 의한 개인 피해(입, 호흡기, 피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조치 요령(안전대피, 노출 최소화 등)에 대한 정확한 보도 -4.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정보제공

한편, 재난방송이 국가적 위기(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리 정책 및 조치에 반영되고 상시 공조 협력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 정책당국, 시청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 조직에서 상시적으로 취약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칭)재난방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학계(재난방송 및 방재 분야), 방송업계(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시청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해 평가체계 확립 및 조정, 모니터링 결과 검토, 제재(과태료 부과 등) 및 포상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와 더불어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관심 환기를 위해 시상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자, 방송사는 물론이고 현장 영상을 제공한 시청자를 선별해 시상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결과 공론화, 그리고 백서 발간 작업을 통한 공론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가칭)재난방송정책위원회의 역할
· 재난방송 정책 수립 자문 및 권고
· 재난방송 평가체계 확립 및 조정
· 모니터링 결과 검토 및 승인
· 지상파, 종편·보도PP의 '재난방송 충실성'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수위 결정 : 제재조치, 포상 등
· 백서 발간 등 재난방송 고도화 분위기 조성(공론화 등)에 기여

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상시 법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4절 주관방송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

### 1.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한 진단 및 평가

현재 국내 재난방송은 KBS가 주관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과 고시에서는 KBS를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다. 보도국 재난방송센터에서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산불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뉴스와 정보를 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확진자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전 세계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재난방송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코로나19 현황을 다양한 통계 자료와 그래픽을 활용해 보도하고 있다. KBS 보도국 전체가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체제로 전환돼 24시간 재난방송을 하고 있다.

KBS는 최근 몇 년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법률적 의무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법적 위상 약화,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의 권한 및 책임을 법률에 규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2019년 고성 산불 이후 20개 정부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반영하며, 재난방송 책임자를 격상하고, 핫라인 등을 구축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난에서 여전히 한계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책임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모의훈련,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방송, 재난방송 시스템의 표준화에 기여하는 것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이라면 이는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등의 법률 중 어딘가에 재난방송을 주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방송의 주관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송사들과의 협력과 관련된 권한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KBS 스스로 재난방송과 관련된 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방송 주관방송사이지만 재난방송의 주된 영역이 자연재난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재난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재난방송에 대한 투자 역시 재난정보를 수집하는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 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운영체계인 대응프로세스와 같은 부분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전국적 재난에 비해 지역적 재난에 소홀하고 대응이 미비한 점도 문제다. 재난의 기준을 전국수준으로 고려하다보니 특정 지역에서는 힘든 재난상황이어도 KBS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재난으로 볼 수도 있다.

KBS는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수신료 및 방발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방송을 위한 기술 개발, 관련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두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수신료와 방발기금을 바탕으로 구축된 재난보도 시스템의 성과는 다른 방송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실효성 있는 재난방송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방송사에게도 제공되어야 할 기술적 특성이나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 2. 권한 및 임무(역할) 재규정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주관방송사 KBS의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다. KBS는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안전중심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실시간 재난상황은 물론 예방·대처·사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난관련 정보를 전용 방송채널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송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KBS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주관방송사 재난방송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난방송 결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책임규명이 따라야 한다.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

난전문가 양성 및 보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법령은 재난 발생 시 KBS가 주관방송사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며 재난방송 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강제력이 약하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의 주관방송사로서 권한 및 책임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권한으로는 재난관리기관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에 필요한 시스템(재난방송 전용스튜디오, CCTV 설비 등) 구축을 위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행안부 상황실과의 핫라인 개설 지원, 정부·지자체 CCTV 영상정보 공유, 주관기관의 실질정보 우선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주관방송사(KBS)·행안부(상황실)·재난관리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뢰성 높은 재난정보 입수를 지원해 상황판단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의무)과 관련해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신설할 수 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 및 고시 개정). 재난방송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방송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관련예산을 마련하고, 재난방송에 대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재난방송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한 후 공표하는 책임을 지을 수 있겠다.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난상황 그래픽 표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난별 국민 행동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 및 외국어 자막방송 실시 및 과태료 규정 신설, 他방송사에 재난정보 개방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SNS와 적극 제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지원, 관련 법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재난방송과 관련된 부분이 KBS의 고유한 책무이자 공공 서비스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44조 KBS의 공적책무와 제54조 업무에 재난방송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책무 하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할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또는 고시 제정을 통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관방송사가 재난방송을 매우 중요한 책무로 여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하면서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상시성을 정부, KBS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종편채널, 케이블, 보도채널 등과의 협력체계도 상시 점검해 범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는 KBS와 지상파 외에도 다른 미디어채널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조력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재난방송의 노하우는 전문인력 양성에서 나온다. 재난전문기자의 육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에도 사원들에 대한 정기적 재난방송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평소 관계기관 간에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전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일과 후 시간에 근무하는 당직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KBS와 지역방송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 본사와는 별도로 지역총국 중심의 재난보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적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 재난 기준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KBS로 하되, 광역지자체장에 의한 국지적 기준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사가 주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법이며, 공적 자원의 투입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평상시에 재난 관련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규모 산불이 났을 때, 어딘지도 가늠이 안 되는 산불현장 화면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날씨와 바람, 지형 등을 고려하여 현재 산불이 언제쯤,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각화된 그래픽 화면을 보여줘야 한다. 재난방송 관련 보도 외에 심층적인 재난방송 프로그램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현재의 수어방송 외에 화면해설방송, 외국어방송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제6장 결 론

국내 재난방송은 ‘방송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면서 재난방송의 역할과 내용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의 재난방송은 재난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 관련 취재보도의 법적, 윤리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취재기자들 역시 속도 경쟁에 매몰되어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이 무시되기 일쑤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할 재난 정보는 알맹이 없는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보도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재난의 발생 직후에 재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송해야 할 법적 주체인 지상파,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들은 초기 대응 미흡, 늦장보도, 정보의 불충분성, 오보 등 할량 미달의 재난보도로 인해 재난수습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재난보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사, 그 중에서도 방송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 보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재해는 사전에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방송보도를 통해 국민의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난방송의 문제점은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재난방송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재난방송의 효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재난방송의 현실 및 문제점을 진단,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을 기반으로 신뢰를 담보하는 재난방송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재난방송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들은 재난방송(보도)을 고도화해 신속·정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신뢰를 이끌어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방송과 보도의 일차적 목적은 일반 시청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지역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재난이 수습된 이후의 목적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하는 것에 있다. 속보 경쟁이 아닌 정확성 높은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난 이슈를 마치 일반사건 사고와 같이 일회성의 이벤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리스크로 생각하고 대비하려는 방송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신속성을 앞세우는 경쟁적 환경을 지양하고, 정확성을 우선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의 재난보도 관련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며,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계 및 시민 또는 시청자 활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방송, 지역케이بل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시민기자 또는 시청자와의 연계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귀화인, 관광객 등 외국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어방송, 수어방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편성 확대도 필요하다.

방송사는 재난의 종류별로 대처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기존의 매뉴얼 보완),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편성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방송 책임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 및 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솔루션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도 준칙 및 방송매뉴얼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재난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와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항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반영해야 한다.

재난방송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제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등이 필요하고 재난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교육의 의무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교육과 훈련은 재난방송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방송사 합동으로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방송사들은 매뉴얼에 의한 지침 및 준칙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긴급한 재난방송에 대비한 방송사 자체 재난 실시 요령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난방송에 대한 제작지원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와 함께 의무를 부과하여 자율규제를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재난방송의 인적·물적·기술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특히 지역방송사)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재난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재난 시 행동요령, 대피, 예방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채널이나 프로그램, 빅데이터 활용 등 고차원 재난정보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재난방송 거버넌스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재난방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운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재난방송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이를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재난정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극적 화면 반복방송보다 대피방법·장소 등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난정보 제공 민관협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방송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산불 등 지역에 한정된 재난 발생 시, 1차적으로 해당 지역방송(SO 포함)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상파, 종편·보도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UHD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 기술이 실험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생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과 연동된 통합적인 정보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재난방송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재난방송 누락시 재요청과 과태료를 처분한다.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인력·장비 부족으로 일부 방송사에 대해서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최근 재난이 일상화되어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강조되면서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요구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누락하더라도 다시 재난방송을 요청하지 못해 해당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은

재난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재난방송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24시간 실시간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적 대응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즉, 재난방송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통해 재난방송 실시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재난방송 누락 시 즉시 재난방송을 재요청하여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며, 재난관련 기관 및 다른 방송사에서 생성된 재난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재조치를 중하게 내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통위 내에 (가칭)재난방송 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재난방송팀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상황실 업무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

재난방송이 국가적 위기(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리 정책 및 조치에 반영되고 상시 공조 협력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 정책당국, 시청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 조직에서 상시적으로 취약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칭)재난방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학계(재난방송 및 방재 분야), 방송업계(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시청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해 평가체계 확립 및 조정, 모니터링 결과 검토, 제재(과태료 부과 등) 및 포상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와 더불어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관심 환기를 위해 시상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자, 방송사는 물론이고 현장 영상을 제공한 시청자를 선별해 시상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결과 공론화, 그리고 백서 발간 작업을 통한 공론화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상시 법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주관방송사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KBS는 최근 몇 년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법률적 의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들을 노출하고 있

는바, 몇 가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KBS는 최근 몇 년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법률적 의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들을 노출하고 있는바, 몇 가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의 주관방송사로서 권한 및 책임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권한으로는 재난관리기관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에 필요한 시스템(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 CCTV 설비 등) 구축을 위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행안부 상황실과의 핫라인 개설 지원, 정부·지자체 CCTV 영상정보 공유, 주관기관의 실질정보 우선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주관방송사(KBS)·행안부(상황실)·재난관리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뢰성 높은 재난정보 입수를 지원하여, 상황판단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의무)과 관련해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재난방송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방송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재난방송에 대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재난방송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한 후 공표하는 책임을 지을 수 있겠다.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난상황 그래픽 표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난별 국민 행동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 및 외국어자막방송 실시 및 과태료 규정 신설, 他방송사에 재난정보 개방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SNS와 적극 제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지원, 관련 법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평소 관계기관 간에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전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일과시간 뿐만 아니라 일과 후 시간에 근무하는 당직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KBS와 전국의 지역방송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 본사와는 별도로 지역총국 중심의 재난보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KBS 스스로 재난방송과 관련된 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방송 주관방송사이지만 재난방송의 주된 영역이 자연재난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재난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재난방송에 대한 투자 역시 재난정보를 수집하는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 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운영체제인 대응프로세스와 같은 부분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평상시에 재난 관련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주관방송사 KBS의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다. KBS는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안전중심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실시간 재난상황은 물론 예방·대처·사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난관련 정보를 전용 방송채널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송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KBS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강진숙 · 김정운 (2014). 기상방송 전문가들의 재난방송 인식사례 연구, 『한국방송학보』 28(1), 7-42.
- 김동규 (2003). 한국신문의 해양사고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부산일보의 보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 (2020).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1), 22-40.
- 김여라 (2020). 감염병 보도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김 용 (2016).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11(1), 39-50쪽.
- 김종화 · 유홍식 (2012). 건강보도에서 획득·손실 프레임과 예시가 이슈의 지각과 예방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5-30.
- 김춘식 (2011).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태일 (2019). 재난방송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방송문화』 417, 60-68.
- 김태종 (202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30(5), 457-466.
-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보고서 (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도, 혐오 조장하는 언론들, 1월 29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보고서 (2020).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전달하는 언론이 ‘전염병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2월 4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보고서 (2020). 방역엔 ‘뒷전’인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8월 31일.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4), 40-85.
- 백선기 · 이옥기 (2013).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 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KBS, NHK, CNN의 일본 대지진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1), 272-304.

방문신 (2014). 세월호 재난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 방송 특보를 중심으로. 『관훈클럽』 131, 13-26.

방송통신위원회 (2020.12.).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

손달임 (2020).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 -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51, 137-166.

송해룡 · 김원제 · 조항민 (2005). 과학기술 위험보도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105-128.

송해룡 · 김찬원 · 김원제 (2013). 미디어의존과 미디어 보도태도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성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9, 115-147.

송해룡 · 김찬원 · 김원제 (2014).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공중의 위험관여도, 위험인식, 심각성 지각과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 『한국위기관리논집』 10권 5호, 33-49.

송해룡 · 조항민 (2015). 국내 언론의 질병 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6), 45-68.

송해룡 · 조항민 · 이윤경 · 김원제 (2011).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 분석 및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0권 1호, 65-100.

심홍진 외 (2014). 재난방송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융합정책연구보고서.

이승선 (2014). 재난과 방송의 역할: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와 정책적 대안 세미나 발표 자료.

이연 · 송중현 (2011). 한국에 있어서 재난방송 시스템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 제17회 한일 국제심포지엄 발제문.

이종수 (2020). 코로나19 관련 CNN 뉴스 영상분석: ‘타자’의 질병에서 ‘우리’의 질병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5(2), 245-298.

유승관 (2014). 외국의 재난보도 기준 및 보도사례, 『FOCUS ON MEDIA』 131권, 18-27.

유승관 · 강경수 (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 · 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6, 140-169.

정민규 (2018). 재난보도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103-111.

정수영 (2020). ‘재난보도’와 ‘보도재난’, 재난이 문제인가 보도가 문제인가?!, 방송기자, 54,

34-36

정준화 · 송시현 (2014). 재난방송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주영기 · 유명순 (2011).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5(5), 30-54.

최민음 · 정희수 (2018).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22-40.

최효진 (200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상정보 활용과 재해평가 모형 검토.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리서치 (2020). 코로나19를 통해 본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혐오. <https://hrcopinion.co.kr/archives/15221>

한국일보 (2020.04.25.). 당신이 혹했던 ‘코로나 속보’...따져보니 가짜뉴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31827323119>

홍은희 (2014). 한국 재난보도의 관계: 세월호 침몰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관훈저널』 131, 26-36.

#### 해의 문헌

Gellert, G. A., Higgins, K. V., Lowery, R. M., & Maxwell, R. M. (1994). A national survey of public health officers' Interactions with the medi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 271(16): 1285-1289.

Gregory, J. & Miller, S. (1998). Science in public communication. culture and credibility, New York: Plenum.

Hornig, S., Walters, L. & Templin, J. (1991). Voices in the news: Newspaper coverage of Hurricane Hugo and the Loma Prietaearthquake. Newspaper Research Journal. 12(3), 32-45.

Kasperson, R. E., Jhaveri, N., & Kasperson, J. X. (2001). Stigma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oward a frame work of risk analysis. In Flynn, J., Slovic, P., & Kunreuther, H. (eds.), Risk, media and stigma: Understanding public challenges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and Sterling, VAL Earthscan Publications.

Otway, H. & Wynne, B. (1989). Risk communication: Paradigm and paradox. Risk Analysis. 9(2): 141-145.

Renn, O. (1992). Concepts of risk: A classification (pp. 53-79). In S. Krimsky and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Westport: Praeger.

Renn, O., Burns, W. J., Kasperson, J. X., Kasperson, R. E., & Slovic, P.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37-160.

Sandman, P. M. (1997). Mass media and environmental risk: Seven principles. In what risk? science, politics and public health. Edited by R. Bate, 275-284. Oxford: Butterworth-Heinemann.

Singer, E., & Endreny, P. M. (1993). Reporting on risk: How the mass media portray accidents, diseases, other hazards. Russell Sage Foundation.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Snyder, L. B. & Rouse, R. A. (1995).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s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7(2): 125-145.

Willis, J. & Okunade, A. A. (1997). Reporting on risks: The practice and ethics of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Connecticut: Praeger.

# 부록 1. 재난방송 보도 점검 및 분석 시트

00. 코로나19  
 01. 감염병 02. 지진 03. 태풍/홍수/폭우 04. 대형산불/화재 05. 미세먼지  
 06. 폭발사고 07. 가축전염병 08. 댐 건물 붕괴 09. 환경수질오염 10. 화학물질

재난방송 모니터링[코로나 19]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1: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0/ / / 시 ~ 2020/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염병(코로나) ② 기타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2: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 준수 여부]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속보 여부	正	正	正	틀림 지막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마트영상	正	正	正	영어 틀림 지막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신속성	재난보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재난보도는 정확한가? ① 예 ② 아니오						
감염병보도준칙 준수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1) 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2) 이해관계자들(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전문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제시가 있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안,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방송 일시	2020/ 10 / /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꼭지 순서(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뉴스제목	
1. 형식적 프레임	① 사건중심 프레임(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 프레임(심층보도) ③ 혼합 프레임 ④ 기타
2. 내용적 프레임 (재난 공통)	2. 재해 공통 대분류 프레임: ① 재해 정보 프레임 ② 위기대처 프레임 ③ 책임귀인(원인) 프레임 ④ 사후대책 프레임 ⑤ 인간적 흥미 프레임
	2.1. 재해 정보 프레임 ① 재해 예상/경고/예보/재방 정보(특보/주의보, 예방 행동 요령/지시, 예상진보) ② 재해 현황/현상 및 피해정보(재해규모, 특징 등) ③ 구조/구제 현황 ④ 복구 현황 ⑤ 기타
	2.2. 재해 위기대처 프레임 ① 정부 및 유관기관의 대비/대처(방안) 현황/평가 프레임 ② 지자체 대비/대처 현황/평가 프레임 ③ 예상 피해자/피해자구/지역의 자체적 대비/대처 현황/평가 프레임 ④ 재해 대처방식의 개선점/대안 제시 프레임 ⑤ 기타
	2.3. 책임귀인(원인) 프레임: ①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②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③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④ 인체(부실)사중 안전관리 부실 등 ⑤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⑥ 관련 법안 미비/부실 중국 귀책 프레임 ⑦ 기타
	2.4. 사후대책 프레임: ① 재난지역 선보 ② 관계 법령 정비/미련 ③ 이재민/지역 중장기적 구조 ④ 책임자/기관 처벌 ⑤ 종합대책 수립 ⑥ 시설 보완/보강 ⑦ 백서 발간 ⑧ 기타
2.5. 인간적 흥미 프레임(선정적 보도): ① 피해자/발생자 정보 과도하게 제시 ② 목격자/유가족 인터뷰 ③ 슬픔/서애 표정/얼굴 클로즈업 ④ 특징 장면(산사태, 해일 등) 반복 ⑤ 책임자의 일탈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⑥ 기타	
3. 코로나19 보도내용의 대분류 프레임	① 의료/방역 프레임 ② 갈등/불만 프레임 ③ 도덕성 비판 프레임
3. 내용적 프레임 (코로나 19 등 감염병)	3.1. 의료/방역 프레임: ① 국내 질병역학(감염자/치료자/사망자 현황, 위험크기, 감염 원인/전파경로, 유행전망 등) ② 진단/치료(증상, 질병 특성, 취약/고위험군, 진단/의료 서비스 및 병상 확보, 선별진료소, 국내 진단키트 및 치료법/치료제 개발 현황, 추이 등) ③ 사회적 확산 관리(사회적 거리 단계, 학교/기업 대응, 사회적 예방수칙, 여행/집회/집합 제한) ④ 개인 대처(심/여성숙 시민의식/역량, 개인 예방생활 수칙 등) ⑤ 사회적 공동노력(의료진/방역당국/정부 등의 헌신, 이에 대한 감사) ⑥ 해외 유행한 정보/해의 발병/진행/치료 현황, 백신 개발 등
	부정 ⑦ 안면집회 정보/발병자 개인식별 가능 정보 노출, 특정 종교/감염자 혐오 차별 용어 등) ⑧ 어휘/부정화 예방/치료 정보(드라이기 및 마늘 효능, 미인가 의약품 소제, 방역당국 조직설 등) ⑨ 추측/과장/자극적 용어 사용(대혼란, 공포, 패닉, 유령도시 등) ⑩ 중국정부/MHO 비유용 정보
	3.2. 갈등/불만 프레임: ① 정치권 갈등(여·야 보수-진보) ② 정부/유관기관-지자체 ③ 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자영업자 ④ 시민-시민 ⑤ 정부/지자체-의료계 ⑥ 정부/지자체/유관기관-종교단체 ⑦ 종교단체-시민 ⑧ 정부/지자체/유관기관-언론 ⑨ 언론-언론 ⑩ 언론-시민/시민단체 ⑪ 확진자 개인정보 관련 ⑫ 확진자 속출지역 자영업자
	3.3. 도덕성 비판 프레임: ① 정부/유관기관 및 리더 ② 지자체 및 리더 ③ 병원/리더 ④ 시민단체 ⑤ 보수연론 ⑥ 진보연론 ⑦ 마스크의학장비 생산/유통 기업 ⑧ 종교시설/집단지사 및 리더 ⑨ 일탈 시민 ⑩ 해외 인사 ⑪ 기타
4. 뉴스 논조	① 긍정 ② 부정 ③ 중립
5. 기사 유형	① 스트레이트(단순 사실/연방보도) ② 기획/로보 ③ 해설/논평 ④ 인터뷰 중심 ⑤ 기타

재난방송 모니터링[감염병]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방송 양적 모니터링1: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방송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방송 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방송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염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폭우 ④ 대형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축전염병 ⑧ 댐 건설 붕괴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방송 양적 모니터링2: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확보 여부	正	正	正	틀림 지막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팸영상	正	正	正	영어 틀림 지막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요일)
2. 방송시간	시 분 - 시 분 (입력 오후 2시 - 3시 = 1400, 1500)
3-1. 재난방송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사건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	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재)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직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 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인원/강수량 등) ② 예방행동요령/대비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

	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 <b>-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현상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행된 특별/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 <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 ①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이)재민 구조/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 <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재난지역 선보 ② 관계 법령 정비/이런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시설보완/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백서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 <b>-5 책임귀인(소제) [책임소제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책임자 처벌 ②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사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⑦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⑧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 <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자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 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애/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소구치는 불길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탈가능성 집중보도(클로즈, 여행, 귀가 등) ⑤ 음표를 조정하는 자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
10. 감염병 관련 질적 분석	<b>감염병(코로나 19)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시간지속적 재난]</b> -1. 감염병에 대한 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현황 보도 ① 예 ② 아니오 -2. 감염병에 대한 의료/의료/방역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 -3. 감염병의 감염 경로/원인 등 예방/대비 관련 정확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 -4. 감염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들(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배근, 대문란, 대란,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모니터링[지진]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1: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유	① 감염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폭우 ④ 대형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속전열병 ⑧ 덩 건물 붕괴 ⑨ 한강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2: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속보 여부	正	正	正	출력 지막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타영상	正	正	正	영어 출력 지막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요일: 201020)
2. 방송시간	00 시- 00시 [재난방송뉴스 프로그램 단위로 입력]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사건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b>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b> 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제)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 <b>-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집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b> 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인로/강수량 등)



	② 예방활동요령/대피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 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 <b>-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현상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생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 <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 ①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자민) 구조/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 <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재난지역 선포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시설보완/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백서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 <b>-5. 책임귀인(소제) [책임소제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책임자 처벌 ②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사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⑥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⑦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 <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자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 ① 피해자/발생지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애/표정/질문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산사태, 해일 등) 반복 ④ 책임자의 일말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
10. 지진 관련 질적 분석	<b>지진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예측할 수 없고 초단기적 광범위한 지역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b> 1. 지진 발생에 대한 신속보도/특보 [지진 성격상 신속보도/특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 ① 예 ② 아니요
	2. 여진의 발생 대비 대피행동요령 정보 ① 예 ② 아니요
	3. 지진 상황, 대피상황, 피해 현황에 정보 ① 지진의 강도/지열지 ② 지진 피해 발생 지역 ③ 통신시설/방송시설의 피해 여부 ④ 대중집합기관/시설/고층건물(학교, 백화점, 빌딩 등)의 안전 또는 피해 ⑤ 국가핵심시설(원자력발전, 방사선폐기물 저장소, 댐, 공항 등)의 안전 또는 피해 ⑥ 석유/화학 단지 등 산업단지의 안전 여부 ⑦ 문화재 등 역사문화 관련 피해 ⑧ 기타(.....) ① 예 ② 아니요
	9.4. 지진시 대피행동요령 상세 안내 ① 예 ② 아니요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연구기관, 의회, 재향전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배식, 대문만 대문,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재난방송 모니터링[태풍/홍수/폭우]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1: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열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폭우 ④ 대형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축전염병 ⑧ 댐 건설 붕괴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2: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속보 여부	정	정	정	틀림 지역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추적)	정	정	정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마트영상	정	정	정	영어 틀림 지역방송	정	정	정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코딩 201020)
2. 방송시간	00 시- 00시 [재난방송뉴스 프로그램 단위로 입력]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프로그램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사건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 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제)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 -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집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 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진로/감수량 등)



	<p>② 예방행동요청/대피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p> <p>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p> <p><b>-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현황</p> <p>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p> <p>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령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p> <p>④ 정부/지자체/기관/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p> <p>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편상에 대한 정보</p> <p><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p> <p>① 정부/지자체/기관/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p> <p>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사이재민 구조/구제 현황</p> <p>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p> <p>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p> <p><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재난지역 선포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p> <p>④ 시설보완/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백서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p> <p><b>-5. 책임귀인(소제) [책임소재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책임자 처벌 ②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p> <p>④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등</p> <p>⑥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⑥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⑦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p> <p><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자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p> <p>① 피해자/발병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p> <p>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서애/초정/얼굴 클로즈업</p> <p>③ 특정 장면(산사태, 해일 등) 반복 ④ 책임자의 일탈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p> <p>⑤ 공물을 조장하는 자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p>
9. 태풍/홍수/폭우 관련 질적 분석	<p><b>태풍(홍수, 폭우)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b></p> <p><b>-1. 태풍 대비/대피/관리 안내 보도</b></p> <p>① 태풍 대비 ② 대비 방법 ③ 국가핵심시설 관리정보(원자력발전, 댐 등) ① 예 ② 아니오</p> <p><b>-2. 태풍 상황 및 피해 현황 신속 보도</b></p> <p>① 예상진로 ② 예상되는 지역별 사태(강풍, 해일, 폭우, 산사태)</p> <p>③ 발달중 낙하물 ④ 침수(농경지, 차량) ⑤ 강/하천 범람 ⑥ 정전</p> <p>⑦ 차량침수 ⑧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p> <p><b>-3. 태풍 위험경보의 신속 보도</b></p> <p>① 태풍주의보 ② 강풍주의보 ③ 해일주의보 ④ 산사태주의보 ① 예 ② 아니오</p> <p><b>-4. 태풍 위험지역의 신속 보도</b></p> <p>① 상수침수지역 ② 산사태위험지역 ③ 국가핵심시설(원자력발전, 댐, 공항 등) ① 예 ② 아니오</p> <p>④ 교통통제지역/도로</p>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연구기관, 의료계, 재앙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매너, 대롱한 대안, 공포, 장골,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모니터링(산불/화재)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1: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염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폭우 ④ 대형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속전열병 ⑧ 댐 건설 붕괴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2: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축소 여부	正	正	正	출력 시작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티커영상	正	正	正	영역 출력 시작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코딩: 201020)
2. 방송시간	00 시00 분~ 00시 00분 [입력: 오후 2시 ~ 3시= 1400, 1500]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시간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p>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p> <p>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p> <p>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제)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p> <p>-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직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p> <p>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진로/강수량 등)</p> <p>② 예방행동요청/대피방안 등에 대한 정보</p> <p>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p>

	<p>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진 정보</p> <p><b>-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전망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생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p> <p><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p> <p>①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이)의 구호/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p> <p><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재난지역 선보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시발보의/보강 ⑤ 중립대책수립 ⑥ 백서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p> <p><b>-5. 책임귀인(소제) [책임소제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책임자 처벌 ②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사인)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사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⑦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⑧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p> <p><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사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p> <p>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유가족/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애/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소구치는 불길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말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공포를 조성하는 사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p>
10. 대형 산불/화재 관련 질적 분석	<p><b>대형 산불/화재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예측할 수 없고 급속히 확산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b></p> <p><b>-1. 대형 산불/화재 발생에 대한 신속보도/특보</b> ① 예 ② 아니오</p> <p><b>-2. (산불)국가위기정보(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보도</b> ① 예 ② 아니오</p> <p><b>-3. 지역인근 주민 대피령에 대한 신속한 보도</b> ① 예 ② 아니오</p> <p><b>-4. 지역/도로 통제 상황에 신속한 정보 제공</b> ① 예 ② 아니오</p> <p><b>-5. 대형 산불/화재 시 대피령요령 상세 안내</b> ① 예 ② 아니오</p> <p><b>-6. 대형 산불/화재 상황, 대피상황, 피해 현황에 정보 제공</b> ① 예 ② 아니오</p> <p>① 대형 산불/화재의 번짐 방향 ② 피해 발생 지역/상황 ③ 통신시설/방송시설의 피해 여부          ④ 대중집합기관/시설/고층건물(학교, 백화점, 빌딩 등)의 안전 또는 피해          ⑤ 국가핵심시설(원자력발전, 방사선폐기물 저장소, 댐, 공항 등)의 안전 또는 피해          ⑥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단지의 안전 여부 ⑦ 문화재 등 역사문화 관련 피해          ⑧ 기타.....)</p>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인위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들(연구기관, 의료계, 재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문면이 패닉, 대혼란, 대안, 공포, 창골,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사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모니터링[미세먼지]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염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폭우 ④ 대형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축전염병 ⑧ 담 건물 붕괴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력발전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속보 여부	正	正	正	홀림 자막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타영상	正	正	正	영어 홀림 자막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요일: 201020)
2. 방송시간	00 시00 분~ 00시 00분 [입력: 오후 2시 ~ 3시= 1400, 1500]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사건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	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제)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중지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예방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 ① 재해 예방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인로/강수량 등) ② 예방행동요령/대비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

	㉔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 <b>-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현상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생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㉔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 <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 ①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이)들의 구호/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 <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재난지원 선포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시설보완/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복식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 <b>-5. 책임귀인(소제) [책임소재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책임자 처벌 ②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재(부실사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장소효율, 연대 리크 풍속 등) ⑥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⑦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 <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자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 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서애/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송구처는 불길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말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공부를 주장하는 자극적 보도 ㉔ 기타 선정적인 보도
10. 미세언지 관련 질적 분석	<b>미세언지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예측 가능하고 예보 가능한 재난]</b> -1. 미세언지 발생에 대한 지역별/시간대별 예보 ① 예 ② 아니오 -2. 비상저감조치/미세언지 경보 등 신속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 -3. (초)미세언지 대비 요령에 대한 정확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 -4. 미세언지 대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들(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배너, 대문만 대만, 공포, 창괴,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모니터링[폭발사고]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행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복우 ④ 대형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옥전염병 ⑧ 덩 건물 붕괴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확보 여부	正	正	正	홀름 사막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맛영상	正	正	正	영어 홀름 사막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코딩: 201020)
2. 방송시간	00 시00 분~ 00시 00분 [입력: 오후 2시 ~ 3시= 1400, 1500]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시간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	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제)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집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 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진로/강수량 등) ② 예방행동요령/대피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 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 -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



	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전망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차와 함께 발생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 <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 ①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구조/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 <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재난지역 선보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사설보원/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백서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 <b>-5. 책임귀인(소제) [책임소재에 대한 정보/뉴스]</b> ① 책임자 처벌 ② 징부(유권기관) 귀책 프래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래임 ④ 개인(시민) 귀책 프래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사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⑥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⑦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 <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사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 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애/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숫구지는 불길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말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공포를 조장하는 사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
10. 폭발사고 관련 질적 분석	<b>(대형) 폭발사고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예측 가능하지 않은 갑작스런 재난]</b> -1. 폭발사고 발생에 대한 지역/시간/단계별 피해/수습 보도 ① 예 ② 아니오 -2. 2차 폭발 대비 인근 지역 대피 명령 등 대피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 -3. 인화성/유독/연기 물질 또는 필름(장각 장애유발) 등에 대한 대비 요령 관련 정확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 -4. 폭발사고 예방 또는 대응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히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들(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사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모니터링(가속전염병)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1: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염병(코로나) ② 지진 ③ 태풍 및 폭우(홍수) ④ 대형 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축전염병 ⑧ 홍과(건물, 댐)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2: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속도 여부	正	正	正	출력 자막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피드영상	正	正	正	영어 출력 자막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교당: 201020)
2. 방송시간	00 시00 분~ 00시 00분 [입력: 오후 2시 ~ 3시= 1400, 1500]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사건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 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제)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 -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잠정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 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진로/강수량 등) ② 예방행동요령/대비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 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

	<p>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p> <p>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현상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생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p> <p>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p> <p>①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이)재민 구호/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p> <p>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용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p> <p>① 재난지역 선보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시설보유/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복서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p> <p>5. 책임귀인(소재) [책임소재에 대한 정보/뉴스]</p> <p>① 책임자 처벌 ② 정책/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체/부실사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⑦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⑧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p> <p>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자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p> <p>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애/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수구치는 불길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탈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증표를 조정하는 자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p>
10. 가축전염병 (가축질병) 관련 질적 분석	<p>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시간지속적 확산해 재난)</p> <p>1.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 ① 예 ② 아니오</p> <p>2. 가축감염 증상(임상증상), 차단방역 필요, 가축 이동제한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p> <p>3.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지역별 대비/조치 요령에 대한 정확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p> <p>4.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p>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모니터링(건물 댐 붕괴)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열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폭우 ④ 대형산불/피해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축전염병 ⑧ 댐 건물 붕괴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속보 여부	正	正	正	홀린 자막방송 (학진자현,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피트영상	正	正	正	영역 홀린 자막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코딩 201020)
2. 방송시간	00 시00 분~ 00시 00분 [입력: 오후 2시 ~ 3시= 1400, 1500]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사건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내용의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p>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p> <p>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재)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p> <p>-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징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p> <p>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진로/강수량 등) ② 예방행동요령(대피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 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p>

	<p><b>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현상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생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구조/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p> <p><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p> <p>① 정부/지자체/기관/기업/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이재민) 구조/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p> <p><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재난지역 선보 ② 관계 법원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사설보원/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복식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p> <p><b>5. 책임귀인(소제) [책임소재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책임자 처벌 ②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사단)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사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⑦ 관련 법안 마비/부실 ⑧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p> <p><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사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p> <p>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애/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수구자는 풀릴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말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공포를 조장하는 사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p>
10. 붕괴사고 관련 질적 분석	<p><b>붕괴사고(건물, 담 등)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예측 가능하지 않은 갑작스런 재난]</b></p> <p>-1. 붕괴사고에 대한 (지역별/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 ① 예 ② 아니오</p> <p>-2. (대규모 홍수/지진 시) 붕괴 징후의 경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p> <p>-3. 붕괴시/예측시 긴급 피난/대피 요령(장소)에 대한 정확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p> <p>-4.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누가 붕괴 등 2차 피해 위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p>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장권,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모니터링(환경수질오염)**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염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폭우 ④ 대형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축전염병 ⑧ 담 건물 붕괴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확보 여부	正	正	正	홀림 자막방송 (확진자연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타트업상	正	正	正	영어 홀림 자막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코딩: 201020)
2. 방송시간	00 시00 분~ 00시 00분 [입력: 오후 2시 ~ 3시= 1400, 1500]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사건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p>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          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제)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p> <p>-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집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          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진로/강수량 등)          ② 예방행동요령/대비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p>



	<p>⑥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p> <p><b>-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진상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생한 특별/주요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지자체/기관/개인 등의 현재의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의 복구/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p> <p><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최근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p> <p>① 정부/지자체/기관/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이재민) 복구/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요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p> <p><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재난지역 선보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시설보완/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복식발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p> <p><b>-5. 책임귀인(소제) [책임소제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책임자 처벌 ② 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사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집중우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⑦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⑧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p> <p><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사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p> <p>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애/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소구치는 불길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방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공포를 조장하는 사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p>
10. 대규모 수질오염 관련 질적 분석	<p><b>대규모 환경(수질)오염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매우 가능하지 않고 시간지속적인 재난]</b></p> <p>-1.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 ① 예 ② 아니오</p> <p>-2. 수질오염 영향권에 대한 대피 명령 등 대피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 ① 예 ② 아니오</p> <p>-3. 수질오염 구별법(맛/색깔, 기름, 이상 어류 활동 또는 어류 폐사)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p>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들(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배식, 대홍난, 대만,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사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재난방송 모니터링(화학물질)

Coder	① 000 ② 000
-------	-------------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1: 보도내역 분석]

방송 일시	2021/ / / 시 ~ 2021/ / / 시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뉴스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방송시간대	시작	시 분	종료	시 분
재난보도 길이	총 분 초			
재난 이슈	① 감염병 ② 지진 ③ 태풍/홍수/폭우 ④ 대형산불/화재 ⑤ 미세먼지 ⑥ 폭발사고 ⑦ 가축전염병 ⑧ 댐 건물 붕괴 ⑨ 환경수질오염 ⑩ 화학물질			
프로그램 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④ 기상정보			

[재난보도 양적 모니터링2: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준수							
정규방송 중 재난방송 속도 여부	正	正	正	출력 지역방송 (확진자현황, 정부대응상황, 예방수칙)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국민행동요령 스팸영상	正	正	正	영어 출력 지역방송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합계	회			합계	회	

[재난방송 보도 꼭지별 질적 내용분석]

1. 방송일시	2021년 월 일 (요일: 201020)
2. 방송시간	00 시00 분~ 00시 00분 [입력: 오후 2시 ~ 3시= 1400, 1500]
3-1. 재난보도 프로그램 명칭	
3-2. 뉴스 제목	
4. 방송사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TV조선 ⑤ JTBC ⑥ 채널A ⑦ MBN ⑧ YTN ⑨ 연합뉴스TV
5. 꼭지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프로그램유형	① 정규방송 ② 특별방송(뉴스특보) ③ 정보프로그램
7. 형식	① 사건중심(스트레이트) ② 주제중심(심층보도) ③ 혼합
8. 논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9. 재난방송 유형에 대한 내용 분류	<p>9. 재난방송 뉴스의 공통 대분류:          ① 재해 예방 ② 재해/대응 현황 ③ 재해 직후 수습/복구          ④ 사후 대책/대안 제시 ⑤ 책임귀인(소제) ⑥ 인간적 흥미/선정적 접근</p> <p>-1. 재해 예방 [재해 발생집중 시기 대비 또는 재해 임박시에 제공되는 사전 예방 정보/뉴스]          ① 재해 임박시에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에 따른 예방/경고 (예상되는 크기/규모/진로/강수량 등)          ② 예방행동요령/대피방안 등에 대한 정보 ③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사전 대비 현황          ④ 기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전 정보</p>

	<p><b>2. 재해 상황/피해/대응 현황 [재해 시작-종료 시까지 발생한 상황/피해/대응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진상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인명 피해의 규모/특징 등에 대한 관련 정보          ③ 재해 시작과 함께 발생한 특보/주의보에 대한 정보          ④ 정부/자치체/기관/개인 등의 현재적 대응/수습/복구 현황 정보          ⑤ 재해상황에서 현재적 복구/구제 현황 정보 ⑥ 기타 진행되고 있는 재해 현황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p> <p><b>3. 재해 직후 수습/복구 [위급한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현황에 관한 정보/뉴스]</b></p> <p>① 정부/자치체/기관/개인 등의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수습/복구          ②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자(이재민) 복구/구제 현황          ③ 재해상황 종료 후 피해 지역/도로/하천/건물/주택 등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복구 현황          ④ 기타 재해 종료 후 수습/복구에 관한 정보/뉴스</p> <p><b>4. 사후대책 [재해 직후 사후 필요한 대책/대안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재난지역 선포 ② 관계 법령 정비/마련 ③ 재해 대응/대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안 제시          ④ 시설보완/보강 ⑤ 종합대책수립 ⑥ 백서발간 ⑦ 기타 사후 대책과 관련된 정보/뉴스</p> <p><b>5. 책임귀인(소재) [책임소재에 대한 정보/뉴스]</b></p> <p>① 책임자 처벌 ②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③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④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안전불감증 등) ⑤ 인제/부실사공, 안전관리 부실 등          ⑥ 재해 그 자체(집중호우, 역대 최고 풍속 등) ⑥ 관련 법안 미비/부실 ⑦ 기타 책임관련 정보/뉴스</p> <p><b>6. 인간적 흥미/선정적 보도 [재난보도를 선정적/자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뉴스]</b></p> <p>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과도하게 노출          ② 목격자/유가족/피해자의 슬픔/비애/표정/얼굴 클로즈업          ③ 특정 장면(수구치는 물길 등 불안감 조성) 반복          ④ 책임자의 일말가능성 집중보도(골프, 여행, 귀가 등)          ⑤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 보도 ⑥ 기타 선정적인 보도</p>
	<p><b>화확물질 관련 재난보도의 질적 분석 [예측 가능하지 않거나 시간지속적 확산형 재난]</b></p> <p><b>1. 화확물질 재난 발생 지역/시간대별 피해/수습 보도</b> ① 예 ② 아니요</p> <p><b>2. 독성가스 확산 이에 따른 대피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도</b> ① 예 ② 아니요</p> <p><b>3. 화확물질에 의한 개인 피해(입, 호흡기, 피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조치 요령(안전대피, 노출최소화 등)에 대한 정확한 보도</b> ① 예 ② 아니요</p> <p><b>4. 화확물질 사고와 관련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정보 제공</b> ① 예 ② 아니요</p>

<종합적 평가>

신속성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재난보도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발생 사실, 피해,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었는가? 1) 과학적/학술적/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존재하는가? 2) 이해관계자(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 정부 등)의 특정 이익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재난의 심각성 보도 여부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학술적/의학적/경험적 등의 근거에 기반한 재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주의해야 할 표현 유무	제목이나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재앙, 두려움, 치명적인, 살인적인 등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 부록 2. 재난방송 전문가 자문의견 종합

■ 재난방송/보도 일반에 관한 질문

1. 귀하는 현시점까지 국내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및 재난 보도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신속/정확한 방송 및 보도, 재난 예방 효과, 대응의 신속성 및 효과 등)

<p><b>1.1 방송(사)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b></p> <p>☞포항 지진 및 고성 산불 등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그리고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을 겪으면서 방송사들은 재난방송의 경험을 쌓게 되었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보도하고, 보도준칙이 요구되는 피해자 보호 및 정확한 방송 등에 대하여 이전과 비교하여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이다.</p> <p>☞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으로 최단 시간 내에 취재진을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취재하며, 재난대응 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p> <p>☞재난 관련 정보, 통계수치 등을 다양한 그래픽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된 부분이며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정보들에 가상, 증강현실을 접목하는 등 최신 테크놀로지를 재난방송에 대한 적용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p>
<p><b>1.2 정책/법/제도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b></p> <p>☞재난방송 시작 초기에는 방송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재난방송 요청 통보문을 수신하고 재난방송을 개시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재난방송 편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기술적·인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정부는 2018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고, 재난방송 요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원화하였으며,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재난방송 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p> <p>☞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정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 방송사업자에게로 확대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의 기본 틀이 확립되고 있다.</p>
<p><b>1.3 방송(사)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b></p> <p>☞여전히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방송사는 여전히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보도를 하고 있고,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는 등 정치</p>



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패닉, 봉쇄 등 공포를 유발하는 단어와 수식어를 사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기도 한다. 초기 방송보도에는 일부 개인의 이동동선을 그대로 노출한다거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었다.

☞속보 경쟁에 치우치다보니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보도가 방송되기도 한다. 소위 ‘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은 방송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관찰되는 관행이다. 유튜브를 포함한 SNS 등 스크리닝 시스템이 열악한 플랫폼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 재전달하는 사례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이 대비하고 유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방송해야 하는데, 재난 발생에 대한 규모나 중계식 보도로 정작 중요한 대비책 등의 전달에는 소홀하다.

재난 발생 시 재난 속보와 관련 정보는 기계적으로 제공 가능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이나 대응 방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거나, 재난 발생 이후의 복구 상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정보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적이다. 결과적으로 재난 보도가 사건사고 보도와 유사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이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주기적이며 품질 높은 재난방송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시청각장애인, 어린이, 노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방송 소외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 전국방송 중심으로 재난방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재난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미흡하다. 특히, 강원도 산골과 포함 지진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잘 나타났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난방송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및 훈련 등 기본적인 소양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에 인력 부족 등이 겹쳐 능동대응을 하거나 매뉴얼 부실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재난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취재행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화재 현장에서 취재진이 위험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장면이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재난현장에서 취재진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방송사 데스크에서 의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정책/법/제도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분명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재난’에 대한 정확한 개념구획이 미흡하

여, 관련 법령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다. 사고, 사건,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층위를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재난’이라는 개념에 그냥 몽땅그러서 묶임으로 인해 재난의 유형에 따른 예방과 대응의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관련 법령의 구성이 부족하다. 재난보도는 <방송통신기본법>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비해서 부처이기주어나 책임전가를 방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난방송에 대한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있는 점은 문제다.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 DMB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도 감독을 하고, SO나 위성, IPTV는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법적인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미흡한 상황이다.

☞뉴스 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도입했으나,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 보도 등에 수어통역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수어통역사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에 기인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재난방송은 단순히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에 DMB 및 FM 라디오 활용, UHD 기술을 이용한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며,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터널 내 중계기 설치 미흡이나 불량 등으로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부족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2. 다음은 국내 재난방송의 보도 부문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2.1 국내 재난방송 보도는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비해 재난방송 관련 보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속성’은 우수하지만, ‘정확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확성’은 대상에 대한 충분한 관찰과 이해를 전제로, 부정확한 표현을 제거하고, 흥미 유발 등의 동기를 적절하게 통제할 가운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확립되는 속성이다. 국내 재난방송 보도에서는 이러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그런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에 돌입하는 시점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재난방송 보도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송사별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재난방송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보도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재난방송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재난 보도뿐 아니라 모든 취재 보도 현장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신속성과 정확성이 상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기존의 취재 네트워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을 요하게 된다. 재난방송 보도가 단순한 사건사고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피방법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보도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본이나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이라는 가치일 수 있다. 따라서 재난방송 보도의 평가 기준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관점보다 ‘신속성’과 ‘정확성’ 각각에 대한 함의와 상황적 판단을 근거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2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시면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 또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 ☞ 최근 재난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방송사들이 재난보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 프라이버시 문제, 자극적인 보도 등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속보 경쟁 속에서 재난보도의 정확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며, 시청자의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 ☞ 중계식 보도나 화면의 불안정성, 그리고 재난발생 지역의 주민(시청자)과의 불안한 인터뷰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예컨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망원렌즈로 우한 교민들의 사생활 모습을 촬영하거나, 차이나타운에서 특정 민족을 비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등 재난보도준칙에 저촉되는 보도행태가 나타났다. 이는 언론사 간의 취재 경쟁과 더불어 재난보도준칙이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방송사 및 기자 개인의 자율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 재난보도준칙 자체의 완성도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없으나, 실제 현장의 취재인력과 데스크가 이를 체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문서로서의 준칙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처분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방송사들은 재난방송 보도준칙에 관해 보도국과 일선 기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재난 상황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내용으로 정확하게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가치를 언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는 보다 맥락적이고 전문적인 상황판단과 해석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재난방송 보도가 단순한 사건사고 보도가 아니라는 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방송사나 보도국, 또는 일선 기자들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방송/보도 질문**

**3.1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는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보도는 대부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나,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 글로벌한 재난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중요한데, 정부의 발표를 생방송으로 매일 방송하고, 메인 뉴스를 통해 어느 정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감염자 숫자 등에 대한 해석이나 국제 비교 등에 있어 통계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소외계층 및 방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양과 질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다.

‘정확성’은 속보와는 매우 다른 개념이며, 특정 정보에 대하여 진위와 가치를 가린 다음 보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는 끊여도 죽지 않는다” “코로나는 중국이 일부러 생산했다” 등의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빠르게만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방송사, 특히 지상파는 정보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는 주체이기에, 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해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언론도 우왕좌왕하면서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부분 해결은 되었다고 보이지만, 아직도 문제는 있다. 다만,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서 국민들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정보 전달 시 언론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양자택일)을 조사한 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정보를 보도해야 한다” 89.0%, “불확실한 정보라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11.0%로 나타났다. 정확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서 언론은 교훈 중 하나이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다 보니 대다수 방송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재난방송을 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특성과 대응방법에 대한 구체성, 정확성 등 보도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 KBS의 경우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 방송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3월 4일부터 KBS 1TV를 코로나19 확산에 24시간 대응하는 ‘코로나19 통합뉴스룸’으로 전환하여 전체 채널 편성을 운영하고 있다. 1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했던 3월 말까지 KBS뉴스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6,684개의 기사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달했다. 이 시기 두 차례의 KBS 내부조사에 따르면 ‘KBS 코로나19 뉴스특보’는 전 국민의 약 84%에 도달했다. KBS1, 2TV 채널은 확진자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4월 말까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예방 수칙 등 여러 스포츠를 3,353회 방송하였고, 착한 소비 프로젝트 등 110회에 걸친 코로나 관련 특집 프로그램은 누적 4,986만 명이 시청하였다. 라디오에서는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3라디오, 해외동포를 위한 한민족방송을 포함한 6개 채널에서 840회 이상 관련 정보를 방송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1월 27일 KBS 내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국제현황, 정부 콘트롤타워, 보건당국 점검, 병원, 시민의 코로나 확산 등의 점검요인을 정립하고 정치인에 의한 의견보도 자제 등에 대한 자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보도를 수행한 바 있다.

### 3.2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하나요?

-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며, 감염자가 많다. 적다와 같은 단순한 수치 비교나,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등 통계 및 해석의 문제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깊게 보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의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대피, 대응, 예방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불안’, ‘공포’, ‘우려’ 등의 자극적인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언론이 뉴스 수용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발화시켜 뉴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보도관행이다. 이러한 표현은 국민에게 불확실한 공포감을 유발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와 공간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보도도 문제다.
- 사실 방송사(인론사) 내에 재난방송이나 감염병 관련 전문가 풀이 너무 부족한 상태다.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 이미 알려진 전문가의 중복 겹치기 출연/인용과 비전문가를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인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식브리핑이나 정부 대응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재난 현장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경

우도 발생한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브리핑에 이견이나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반대로 공식브리핑에 충실하게 보도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나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히기 어렵다는 우려 등이 상충하는 것이 현실이다.

### 3.3 위에서 언급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니는 재난에 있어서는 통계 비교나 해석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보도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신속한 보도보다는 정확한 보도가 더 중요한 재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종류별로 방송/보도하는 매뉴얼과 준칙을 새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 대상 수어방송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낙인이 찍히는 집단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 긴급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평소에 완벽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재난관련 보도가 국가적 위기관리(사회적 재난 및 테러, 환경문제, 자연재해 포함) 정책 및 조치에 반영되고 상시 공조 협력할 수 있도록 언론사(방송사)와 연구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 조직에서 상시적으로 연구결과와 취약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정보와 위험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 준칙의 항목들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사, 특정 기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 등 책임/권한있는 주체에서 요청-고지-경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제를 유도할 수 있겠다. 자살 보도의 선정성 등이 문제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살보도권고기준은 최근 매우 효과적으로 준수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미디어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위배 사실 통보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벤치마킹해 재난방송 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전문기자의 육성, 트레이닝 그리고 전문기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새로운 감염병은 전문가들도 익숙하지 않기에 대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정도 기본적인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기자들은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학습, 취재원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해외/국내 논문의 서칭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 보도의 정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단 재난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위험이슈 관련 보도에서 때면 지적되는 문제이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사(특히 방송사)에서도 보건 분야의 전문기자의 양성과 전문 취재시스템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야 할 것이다.

### ■ 재난방송/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질문

4.1 국내 방송의 재난방송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송/보도는 사건사고 보도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화재 발생 또는 지진 발생 등의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것은 사건사고 보도와 다르지 않다. 재난방송/보도는 예방, 대응, 피해 최소화, 재발방지 등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이에 걸맞은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방송과 보도의 일차적 목적은 일반 시청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지역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난이 수습된 이후의 목적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하는 것에 있다. 즉, 재난방송/보도는 재난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목적과 대상,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재난방송/보도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기준은 상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적용할 것인지의는 재난방송/보도의 정의와 범주, 재난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충하는 두 개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명확하고 촘촘하게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속보 경쟁이 아닌 정확성 높은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재난 이슈를 마치 일반사건 사고와 같이 일회성의 이벤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리스크로 생각하고 대비하려는 방송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정파, 진영 대립 등의 정치적 논쟁과의 연결성을 차단 및 지양해야 한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범위, 재난의 속성에 대한 사전적인 구분 및 개념 정의에 대한 방송사들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재난의 대응은 크게 예방, 대비, 대응(수습), 복구로 구분된다. 재난방송 역시 이러한 체계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 뉴스가 재난의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면 그 외 방송프로그램들은 예방 정보나 발생한 재난의 복구에 대한 정기성을 토대로 한 방송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 이미 지상파, 종편, 보도PP의 경우 재난방송관련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만,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방송, 지역케이블과의 연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시민기자 또는 시청자와의 연계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귀화인, 관광객 등 외국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어방송, 수어방송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하다. 일부 의무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시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 방송사는 재난의 종류별로 대처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기존의 매뉴얼을 보완),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편성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방송 책임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편성 확대도 필요하다. 중앙 및 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저널리스트의 육성이 요구된다.

4.2 국내 방송의 재난 보도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지요.

☞ 국내 방송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보도하면서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상황을 단순 기술하는 스트레이트 중심의 뉴스들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신종플루와 메르스,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재난방송과 유사한 형태이다. 재난 발생과 피해상황, 사망자 수와 같은 사후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재난의 원인과 통제방안, 정부 대응의 적절성 검증, 시민들의 실천방안 보도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재난에 대한 단순 사건보도식 뉴스제작을 탈피하여, 더욱 심층적이고 맥락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뉴스 제작이 요구된다.

☞ 신속성을 앞세우는 경쟁적 환경을 지양하고, 정확성을 우선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솔루션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도 준칙 및 방송매뉴얼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국내 재난보도는 여전히 지나치게 뉴스 속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속보의 언론사 간 경쟁이 부정확한 재난정보, 선정적 보도, 중복·편중 보도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자 배려 부족 및 무리한 인터뷰들을 진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과도한 취재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법, 제도라는 것은 따로 없기에 기자들의 재난보도에 대한 교육이나 직업윤리 준수에 대한 자극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재난보도 관련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며,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계 및 시민 또는 시청자 활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4.3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까요?

☞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 및 재난방송 관련 법령으로부터 지나치게 배제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정부는 매 5년

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정부부처가 포괄되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8년 2월 23일 심의의결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은 5년 동안 3조 7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각 정부부처가 진행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에 따라 생성된 재난 정보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부처에 포함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등의 조항을 통해서 재난방송과 보도는 법·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기존의 지상파, 종편, 보도PP 방송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를 포함한 재난방송 시스템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법과 시행령 또는 규칙 등을 통해서 구체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케이블 지역채널이 유료방송 M&A 상황에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등에서 그 의미가 검증된 사례를 참고하여, 케이블 지역채널이 재난방송을 포함하여 그 역할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재난주관방송사업자로서 KBS의 역할과 책임,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협력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방송 외에 인터넷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OTT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OTT를 통해 재난상황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튜브를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단, 가짜뉴스의 폐해 가능성에 대한 염두도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층, 어린이 등)는 이중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방송과 인터넷/모바일 매체의 연동이 필요한 바, 정부 관련 부처 합동으로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와 통합적인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방송 및 보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방송사에만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주관으로 기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재난방송 관련 법과 표준 매뉴얼, 지침을 상황별로 심층적으로 교육하고, 이에 대한 교육결과를 기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해외연수 선발시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 재난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와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항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반영해야 한다.

## ■ 재난방송 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질문

5.1 재난방송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 허위조작정보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방송 관련 가짜뉴스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각 방송사가 팩트체크를 하지만 재난방송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방송되기도 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재난방송 모니터링은 방송편성 의무 달성 여부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점검 정도로, 언론사의 재난방송 및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심의 외에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현재 재난방송 모니터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가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면에서 다소의 의문은 있다.

☞ 지상파방송 이외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PP 및 플랫폼 사업자 성격인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의 경우 제한된 인력 등의 이유로 재난방송 모니터링이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2 재난방송 보도 관련 방송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재난방송과 관련한 심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팩트체크나 심의에는 한계가 있다.

☞ 방송법 제86조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자체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방송심의는 방심위에서 시행하고 있다. 재난방송/보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현실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방송/보도 이외에, 재난방송/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방송심의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에 집중된 재난방송 보도 관련 심의를 주로 얼마나 빠르게 재난방송을 시작했는지, 적절한 편성시간이 부여되었는지를 주로 심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난 관련 보도 내용의 정확성 등을 심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5.3 재난방송/보도 관련 방송심의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관련 심의는 사후에 주로 민원 제기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재난이 발생하여 관련 보도가 다수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별히 심의를 강화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심의라는 것이 결국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난방송 및 보도의 문제가 발생한 후 심의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난방송 관련 심의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상시 기구를 만들거나, 특정 기간 특별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의2(제24조의 2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24조의3 피해자의 안정 등 제24조의 4 피해자 인권 보호)에 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하게 겪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재난방송/보도의 정의와 범위, 방송심의 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소식을 단소 보도하는 것이 재난방송/보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상파방송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의 범주와 수위에 걸맞은 심의 및 평가 기준, TV와 라디오 등의 매체적 속성에 적합한 재난방송/보도와 심의 기준, 재난 발생 지역에 따른 전국방송과 각 지역방송의 책무 및 이에 걸맞은 심의와 평가 기준 등을 촘촘하게 검토하여 법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방송과 보도에 대해 평가하고 백서 발간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4 효율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심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재조치를 중하게 내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재난방송 및 보도 관련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담기구(조직)을 통해 주요 재난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에 대한 질문

6.1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 및 권한, 성과와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KBS는 최근 몇 년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법률적 의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고성 산불 이후 20개 정부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반영하며, 재난방송 책임자를 격상하고, 핫라인 등을 구축했다. 다만 단순히 재난 관련 정보전달에 그치지 말고 고품질의 재난방송 관련 프로그램 제작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방송소외계층의 재난방송 접근권이 개선되도록(모든 시청자가 보편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세월호 참사 이후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법적 위상 약화,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의 권한 및 책임을 법률에 규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에서 상시 지적된 내용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방송책임자 및 담당자의 판단 오류, 지역방송국과의 협력 부족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 KBS는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수신료 및 방발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방송을 위한 기술 개발, 관련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두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수신료와 방발기금을 바탕으로 구축된 재난방송 시스템의 성과는 다른 방송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실효성 있는 재난방송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방송사에게도 제공되어야 할 기술적 특성이나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모의훈련,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방송, 재난방송 시스템의 표준화에 기여하는 것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이라면 이는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등의 법률 중 어딘가에 재난방송을 주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방송의 주관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송사들과의 협력과 관련된 권한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KBS 스스로 재난방송과 관련된 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지만 재난방송의 주된 영역이 자연재난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재난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재난방송에 대한 투자 역시 재난 정보를 수집하는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 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운영체제인

대응프로세스와 같은 부분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 전국적 재난에 비해 지역적 재난에 소홀하고 대응이 미비한 점은 문제다. 재난의 기준을 전국수준으로 고려하다보니, 특정 지역에서는 힘든 재난상황이어도 KBS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재난으로 볼 수도 있다.

**6.2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지난 여름 52일간 이어진 사상 초유의 장마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닥칠지 모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주관방송사 KBS의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다. KBS는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안전중심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전달조직과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실시간 재난상황은 물론 예방·대처·사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난관련 정보를 전용 방송채널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송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KBS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재난방송과 관련된 부분이 KBS의 고유한 책무이자 공공 서비스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44조 KBS의 공적 책무와 제54조 업무에 재난방송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책무 하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할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전문 기자가 아닌 재난전문 기자의 육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령 또는 고시 제정을 통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보도전문채널 중 하나를 제2의 주관방송사로 선정하여 상호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 이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재난방송사의 법적 의무와 권한 및 책임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관방송사가 재난방송을 매우 중요한 책무로 여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하면서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상시성을 정부, KBS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종편채널, 케이블, 보도채널 등과의 협력체계도 상시 점검해 범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는 KBS와 지상파 외에도 다른 미디어채널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조력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평소 관계기관 간에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전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일과시간 뿐만 아니라 일과 후 시간에 근무하는 당직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KBS와 전국의 지역방송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 본사와는 별도로 지역총국 중심의 재난보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 재난 기준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KBS로 하되, 광역지자체장에 의한 국지적 기준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사가 주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법이며, 공격 자원의 투입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 평상시에 재난 관련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규모 산불이 났을 때, 어딘지도 가늠이 안 되는 산불현장 화면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날씨와 바람, 지형 등을 고려하여 현재 산불이 언제쯤,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각화된 그래픽 화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 재난방송 관련 보도 외에 심층적인 재난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현재의 수어방송 외에 화면해설방송, 외국어 방송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자율규제 개선 등**

**7.1 방송사의 자율규제 강화(재난보도준칙 준수) 위한 현실적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상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 보도준칙을 제정하거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현행 재난보도준칙 역시 신문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관한 다양한 강령이나 준칙,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내용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 우리 언론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난방송/보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재난 현장에 적합한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 역시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코로나19는 재난방송/보도로 국한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과 직결될 만큼의 복합재난에 해당하며, 재난방송/보도 관련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이미 넘어서는 것이며, 이러한 성격의 재난은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난보도준칙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저널리즘 원칙, 방송/보도 관련 준칙이나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강령(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방송강령 등)등

을 현실의 보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보도, 저널리즘 교육을 충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결과를 공론화함으로써 준칙 준수를 위한 사회적인 압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 재난방송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방송에 대한 제작지원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와 함께 의무를 부과하여 자율규제를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7.2 재난보도준칙의 보완/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대안 또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한국기자협회 등은 재난보도 준칙과 감염병 보도 준칙 등을 별개로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재난방송 보도 관련한 규정을 취재보도준칙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재난방송이나 감염병 등의 보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재난방송 보도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재난보도 준칙의 내용이 부족하다기보다 준칙을 제대로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방송사 스스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자사의 보도라도 냉정하게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시청자에게 알리고 개선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 ☞ 재난보도준칙을 기본준칙으로 삼아 감염병,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별 세부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 보도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기자라도,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과 취재, 보도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유형에 따른 보도준칙과 교육이 요구된다.
- ☞ 많은 재난 관련 보도준칙들의 문제는 이러한 보도준칙을 기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언론사들의 무리한 속보경쟁 때문에 제해·재난보도 준칙이 있어도 이를 지킬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미국 등에서는 윤리강령 등 준칙을 어기는 기자는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다. 회사 차원에서 준칙을 안 지켰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한다. 오보가 나올 경우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도 규제는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7.3 마지막으로 재난방송 제도/규제/기술/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UHD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 기술이 실험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생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 자체만으로는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과 연동된 통합적인 정보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 재난방송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 기술,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관할 관리 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센터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 ☞ 재난은 반복적 예측을 통한 방어가 더 중요하다. 재난발생시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 해서 축적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저 자 소 개 ●

---

유 흥 식

- Univ. of Alabama, Telecommunication & Film 석사
- Univ. of Alabama, Mass Communication 박사
- 현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 원 제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유틸러스연구소 소장(성균관대 겸임)

김 찬 원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성균관대 겸임교수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0-36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한 현황과와 및

개선방안 마련

---

---

2020년 월 일 인쇄

2020년 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